

나? 글쓰기로 자기돌봄 중!

우리의 돌봄을 나누고 글로 쓰다

나? 글쓰기로 자기돌봄 중!

우리의 돌봄을 나누고 글로 쓰다



함께크는여성올림

여행 좋아하나요?

꿀벌화숙

“여행 좋아하나요? 이 사진 어때요?” 글벗들이! ‘돌봄 글쓰기’ 첫 날에 PPT 사진으로 우리가 나눈 이 첫인사 기억하지? 역대급 폭염에도 울림 강의실을 채워 앉았더구나. 수다로 호응하는 벗들이었지. “글 쓰고 있나 봐요.” “비행기가 보여요.” 맞아. 여행 중 브리즈번 공항에서 잠깐 노트북 컴퓨터 작업하며 찍은 사진이었어. 내 뒤엔 푸른 눈 금발머리 사람들, 창밖엔 활주로와 비행기, 그 위로 파란 하늘. 그래, 글쓰기가 바로 ‘여행’이라고 말하고 싶었어.

“그럼, 여행의 재미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수다를 이어갔지. 여행은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장소, 낯선 언어,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고, 결국엔 낯선 나와 의 만남”의 즐거움이라 하지? 내 목소리를 찾아서, ‘평어 쓰는’ 낯선 여행이 그렇게 시작됐구나.

“여성, 돌봄을 쓰다.” “내가 쓰는 글이 나를 돌본다.” 이 카피에 이끌려 온 사람들이더구나. 익숙한 돌봄, 때론 징글징글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돌봄으로 글을 쓴다고? 글이 우리를 돌보는 힘이라고? 맞아. 첫날 우리는 4편의 돌봄 시를 읽고 모방시 몸풀기를 했지. 현장에 15명, 줌에 5명, 그리고 유튜브, 대단했다, 그치?

2강은 2주 후에 이어질 수 있었지. 1강 후에 ‘그림책으로 읽는 돌봄’(김지은)과 ‘돌봄의 생태계와 나이듦’(김영옥) 강의가 있었거든. 우리는 “자전적 에세이” 또는 “자기 이야기로 에세이 쓰기”를 쓰기로 했어. 『와일드』, 『내 몸은 내가 접수한다』 같은 자전적 에세이 글맛을 보고 분석도 하고 글감을 고민할 수 있었지.

3주 차 화두였던 ‘여성의 글쓰기’ 생각나? 올해 3.8여성의 날 ‘여성운동상’을 수상한 최말자(79)씨 이야기도 했잖아. 61년 전 성폭력을 시도하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해서 ‘가해자’가 되었고, 여성단체의 도움으로 재심을 청구해, 결국 무죄를 받아낸 영웅. 왜 ‘여성의 글쓰기’인지 함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지.

“남성을 기본값으로 삼아온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모든 여성은 언젠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질문하는 숙명에 놓인다. 글쓰기가 나로부터 출발해 주변을 관찰하고, 공감하고, 흡수하고, 대화

해 가는 소통의 산물이라는 점에서도 여성에게 적합하다.”-『여성의 글쓰기』

여름휴가로 3주 쉬며 6월의 <딸에 대하여> 영화 토론에 이어 <다섯 번째 방> 줌 영화 토론 후, 8월 19일에 4강으로 우린 다시 만났지. 벗들은 더위를 잊은 듯 글을 쓰고 합평에 참여하더구나. 이후 5-8주 차엔 매주 2시간 반을 합평만으로 채웠지. 써온 글을 낭독하고 칭찬과 조언을 나누는 서로 돌봄의 글쓰기 잔치였어. 종강 날을 넘어 9월 한 달 합평을 5회 추가하면서도 다들 안 지치더구나. 낮엔 오프, 밤엔 줌, 어떤 주엔 이틀 연속 줌 합평, 결국 10월에도 이어진 합평 또 합평.

석 달의 긴 여행을 쓰고 또 쓰며 완주한 24명의 길동무들아! 모두 수고했어. 글을 쓰고 내놓은 용기, 울고 웃는 낭독과 합평의 집단 지성, 수정과 퇴고의 수고. 멋진 여정이었어. 강좌에 참여하고도, 글은 못 낸 벗들아! 더더욱 수고했어. 글 쓰고 싶은데, 시작도 마무리도 만만치 않아 끙끙땀잖아. 그 수고 그 마음 씀 알고말고. 다음 기회에 또 만나서 회포를 풀자꾸나.

글쓰기 여행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지?

우리 모두에게, 올림 활동가들에게, 칭찬의 박수를 보낸다. 글벗들과의 만남은 올해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로 기억될 거야. 우리

의 여행을 길동무로 동행한 책·영화 목록을 정리해 본다. 아, 언제 일까? 우리가 다시 떠날 여행이 벌써 기다려진다!

강미자 감독, <봄밤>, 한국, 2024
권김현영 외, 『꼭주하는 남성성』, 동녘, 2025
김설, 『아직 이 죽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릅니다』, 위고, 2022
김화숙, 『내 몸은 내가 접수한다』, 생각비행, 2022
김화숙, 『속덕속덕 사모의 그림자 탈출기』, 생각비행, 2024
낸시 애러니, 『내 삶의 이야기를 쓰는 법』, 돌베개, 2023
로리 할스 앤더슨, 『스피크』, 에프, 2019
박경목 감독, <말임 씨를 부탁해>, 한국, 2022
박완서, 『한 말씀만 하소서』, 세계사, 2024
서한영교, 『두 번째 페미니스트』, 아르테, 2021
세릴 스트레이드, 『와일드』, 나무의철학, 2012
수신지, 『머느라기』, 쿨프레스, 2018
우에노 치즈코, 『돌봄의 사회학』, 오월의봄, 2024
이고은, 『여성의 글쓰기』, 생각의힘, 2019
이미랑 감독, <딸에 대하여>, 한국, 2024
이은주, 『나는 신들의 요양보호사입니다』, 헤르츠나인, 2019
이창동 감독, <시>, 한국, 2010
장 마르크 발레 감독, <와일드>, 미국, 2014
전찬영 감독, <다섯 번째 방>, 한국, 2024
정혜실, 『우리 안의 인종주의』, 메멘토, 2023
정희진,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쓴다』, 교양인, 2020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민음사, 2016
태 켈러, 『호랑이를 닮게 가두면』, 돌베개, 2021
하벤 길마, 『하벤 길마』, 알파미디어, 2020

목 차

프롤로그 여행 좋아하나요?

꿈마난영 11

돌봄의 끝에서 다시 불린 이름, 강만선
채고 만두상

나나 21

내가 너를 돌보듯, 너도 나를 돌본다

레몬선희 27

수다 씨앗이 돌봄으로 핀다

리사효정 35

새벽부터
난 너를 좋아한 게 아니야

마늘 47

<다섯 번째 방> 전성에게

박단비 55

나는 못해야 한다
대물림
나는 남미새다

보리남순 67

가을 들녘
월요일 오후 2시

비날성혜 79

꾸밈에서 돌봄으로
다시 냉장고 앞에 서다

생각쟁이 이정숙 89

담쟁이와 가로등
이효숙 김태수 부부 인터뷰

신은향 101

이제, 글의 돌봄을 받기로 했다
잘 놀고 있냐?
엄마는 엄마 같지 않아

심박 119

잔나비
단식 존엄사를 생각하며

쑹쑹 129

계약동거

애플정환 137

비로소 시작된 돌봄
오랜 그림자
가을이 오면 너도 온다

얼쑤 153

아이를 키운 마을

이영경 165

엄마의 미소

이해우 171

그러다 큰일 나!

장해 문장혜 179

엄마
엄마를 돌보다, 나를 돌아보다
숨통 트이는 돌봄 글쓰기

정하덕 191

초1 중2 고1
뜻밖의 선물

지해연 201

가스 밸브를 잠그며
산토끼 집토끼
밤 12시에 만나요
나를 돌보는 글쓰기 여행 중

짱아차아 221

슬기로운 솔로 생활

최운경 229

오월 어느 아침에
어떤 돌봄

한들 243

엄마야 언니야

향천 251

엄마의 안부를 묻다
냉전과 개선 사이

꿀벌화숙 263

진료실을 나오며
나는 돌봄이 싫다
열두 개의 국가자격증



꿈마난영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과 소통하며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꾼.
작은 경험도 소중히 담아내어
삶을 노래하듯 전하고 싶다.



“이 글쓰기 여행은 나에게 우연이 아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여정 속에서,
글은 나를 비추고, 나를 돌보게 했다.”

돌봄의 끝에서 다시 불린 이름, 강만선

꿈마난영

언젠가 딸 난영이가 휴대폰에 나를 ‘강만선 여사’라고 저장해 두었다며, 내게 이름을 되돌려 주고 싶다고 했다. 강만선. 아버지가 지어 주신 이름이다. ‘가득할 만(滿), 착할 선(善)’. 오랜 세월 제대로 불리지 못했지만, 나는 내 삶으로 그 이름을 살아낸 것 같다.

‘나’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꿈꾸거나 원하는 대로 따른 기억이 거의 없었다. 여자가 자기 삶을 선택하거나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시대였다. 나는 늘 누군가의 딸, 누나이자 언니, 아내, 엄마, 할머니로 살아왔다. ‘강만선’으로 불린 시간은 거의 없었고, 내 꿈은 묻혀 있었다. 가족의 꿈을 키우며 사는 게 당연한 길이라 믿었다.

나는 삼 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다. 동생들을 돌보는 일은 항상 내 몫이었다. 동생들이 잘못해도 내가 혼났다. 열네 살 되던 해, 병환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호하는 일도 내 몫이었다. 아픈 아버지를 모시고 공주의 한 절로 들어갔다. 매일 절에서 500배를 하며 아버지를 돌봤다. 엄마가 보고 싶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주어진 삶을 살아낼 뿐이었다.

동생들의 삶은 달랐다. 막냇동생은 서울로 유학을 갔고, 노래와 흥이 많은 둘째 동생은 소를 팔아 작곡가 박춘석 씨와 함께 음반도 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을 가두고 있는 현실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동생들이 부럽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혼자 조용히 간직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나는 결혼했다. 연애 한번 없이, 두 집안 아버지들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결혼이었다. 스물도 되기 전, 나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고, 아이 엄마가 되었다. 내 삶은 그렇게 누군가를 돌보는 책임으로 이어졌다.

큰아들이 두 살 무렵, 남편과 나는 서울 노량진 산동네로 상경했다. 산동네 계단을 오르내리며 아이 넷을 키우는 일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단했다. 그래도 자식들에게 잘해준 것보다 못 해준 것이 더 마음에 남는다. 둘째가 갓난아기였을 때, 흙집 지붕을 때리는 역수 같은 비로 집에 물이 차올랐고, 그 바람에 아기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코가 찢어졌지만, 병원에 데려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떨어진 살점을 살살 코에 붙여 주던 순간이 지금도 죄처럼 가슴에 남아 있다. 어디 가슴을 옥죄는 미안함이 이것뿐이랴.

아이 넷을 키우면서도 산동네 집을 닦고, 손빨래하고, 교복을 다

려 입혔다. 도시락을 여덟 개씩 싸던 시절에도 나는 늘 나를 뒤로 미루고 아이들만 챙겼다. 등록금에 허덕이면서도 아이들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라 믿고 살았다.

막내딸 난영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내 생일 선물로 고무장갑과 빨랫비누와 수세미를 사 왔다. 아홉 살 딸의 눈에 엄마는 그런 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나 보다. 그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는 TV 광고를 보고 생일 선물로 도미나 크림을 사다 주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나도 얼굴과 손에 크림을 바르며 나를 돌보는 여유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각자의 길을 걸었다. 남편의 사업도 잘 풀렸고, 마당 있는 집도 마련했다. ‘이제 내 인생도 시작이구나’ 생각했지만, 내 나이 오십에 손주가 태어나면서 또 새로운 돌봄이 시작됐다. 손주 보는 일은 기쁨이면서도 고단했다. 허리와 손목,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도 손주를 안고 업었다. ‘이것이 인생이려니, 이것이 행복이려니’ 하며 살아야 했다.

열두 해 전, 따뜻하고 살갑게 나를 돌봐 주던 큰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아들의 죽음은 내 삶이 모두 부인당한 것 같은 고통이었다. 숨을 쉬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고통스러운, 삶과 죽음

사이의 시간이었다. 이후로 다른 자식들과 손주들이 우리 부부를 보살폈다. 주말마다 찾아와 밥을 해주고 곁을 지켜 주었다. 아들 친구들은 지금도 아들처럼 우리 부부를 살갑게 챙겨준다.

돌아보니 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돌봄’이었다. 동생들과 아버지를 돌보는 소녀였고, 네 아이의 엄마였고, 손주 업는 할머니였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남편의 손을 잡아주는 노인이 되었다. 나만의 시간을 전혀 꿈꾸지 않은 건 아니었다. 삼십대에 남편에게 편지를 남기고 동네 아줌마들과 온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단 하루가 내 삶에 얼마나 희열을 불어넣었던가. 그리고 요즘,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린다. 남이 그려 놓은 그림에 색을 입히는 것뿐이지만 즐거운 취미가 됐다.

그래서 나는 바란다. 내 딸은 나처럼 자신을 잊어 가며 돌봄에 묻히지 않기를. 사랑하는 이를 돌보되, 자기 자신도 소중히 여기며, 자기 일을 갖고 늘 꿈꾸며 살아가기를 말이다. 돌봄으로만 불리던 삶의 끝에서, 나는 이제 딸이 다시 불러주는 ‘강만선’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다. 누군가의 엄마, 아내, 할머니로 살아온 세월도 헛된 건 아니었음을 알기에, 내 이름으로 사는 시간이 더없이 따듯하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안아주고 싶다.

“장하다, 강만선. 고맙다, 강만선.”

채고 만두상

꿈마난영

돌봄은 늘 내 삶의 중심에 있었다. 밥상을 차리는 일, 아이들을 챙기는 일, 그리고 상담소에서 만난 내담자들을 지원하는 일까지. 그런데도 막상 ‘돌봄에 대해 과연 내가 글을 쓸 수 있을까?’ 생각하며 자신을 믿지 못한 채 올림 ‘돌봄 글쓰기’ 수업에 참여했다.

두 번째 시간, 글쓰기 강사 김화숙 작가의 『내 몸은 내가 접수한다』에 나오는 짧은 에피소드가 수업 자료였는데, 그 글을 읽다 목이 메었다. 암 환자인 엄마가 자신을 위해 자연식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가족들의 밥상까지 챙기는데 입맛이 예민한 큰아이가 엄마에게 한마디를 했고, 그 후 남편이 큰아이 밥을 챙기겠다고 나섰다라는 이야기였다. 내게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다.

맛있게 해 보겠다고 시도한 음식인데, 맛이 이상하다며 “요리할 때 창의력은 삼가라”는 말을 나도 종종 들었다. 코로나에 걸렸을 때 나는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제를 바르며 밥을 챙기는 엄마였다. 외출해도, 야근해도 늘 밥 걱정을 달고 살았다. 직업이 요리사인 남편이 있었지만, 집밥에 대한 고민은 항상 내 몫이었다. 누구

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밥을 차려야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았고, 완벽한 밥상이야말로 사랑의 완성이라 여겼다. 매일 밥에 허덕이며 살았는데 정작 ‘밥만 먹인 엄마’라는 자책이 날 따라다녔다.

나는 10년 가까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고 여성 인권 운동을 해 왔다. 내 일은 분명 내 천직이었다. 하지만 지난봄, 상담소의 활동가 한 분과 회원들 간의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았다. 나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사직을 선택했다. 갈등의 중심에 선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나를 붙잡았다. 하지만 리더십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장이 오도록 내가 떠나는 것이 남은 이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일을 내려놓고 집에 머물면서, 나는 그동안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아이들의 삶을 마주하게 되었다. 아이들의 작은 습관, 무심코 지나쳤던 표정 하나하나가 마음을 파고들었다. ‘일에 매달리느라 돌봄을 소홀히 한 엄마는 아니었을까?’라는 자책이 깊게 스며들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한순간 부질없게 여겨졌고, 그 틈새를 파고든 건 엄마로서의 죄책감이었다. 진퇴양난 속에 갇힌 듯 답답했다. 이게 ‘여성 인권 운동가로 살아온 내가 할 생각이 아닌데’ 하면서도 내 안에 체화된 가부장제는 여전히 나를 그 생각에 묶어 두려 했다.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마치 알기라도 한 듯이 그날 함께 수업을 듣던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였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래,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선 먹이는 것에 최선을 다한 힘을 믿어보자.

밥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밥만 먹인 엄마가 아닌 밥도 잘 먹인 엄마라고 나를 격려해 줄 수 있었다.

밥, 하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작은 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보호자 참관 수업에 갔다가 내가 대표로 상을 받았다. 아이가 ‘최고’라는 글씨를 못 써서 상 이름이 ‘채고 만두상’이었다. 대부분 ‘예쁜 엄마상’을 받았는데, 나는 만두상을 받았다. 아이에게 엄마의 만두는 상을 주고 싶을 만큼 맛있고 좋았던 모양이다.

만두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 지금도 만두를 종종 만들어 먹는다. 그 만두에는 아이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언제나 편이 되어 주려 했던 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만두를 떠올릴 때마다 따뜻한 기억으로 든든한 힘을 얻기를 바란다. ‘채고 만두상’을 받은 그 기억은 돌봄에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나의 자책을 잠시 멈추게 했다.

사실 두 번째 수업 이후로는 ‘내가 돌봄에 관해 쓸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참여를 미루고 글도 쓰지 않았다. 그러다 ‘내 돌봄은 형편없더라도, 돌봄의 전문가인 우리 엄마 이야기를 써 보자’고 생각했다. 그렇게 엄마에 대한 글을 쓰면서 엄마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또 한편을 이어 쓰며 나를 다독일 수 있었다.

이 글쓰기 여행은 나에게 우연이 아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여정 속에서, 글은 나를 비추고 나를 돌보게 했다. 이제 지나간 돌봄의 시간에 대한 후회와 자책은 버리고, 지나간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위안하며 이렇게 말해 본다.

“나 채고 만두상 받은 엄마야!”



나나

나를 찾고 싶어 나에게 선물한 이름 나나.
늘 부족하다고 느껴 고개 숙였던 나.
하지만 글로 보는 나는
충분히 예쁘게 살아왔다는 걸 알게 한다.
이제는 나를 인정한다.



“그래 아빠도 적응해야지 뭐.
아빠가 더 나이가 든다고 해도
나는 조금 힐링한 돌봄을 이어가려 한다.”

내가 너를 돌보듯, 너도 나를 돌본다

나나

사람들은 평가한다. 저 사람은 돌봄을 잘하고, 저 사람은 못 한다고. 나는 늘 못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한순간 마음이 앞서고, 그 무게를 헤아리지 못한 채 시작하곤 했다. 안타깝던 마음이 사라지고 내 의무만 남아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말로 나를 속박했다. 이제는 그 굴레를 벗어나고 싶다.

나는 아이들을 친구 선희와 함께 돌봤다. 혼자 돌을 보는 것보다 둘이 넷을 보는 게 더 할 만했다. 어느 날 선희의 지인인 지영이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겠다고 했다. 나는 아무 망설임 없이 “우리가 볼게” 하고 나섰다. 네 살 아이 셋, 두 살 둘, 돌 지난 아기까지. 여섯 아이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밥을 먹이고 씻기고 놀아주는 일은 둘이 함께였으니 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지영이 전화를 걸어 말했다.

“언니, 남편이랑 영화도 보고 데이트 좀 하고 갈게요. 괜찮죠?”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지난 4년

동안 나에게 허락된 유일한 쉼터는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마신 삼십 분짜리 자판기 커피 한 잔뿐이었다. 내가 원한 건 잠깐의 자유인데, 누군가의 자유를 대신 지켜 주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제야 알았다. 나는 많이 지쳐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 돌봄이 버겁게 다가왔다. 이제는 벗어나겠다고 다짐했지만,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셋째가 태어나면서 돌봄은 다시 시작되었다.

언니와의 기억은 따스하다. 어린 시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늘 언니를 따라 학교에 갔다. 사십 분을 기다려 고작 십 분 마주하는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이 그렇게 좋았다. 결혼 후에는 언니 집 아래층에서 살며 매일 언니 집에서 밥을 얻어먹었다. 그렇게 나를 돌보던 언니가 통영으로 이사하고 조카들이 겨울방학이라 해서 우리 집을 찾았다. 나는 함께 계획을 세우고 숙제를 보살피며 방학을 보냈다. 너무 좋았던지 조카들이 방학마다 우리 집에 왔다. 그렇게 나는 8년 동안 방학마다 다섯 명의 아이와 함께했다. 겉으로 보면 내가 조카들을 돌보았지만 실은 나도 돌봄을 받았다. 쉴 시간을 벌었고, 마음 편하게 한두 시간 저녁 외출도 할 수 있었다. 세 아이를 키우며 버거웠던 내 삶에 조금은 숨통이 트였다. 일 년에 두 달, 언니도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서로를 돌보며 우리는 더 단단해졌다.

우리 아버지는 이혼했다. 전 재산을 날리고 빚 한 점 들지 않는 단칸방만 남았다. 가족 모두가 아버지를 원망했다. 단칸방에서 나이 들어가는 아버지를 보며 나는 다시 선언했다.

“아빠, 내 옆으로 와.”

싫다는 아버지를 5년 동안 설득해 이사하면서 ‘아빠가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다. 나도 돌봄을 알아버렸나? 후일을 걱정하게 됐다. 하지만 나는 그저 내 식대로 해보기로 했다. 청소와 끼니는 아빠 몫으로 두고, 나는 아주 가끔 밑반찬과 빨래만 챙겼다. 때로는 아빠가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안하고 끊었다. 무슨 일 있나? 하며 찾아가면 전화가 먹통이란다. 하지만 함께 있을 때는 너무 잘 되는 전화. 아마도 서운함의 표현이었겠지. 전화기만 두어 번 바꿔주고 변함없이 가끔 찾아갔다.

다음 해 아버지는 길을 잃고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치매 검사받아 보자고 세 번을 말했다. 절대 싫단다.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신호였나 보다 하고 말았다. 몇 달 동안 길을 잃지도, 비밀번호를 까먹지도 않는다.

3년째인 올해는 아버지가 달라졌다. 아버지는 아주 가끔 먹고 싶은 반찬을 말한다. 열갈이에 열무 섞어서 짹짹하게 담가 달라길래 온라인 주문해서 젓갈 조금 넣어 가져갔다. 아버지가 더없이 환하게

웃는다. 고들빼기 좋아하던 아버가 생각나 반찬가게에서 꽤 많이 사서 가져가니 아버가 정리한다고 가서 쉬란다. 그래 아버도 적 응해야지 뭐. 아버가 더 나이가 든다고 해도 나는 조금은 혈령한 돌봄을 이어가려 한다.

돌아보면, 돌봄이 부재했다고 느꼈던 순간조차도 나를 돌보는 손 길이가 있었다. 아버가 남겨놓은 단칸방에서 나는 고등학생 시절 3년을 지냈다. 빛 한 점 들지 않는 곳에, 오직 나 혼자였다. 외로움에 잠겨 하루를 견뎌내던 나를 붙잡아준 건 친구들이었다. 가방을 들어주고, 집까지 함께 걷고, 심지어 도시락을 싸다 주던 친구들. 고마움을 느낄 여유가 없어 그들의 따스함을 느끼지 못했다. 이제야 목이 멎 만큼 알겠다. 그 돌봄이 나를 지탱해 주는 사랑이었음을.

나는 언제나 누군가의 사랑으로 살았다. 나는 ‘안 하느니만 못한 돌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툴지만, 사랑해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는데 왜 네가 아버를 돌봐?”

라는 물음에도 이제는 대답할 수 있다.

“내가 아버를 돌보듯, 아버도 나를 돌보고 있어.”



레몬선희

평생교육과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고,
보드게임 강사 활동을 한다.
일상에서 페미니즘을 실천하기 위해,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



“우린 서로 다른 감상에 젖어있기도,
서로를 껴안아 위로하기도 했을 것이다.”

수다 씨앗이 돌봄으로 핀다

레몬선희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홍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친구들을 생각하면 뜬금없이 『지란지교를 꿈꾸며』의 문장들이 떠오른다. 전화하지 않고 찾아가도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그 시절의 정서가 담긴 이 글은, 절절히 소중한 문구들이라 우리를 오래 버티게 하는 힘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진실하고 수수한 멋쟁이이면서, 밀지며 사는 아량이 있고, 나다움을 잃지 않는 배짱을 지닌 친구들의 현실 대화는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으면서 배꼽이 아프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한다. 얼마 전 우리는 강진에서 뭉쳤다.

“달기냐, 염병하네. 오매 아간그.”

맥주를 엮질러 사과하는 나에게 썩이 한마디 더 한다.

“나 못 목게 할라고 기여치 엮어브렀다, 엮어브렀어”

“너는 엠마니 찢어야 다 먹을래.”

오징어와 크래미를 계속 찢고 있는 나에게 이번엔 쭈가 말하며 잔을 든다. 시종일관 웃음을 머금고 있던 친구들이 한 모금씩 한다.

갑자기 다이어트 얘기가 나오고 “걷기 지원금 받고 있지? 지원금 다 되면 많이 안 줘, 빨리들 받아.” 보리의 챙기는 말에, “으뜨케 한디야.” 쭈가 묻는다.

“아따매 내가 보내준께 링크.” 시간차 대꾸는 사투리로 나가는 보리의 답, 동선이 안 된다는 쪽에게 보태듯 “해야한디 움직이기가 싫어 미쳐브러. 쿠션 읍는 신발 신고 동생 므 산디 쫓아 댕기다가 걸음을 못 걸어가꼬, 병원 가서 체외 충격파 받았당께.”

요새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걸 느끼는 쭈가 말한다.

이번엔 식단 얘기로 이어지는데 고구마가 등장한다.

“연이가 토올 고구마 첨에 맛없다가 10일 숙성하니까 꿀 똑똑 떨어진다고 했잖아.”

얼마 전 대화를 떠올린 나의 말에,

“응, 고구마는 숙성해야제, 베니지민 고구마 맛나드라.” 하고 쪽이가 있고,

“친구가 황금호박고구마 황토에서 키운디 10월에 캔다드라. 므 고구마가 종자도 가지가지 많튼만. 나는 어릴 때는 밤고구마가 맛나드니 인자는 나이 묵었는가 말랑한 것이 좋드라. 엄마가 맨

날 고구마 쪼 논디, 내가 손도 안 댔드만 ‘고구마 묵고 누가 죽었는가 손도 안 댈다.’ 함시롱 트라하드라.”

하고 강진에 사는 쭈가 얘기하니, 작년에 배추 주문하고 고구마를 받았던 보리가 “고구마 부쳐주라.” 한다. 쭈는 “공짜가 있냐 세상에, 얼굴 비치고 가져가야제.”하고 답한다. 얼굴을 비치면 공짜가 되는 고구마다. 덧대고, 받아치고, 헤매는 듯한 대화가 끊임 없이 이어진다.

갑자기 학창 시절의 음악을 틀고 따라 부르기 시작한다. 우리 모두 같은 반이었던 고2 때, 신승훈을 좋아했던 보리가 “승후니는 나를 만났어야 하는디.”라는 말을 시작으로, 배구를 좋아하던 쭈이 덕에 시합을 마친 선수들의 호텔 숙소에 찾아갔던 일 등이 추억 소환되고, 끝날 줄 모르는 이야기는 새벽 3시에야 멈췄다.

25찬 아침 밥상을 받기 위해 잠을 청했던 푸소에서 대화 내용이다. 푸소는 농촌 체험이 더해진 홈스테이로, 수학여행으로도 각광받고 있는 민박 시스템이다. 작년부터 1인 10만 원까지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강진 반값 여행 덕분에 먹고, 싸고, 자고 신생아 놀이를 하겠다며 2박 3일을 즐겼다.

이번 여행의 핵심은 하맥축제였다. 광주와 강진에 사는 썩이와 쭈가 첫째부터 참여하다 올해 3회 차엔 정기모임으로 함께하게

된 것이다. 하맥축제는 네덜란드의 홉과 강진의 쌀귀리를 결합한 강진 고유 맥주인 하멜촌 맥주와 강진에 거주했던 핸드릭 하멜을 기념하며, 공연과 맥주를 즐기자는 취지로 시작된 축제이다. 올해 라인업은 이승환, 체리필터, 다이내믹듀오, 싸이버거, 권은비 등이었다.

낮에는 이곳저곳을 관광했는데, 첫날 낮에 갔던 백련사가 인상 깊게 남는다. 조상의 영혼을 위로하고 풍년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내는 의례인 백중제를 앞두고, 무연고사와 사고사 등 갑작스레 떠난 넋을 위로하는 불공과 영가천도 염불이 한창 이어지고 있었다. 마치 랩 같은 염불을 30여 분간이나 친구들과 감상하고 앉아 있었다.

출산하고 돌도 안 된 아이와 이별한 썩과, 임신 5개월 때 가족과 지인들에게 성별을 알리고 축하받은 뒤, 출산처럼 이별해야 했던 내가 아기를 보내며 치렀던 의식을 이야기 나누는데 가슴이 먹먹해졌다.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일부 친구들과 달리 나에게는 이 염불 소리가 기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강진만이 내려다보이는 사찰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우린 서로 다른 감상에 젖어있기도, 서로를 껴안아 위로하기도 했을 것이다.

어제저녁 메뉴로 특방이 들썩였다. 포항에선 버터 새우구이, 광주 친구는 휴가 나온 아들과 먹는 회, 강진에선 매운 돼지갈비, 용인에선 선물 받은 꽃게 파티, 우리 집은 마라탕. 오늘은 또 제철 맞은 전어회를 먹는다고 쭈가 사진을 올렸고 우리는 모두 군침을 흘렸다.

치이고 다친 마음을 내비치며 뜬금없이 울먹거리는 나에게, 나쁜 사람이라 대신 욕해 주고, 무조건 내 편 되어 주는 썩이 딱 2km 거리에 있다. 물론 고등학교 친구만 그런 것은 아니다. 원이, 진이, 순이, 윤이, 영이... 은근하며 깊고 신선하며 성숙한, 친구 같은 동생들도 있다.

나를 돌보고 있는 것들, 붙잡아 주는 것들, 나를 ‘나’일 수 있게 하는 것 중에 으뜸은 역시 친구들이다. 건설 현장과 부동산, 세무사 사무실과 경리, 횃집 사장님과 프리랜서 강사 등 다양한 직업으로 포항, 강진, 광주, 수도권의 이곳저곳에 포진해 있다. 340km를 오가는 친구들의 수다는 맘에 안 들면 ‘아따’로, 혹은 ‘염병하네’로 표현되지만 분명 슬리퍼를 끌고 갈 수 있는 마음의 거리에서, 어제 만난 듯 허물없는 대화로 이어지고 있다.

강진 반값 여행, 하맥축제는 소수로라도 이어질 듯한 분위기이다. 그리고 끊이지 않을 우리의 수다는 눈빛이 흐리고 시력이 약

해질 때까지 서로를 살피주는 불빛이 되어 주리라. 그리고 맑고
높은 향기로 다시 만나리라.



리사 효정

사람마다 삶의 모양은 다르다.
‘내가 살아내고, 겪어온 삶은 이렇다’라고 말하고 싶다.
몹을 나누지 않을 그 누구도 ‘너는 이렇게 살아라’라며
내 삶을 휘젓지 못하게 하면서 42년을 살았고,
앞으로도 난 내가 정한 방식대로
내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는 가부장적 위계질서에서 남성의 위치에
편이나 만족해하는 듯 보였다. 결혼 생활에서 겪은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진절머리 나게 싫어서
박차고 나온 나에게 이제 그를 만나
더 지독한 게임 라운드 시즌2라도 시작하라는 건지.”

새벽부터

리사 효정

새벽부터 잠들기 전까지

부엌에 들어가 허드렛일을 마냥 반복하는
시어머니의 등을 보며 나는 의문이 들었다.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 저녁까지
설거지, 빨래 청소 밥솥 뚜껑까지 닦는 시어머니께
시아버지는 퇴근하면 밥 달라 물 달라 디저트 달라 했다.

군대에서 나라 지키는 일을 하고부터
거만하고 전제적 서열주의 짓거리가
대접받는 남편의 이름으로
시어머니께 자행되고 있었다.
명령내리는 남자, 순종하는 여자라고
군대에서 가르쳐 준 대로
아내를 야금야금 갉아먹으면서
시아버지는 나라의 성실한 모범 군인이었다.

제트기 조종을 하면서
저들의 찬사와 어깨와 가슴에 늘어가는 별과 표창이
고양이 꼬리에 매단 방울 소리임을
나라를 가족처럼 지킨다는 사명감이
허울뿐인 솜사탕임을 똑똑히 깨달았다.

편리한 이론, 절대적 권위와 전통으로 포장된
몸서리쳐지는 애국 수호처럼
그는 아내를 착취하며
가정의 독재자가 되었다.

소리 없는 침묵이 깊어질수록 목과 속에서
가족은 저들의 고통과 인내의 찌꺼기를 배설해 낸다.
가족은 무조건 헌신하는 기계가 아니고
아내는 남편의 몸종이 아니고
평등하게 사랑하는 친구이며 부부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관계는 신뢰와 존중과
민주주의에 바탕을 뒀야 한다는 것을

사이좋던 아들 내외마저 본인의 시대착오적인 사상으로
희생시키고도
시아버지는 오늘도

자신의 인생 성취를 뿌듯해하며, 자전거를 타러 나갔다.

(박노해의 '이불을 꿰매면서'로 쓴 모방시)

난 너를 좋아한 게 아니야

리사호정

“난 너를 좋아한 게 아니야. 싫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뭐가 이제 시작이야? 계속 이러면 나도 그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벌써 몇 번째 말하는지 모르겠다. 싫다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말을 배배 꼬아 하는 성격도 아니다.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나로서는 별 수 없다.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두 달 가까이 포기하지 않고 불나방처럼 덤벼드는 이 남자를 성격 같아선 먼저 나게 두드려 패 주고 싶다. 정말로 이게 내 속마음이다.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남자들의 구애를 받으며 자라온 건 누군가 에겐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겠으나 난 너무 싫었다. 연애보다 자기 계발이 더 좋았고, 공부하고 돈 버느라 현실적으로 연애할 시간도 별로 없었다. 부유한 집안의 능력 있는 남자들은 내가 결혼해서 남편을 내조하는 현모양처가 되길 바랐다.

하지만 난 내 손으로 성취해 내고 싶었고, 스무 살 후반부터는 아예 연애도 하지 말아야겠다 결심했다. 내가 꿈꾸는 목표를 이루

는 데 연애는 방해만 된다고 느꼈다. 내 나이 또래 여자와 난 많은 부분 달랐던 거 같다.

내가 좋다고 끈질기게 연락하고 결혼하려고 온갖 수작을 걸던 그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나한테 차이면 그렇게 울고들 했다지. 그럴 때면 어김없이 나만 나쁜 년. 좋아해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자기들 마음대로 좋아하고 상처받고 그러는지들. 다른 여자와 다르게 그 좋은 스펙, 능력, 부유한 집안에도 꿈쩍하지 않는 나를 그들은 궁금해했다. 내 머릿속엔 오로지 목표와 성취밖에 없었다.

그래도 매달리다 적당히 울면서 포기하는 남자는 순한 편에 속한다. 집착이 강한 이들은 순순히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종종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이래저래 남자로 겪은 에피소드가 많아져 남자를 잘 알게 된 것 같다.

문제는 난 그들이 귀찮다는 사실. 맹목적이기까지 하고, 사랑을 경쟁하듯 하며, 대화는 잘 안되는 데다가, 남자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태도. 내가 그들을 떠받들어 주길 바라지만, 난 그럴 수 있는 종자가 아니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남편은 일찌감치 이런 현실을 직시했다.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나를 내버려 두었다.

이런 나에게 10번 찍으면 언젠가 넘어오겠지, 라는 태도로 덤비는 남자가 소름 끼치게 싫어지는 건 당연지사 아닌가? 싫다고 말했고, 대화해 보고 너랑 나는 아닌 거 같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했으면 충분했다는 게 내 생각이다. 하지만 직감이 말하길,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더니, 역시나 그랬다. 본인은 아니라면서도 집착 같은 연락을 자꾸 했다.

계속 만나자고 해서 너와 잘 맞는 여자를 찾으라고 했다. 다시 연락이 와서 남자 친구가 생겼다고 거짓말도 했다. 화가 나 내 번호를 지웠다가 다시 여기저기 물어봐서 알아낸 그. 본인은 우리가 이제 막 시작된 관계이며, 밀당 중이라고 믿었다고 했다.

20살 초반, 막말을 퍼부었다가 남자가 분노해서 일어난 데이트 폭력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 뒤로 싫어도 달래면서 거절해 버렸는데, 이 남자는 완전 막무가내다. 한번 마음먹으면 그냥 직진인가? 그렇다고 한들, 심청이도 아니고 내 삶, 의지, 정체성, 주체성 다 내던지고 남자의 취향과 선택만 존중해서 이 한 몸 바쳐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안다고. 내가 너를 언제 봤다고. 딱 세 번 그의 요청으로 만난 정도다. 다른 용건인 양 술 먹자, 차 마시자 해서 나갔더니, 주변에서 자리를 피해주는 분위기였다. 뭐가 나

만 모르는 맞선 자리에 와 있는 기분이 들었다. 다들 그를 응원하는 거지 날 생각해 준 건 아니었다.

그때 내 상황이 연애 같은 걸 할 형편은 아니었다. 인생에 바닥을 치고, 감정적으로 지치고 약해져 있을 때였다. 그럴 때는 누구를 만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의 지인들은 그와 나의 만남을 응원하는 거 같았다.

반면, 내 지인들은 그 남자가 날 만만하고 우습게 봤다며 욕했다. 날 오래 본 것도 아니고, 특히나 내 지금 상황을 알고 있다면 더 더욱 쉽게 만나자, 좋다, 하는 건 아주 경솔한 행동이라고 욕했다. 날 만만하게 보고 있음은 그와 만날 때마다 느끼고 있었지만, 역시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았다.

더더군다나 페미니즘 사고의 뿌리가 단단한 남자여야 한다는 내 까다로운 이상형 조건에도 그는 전혀 부합하지 않았다. 그는 가부장적 위계질서에서 남성의 위치에 딱 만족해하는 듯 보였다. 페미니즘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면전에서 다른 운동들처럼 페미니즘도 하나의 운동일 뿐이고, 본인에게 중요하진 않다며 내 말에 제동을 걸었다.

페미니즘은 개념이고 그 안에 공감과 연대, 사랑, 인류애 등이 담

겨 있어 모든 운동, 사상으로 뿌리내려진 거라는 내 말을 그는 전적으로 반박했다. 그의 의견이 그렇다면 존중이야 하겠지만, 그런 자세로 나를 만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생각에 기가 찼다. 순간 타인이 지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의 전 여친들처럼 그에게 순종하고 결국은 마지못해 그의 취향을 맞춰줄 거라 착각했나 보다. 피해만 안 끼친다면 내 좋을 대로 살아도 좋은 게 인생인데도, 그가 한 말이 뇌리에서 사라질 않는다. 여성의 외모도 보고 능력도 좋고, 성격마저 착해야 한다. 자기를 내조하고 보필하고 아, 돈도 벌라고 했으니 경제적 책임까지 다하는 노예 등극이시겠다.

내가 왜 이 좋은 세상에서 모든 걸 누리며 살기도 모자란 시간을 정체 모를 속박에 희생시켜야 하나? 그는 그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스라이팅 하겠지만, 결국은 날 통제하고 눈가림하는 수단일 뿐이다.

본인이 내가 좋다며 술 마시자, 밥 먹자 했으면서, 정작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들이었다고 말하고 다녔다 한다. 이 정도면 본인 위주로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 맞다. 자기는 페미니즘 따윈 안중에 없다는 듯, 맥플러리 아이스크림 컵을 와그작 뭉개 버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그 남자가 오만하고 무식해

보였다. 날 붙잡고 싶은 상황에서도 오로지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라는 여자나, 나와 연결된 관계는 아랑곳하지 않는 자세도 기가 차지만, 결혼 생활에서 겪은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진절머리나게 싫어서 박차고 나온 나에게 이제 그를 만나 더 지독한 게임 2라운드라도 시작하라는 건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마흔이 넘도록 결혼도 못 한 노총각인 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여자가 시집가서 10년 힘들게 살았고 고생 많이 했다는 걸 알면 그다음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야 하는 거 아닐까? 아직 남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여태 노총각인 남자의 삶이 내 삶보다 그들 눈에 더 안타까워 보였나 보다. 그런 남성과 인연을 맺으며 희생당해야 하는 여성은 관심 밖의 일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 남자 괴롭히지 말라는 세상. 먼저 꼬리치고는 순진한 남자의 마음을 왜 들었다 났다 하느냐, 돌맹이를 던지는 이상한 세상. 남자니까 떠받들리고 대우받는 게 당연하고, 여자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몸만 옮겨 가며 남자를 시중들어야 하는 운명이라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는 술 취한 나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남자가 벌어 주는 돈 당연하게 받아 쓰지 말고, 남자가

일 못하면 대신 일하는 주체적 여성이 되자고 쓴 에세이가 인상 깊었다. 그 글을 자기 편한 내용만 쏙 빼서 삶에 적용할 줄은 몰랐다. 남녀 성별을 떠나 모두가 주체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쓴 글이었는데 말이다.

남성의 경제력을 중요시하는 여자를 혐오한다는 느낌을 받긴 했다. 하지만, 내 앞에서도 간간이 보이던 여성을 향한 그의 분노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은 아니겠다. 주체적 여성이 되자는 글이 남성에게 닿으면, 남성 중심적 사고와 섞여서 여성을 더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중요한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있다. 본인은 내가 선택할 정도의 남자는 맞나? 본인이 날 ‘짚’하면 나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받들어 따라야 하는 건가? 본인의 취향대로 예쁘고, 능력 있고, 마음씨까지 착한 여성을 만나기에는 부족한 자신에 대해 고찰은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사과하고 싶다면 만나자는 그의 문자를 대차게 거절했다. 사과하는 것이 도리 같아서 꼭 만나고 싶단다. 만남에 응하면 본인에게 관심이 있는 것으로 착각할 것 같았다. 평생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러자, 사과를 꼭 해야 한다고 비장하게 말하던 그는, 돌연 내가 너한테 뭐 잘못된 게 있냐는 듯한 태도로 대화를 마무리했다.



마늘

배우고 실천할 페미니즘을 싹 틔워
그림책과 벗하며
도나 해러웨이의 '친척 만들기'를 따라 하며
초록에 물들어 가려 해.~♡♡



“딸이라, 말 못 하는 식물이라, 늘 일어나는 일이라,
술에 취한 거라, 인내가 습성으로 베어.
깡도 오기도 부리지 못했어.”

<다섯 번째 방> 전성에게

마늘

몰랐니? 그게 폭력이야. 높은 수압으로 식물에 물을 분사하면 어린 식물이나 잎이 얇은 채소 잎사귀는 물살에 뜰겨 나가. 노모도 효정도 딸도 말리는데, 너는 아랑곳하지 않고 호스를 천 엄지와 검지의 압력을 풀지 않았어. 텃밭 식물들은 네가 움켜쥔 호스의 거센 물줄기로 큰 해를 입었지. 왜 그랬어?

마당 한 칸, 아름답리 큰 대추나무와 무화과나무 잎이 하얀 벽돌 집 현관과 창문을 가린다. 2층과 3층으로 연결되는 바깥 시멘트 계단이 나 있고. 2층 베란다에는 장독대와 푸룻푸룻한 텃밭이 자리하고 있다. 회색 시멘트 바닥 위, 벽돌로 구획을 나눠 흙을 얹어 만든 아담한 텃밭에는 상추 대파 깻잎 고추가 자라고 오이 줄기 덩굴손은 한쪽 벽을 차지하여 지지대를 감고 올라가 3층 옥상까지 뻗어 있다.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이 널찍이 설치되어 있다. 앞쪽으로 넘실대는 푸른 식물을 담기에 조금 모자란 커다란 붉은 통 화분 서너 개가 놓여 있고 구석 귀퉁이 작은 옥상 텃밭도 보인다.

카메라는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아래, <다섯 번째 방> 가족들이 살

아가는 초록 띠 드리운 하얀 양옥집을 한동안 담는다. 마당의 나무들과 함께 아버지가 자랐고, 해마다 심고 걷어내는 열매 맺는 채소와 일년초 다년초 초록 식물과 함께 이 집에서 찬영이도 태어나고 자랐음을.

아버지 전성이 한때 잘 나가는 소파 집 사장이었으나 지금은 가족의 짐이고 술을 먹고 짐승 같은 눈빛으로 변한다는 진술이 있다. 팬티 바람으로 마당을 활보하는 일상이 관객을 놀라게 하지만, 잘 웃는 인상과 찬영과 장난치고 친구처럼 주고받는 말에는 다정함이 배어 있다.

아내 효정은 상담실을 운영하고 폭력 예방 강의를 한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설거지해야 하는 사람, 청소해야 하는 사람이 된다.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대신’해 놓으면 식구들 먹은 밥그릇은 닦지 않아도 됨에 감사해야 하는 며느리다. 이 집에서 아이 낳고 육아하며 자기 일을 찾아 살아왔지만, 늘 없혀사는 기분이다. 남편 전성을 화나지 않게 하려 받아주고 이해하려 노력했음에도 전성이 장례식장에서 자기감정을 분출하며 욕하는 모습에 효정은 지친다.

2층 베란다 텃밭에 깻잎, 고추가 탐스럽다. 노모는 소쿠리에 고추 몇 개를 따 담고, 깻잎을 하나씩 끊어내어 차곡차곡 포개 놓는다.

무성한 오이 줄기에서 길게 자란 먹음직한 오이 하나를 잡고 한 쪽으로 천천히 돌돌돌 돌려 수확한다. 노모는 텃밭이 있어 살림에 보탬이 되고 싶고 거두는 소일을 할 수 있어 다른 어떤 집보다 이 집을 좋아한다.

며느리 효정은 2층에 상담소를 열며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되었다. 효정은 상담실 문을 열고 채소 가득한 텃밭 한쪽에 좋아하는 로즈메리 라벤더 안개꽃을 심었다. 네모난 큰 화분 가득 하얀 안개꽃이 피었다.

3층 옥상에서 전성이 2층 텃밭에 호스로 물을 준다. 물줄기가 세차다. 옆에 있던 노모가 식물이 쓰러질까 걱정스러워 아래로 내려가서 물을 주라고 한다. 텃밭과 연결된 상담실 현관 앞에는 흔들의자에 앉은 효정이 음악을 들으며 책을 보고 있다. 딸 찬영도 화단에 있다가 쏟아붓는 물소리에 놀라 텃밭을 살피며 말한다.

“아빠 애들 다 쓰러지고 있는데!”

효정도 만류한다.

“찬영이 아빠 그만해 이레가 안돼.”

텃밭으로 내려온 노모가 손을 흔들며 그만 주라고 외쳐도 세찬 물줄기는 꺾이지 않는다.

야들야들한 상추 이파리가 뜯겨 나간다. 조금만 더 자라면 노모

손에 따져서 밥상 위에 차려졌을 텐데. 흙이 파헤쳐져 어린 채소는 뿌리까지 상했다. 줄기가 야무져야 새잎이 돋는데, 퍼붓는 물대포에 겹질이 굼혔다. 하늘로 곧게 서 있던 대가 내리꽂는 물줄기에 좌우로 휘청거리다 간신히 대를 바로 세운다. 솔솔 부는 솔바람과 내리쬐는 강렬한 별을 품어 고추꽃을 피웠다. 몇 날만 지나면 어린 고추가 열릴 텐데, 집요한 물줄기에 꽃잎이 떨어졌다. 채소 이파리들이 파르르 떨다 몇 장은 찢어지고 얼마는 잘 견뎠다. 텃밭 흙은 보슬보슬해서 곤충 벌레가 살기에 적당하다. 햇살 좋은 날 전성의 물대포에 흙이 패고 땅속 벌레들이 쓸려 내려갔다.

호스를 움켜쥔 손을 왜 놓지 않았어? 그럴 기분이 아니라서? 가족들이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분풀이 대상이 필요해서? 비인간의 고통은 보이지 않지? 식물은 피를 흘리지 않으니까. 텃밭 식물들은 집요하게 내리치는 억수 같은 힘을 막아내고 버티고 견뎠어.

기자가 말한다.

“경찰 물대포가 시위대 중 한 명을 정조준합니다. 세찬 물줄기에 맞아 순식간에 나가떨어집니다. 물대포는 집요하게 목표물을 쫓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구조하려 하지만, 물대포는 멈추지 않습니다. 상반신의 직사 살수를 금지하고 부상자가 생기면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경찰 지침을 위반한 겁니다. 전남 보성에서 밀 농

사를 짓는 69살 백남기 씨는 쌀수매가 인상을 위한 민중총궐기 시위를 하다가 경찰의 직사 물줄기에 맞아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 출처 <죽음의 물대포. 뉴스타파 2016.6.9.>

자신을 악당으로 몰아가는 카메라 앞에서 네가 말했다.

“여기서도 내가 악역이네.”

스스럼없이 내뱉은 말이 기억에 남아. 효정은 폭력예방강사를 하면서 폭력피해자가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집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고 술에 취해서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였지. 효정이 대화하기 어려워 문을 잠그니 너는 쿵쿵쿵 문이 부서지도록 두드렸지. 효정의 강의 주제인 ‘폭력적 인간은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라는 질문에 가족들의 만류에도 텃밭에 물대포를 쏟아붓는 장면이 스치며 언젠가 뉴스에서 본 백남기 씨가 떠올랐어. 찬영이가 그랬지.

“아빠가 물건 집어 던질 때 무슨 생각 드는지 아냐? 아, 저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나는 그 두려움에 계속 떨어. 그게 화가 났어. 아파한테는 순간이지. 나한테 평생이라고.”

찬영의 말이 텃밭 피해 식물들의 목소리 같았어. 판타지에서라면 상추, 고추 열매와 줄기들이 열매를 맺은 꽃의 상해진단서를 끊어 고소했겠지. 딸이라, 말하지 못하는 식물이라, 늘 일어나는 일이라, 술에 취한 거라, 죽을 만큼이 아니라, 인내가 습성으로 베

어. 강도 오기도 부리지 못했어. 어쩌면 짐승 같은 눈빛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일지도.

전성, 당신은 식물에 물을 주는 과정에서 강한 수압으로 물을 직사해 식물의 잎과 줄기 부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열매를 맺은 꽃을 떨어뜨려 결실을 보지 못하게 했으며, 땅속 곤충 터전을 파헤쳐 벌벌이 흩어지게 했다. 이에 토양을 회복하고 생태계 생장을 돕는 텃밭 지렁이와 한 달살이로 자신이 식물에 미친 해악을 성찰할 것을 선고한다. 황당해?

외부의 작은 변화에도 쉽게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식물의 취약성은 상담실 문을 쿵쿵 두드리는 폭력에 떨고 공포와 두려움에 노출된 긴장 상태와 닮았어. 비인간이지만 ‘식물에게’ 좋은 사람이면 좋겠어. 인간종이 동의 없이 다른 종에게 가하는 폭력을 알아차리며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 보는 식물의 숨통을 살피며 땅과 연결되고 다른 종과 관계 맺으며 친척을 만들면 좋겠어.

땅에 뿌리내려 성장하고, 먹는 이와 밥상 건강에 관계 맺는 마늘이.



박단비

인정을 위한 행동이 익숙하며
재주가 많아서 뭐든 잘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살기 위해 자기돌봄을 시작했고
내가 좋아하는 걸 찾고 있습니다.



“남미새 페미니스트 단비는 오늘도 살아남았다.
끝까지 살아서 남미새 페미니스트는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리라”

나는 못해야 한다

박단비

주식을 시작했다. 남편보다 많이 벌어서 평평거리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깎여 나간 원금을 보니 내 마음도 같이 가라앉았다. 심란한 마음에 어떤 책을 읽었다. 책 안에는 맞벌이 화이트칼라 여성들이 시간을 압축해 가족을 기획한 사례들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살면서도 힘들다는 생각에 마음을 소모하지 않는 듯했다. 그중 한 사람은 자기 연봉이 1억이고, 배우자는 애널리스트이며 연봉이 2.5억, 거의 24시간 일한다고 했다. 같은 세상 속에서 저들은 승전고를 울리며 진격하는데, 난 무엇과 싸우다 너절해진 패잔병이 돼 있는지 모르겠다는 기분이 들었다. 마음속에서 질문이 보글보글 올라왔다.

나도 일하는데 버는 돈이 왜 이렇게 적을까?

틈만 나면 누워서 하염없이 시간을 뭉개고, 휴대폰 만지는 것 말고는 뭐든 할 힘이 안 나는 이유는 뭘까?

내 힘은 어디서부터 없는 걸까? 근본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인가?

난 애도 키우고 글도 쓰고 공부도 해야 하고 할 일들이 명확한데 왜 지금 여기서 누워 다른 짓을 하고 있을까? 애들도 이제 커서 덜 싸우고, 주말에는 남편이 애들을 전적으로 돌보는데?

너무 익숙한 우울의 파도 속에서 질문을 반복하다가 실마리를 잡아냈다. ‘대체 뭐랑 힘들게 싸우면서 이렇게 시간을 쓰고 마음이 너덜거리는 건가.’ 거기 도달하자 그간 내가 싸워 온 감정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다.

난 자신을 정말 많이 검열한다. 내 마음속에는 엄마가 있다. 현실의 엄마를 복사해 둔 것 같은 사람이다. 마음속 엄마는 혹시 내가 실수할까 봐, 이를 대비하기 위해 벌어지는 일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눈 크게 뜨고 지켜본다. 잘못된 점이 보이면 하나하나 지적하며 바로 고쳐 준다. 내가 무엇을 하든 지적이 따라붙는다. 고쳐도 또 다른 지적이 따라온다. 엄마가 바라는 것의 끝은 없다. 그 욕심에 대응하다 지쳐서 나는 이내 힘이 다해 버린다. 현실 엄마의 검열은 순간 둘러대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마음속 엄마의 눈은 절대 피할 수가 없다. 작은 생각까지도 집착하고 통제하려 한다. 표현해도 되는 말인지 검토한 뒤 입 밖으로 내보내게 한다.

결국 내겐 말없이 부끄러워하고 방글방글 웃는 것만 허락된다.

이렇게 마음속에 결재선이 하나 더 있으니 쉬 지치고 감정 소모가 많다. 말뿐 아니라 행동이나 외모 검열도 상당해서, 내가 요즘 부쩍 외모를 꾸미지 않고 할 일을 외면하는 건 검열에 대한 반항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짐작해 본다. 그런데 이건 자기파괴적인 방법이라 상황은 개선되지 않는다.

또한 나는 내가 어떤 일을 잘 못할 거라고 믿는다. 주식으로 원금이 줄어들었을 때 마음 한구석에서 ‘역시나 난 못 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했다. 어릴 적부터 칭찬은 오빠 몫이었다. 난 당연히 못하는 아이였다. 엄마에게 이 말을 하면 극구 부정하며 평등하게 키웠다고 일장 연설을 하지만, 딱히 칭찬받은 기억이 없다.

‘난 잘하는 게 없는, 못난 아이, 잘하면 안 되는 아이’였다. 작은 이모는 “저 가시나가 재연이 잡는다”, “재연이 불쌍해서 우짜노”, “재연이 맨날 비쩍 말라가 불쌍해서”라는 말을 얼굴 볼 때마다 했다. 그걸 부정하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비교하는 말은 절대 안 했다고 자부하지만 “재연이는 칠삭둥이라서 조금만 아파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너는 아파도 걱정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했고, 우리 집 냉동고에는 오빠만 먹는 용이라는 한약이 늘 있었다.

엄마는 성적을 많이 중시했다. 내가 큰 충격을 받은 성적표 사건

이 있다. ‘평생 성적이 된다’는 소문의 중학교 첫 성적표를 받았고, 부모님 서명을 받아 가야 했다. 평소에도 “재연이는 스펀지처럼 글이 쑥쑥 들어갔다”, “단비는 당신 핏줄이네!”, “난 옛날에 방에 들어가서 딱 보면 다 외워졌다” 소리를 듣고 자란 나는, 너무 긴장되어 제출 기한 마지막까지 망설이다가 제출일 아침 밥 먹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에 있는 엄마에게 성적표를 건넸다. 엄마는 성적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그날,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다. 식탁 너머에서 엄마는 무릎을 꿇혀 바닥에 앉아 얼굴을 가리고 울었고, 아빠는 “너 성적 보고 우는 거지?” 같은 말을 했다. 오빠는 쭈그리고 있었다. 그날 나는 ‘내가 멍청하구나’라고 생각했고, 공부를 냈다.

그 뒤로, 이를테면 미술을 잘하다가도 ‘인체학공부’처럼 ‘공부’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속이 확 부담스러워져 그만두게 된다.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나는 결혼 전까지 의무교육 전 학년의 성적표와 꼬리표를 보관해 두었다. 어른이 되어 객관적 눈을 가졌을 때 이 점수들이 정말 낮은 점수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13년을 차곡차곡 보관했다. 아직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그날의 성적표는 80점이었다.

친척 사이에서 내 위치는 더욱 환상적이었다. 사촌동생에게 국·영·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더니, 다음 날 사촌동생을 통해 “지

공부나 잘하라 그래라” 하는 이모의 답신을 받았다. 이모들은 나를 ‘목소리만 큰 애’, ‘못생긴 애’, ‘고구마같이 생긴 애’, ‘똥 해서 어디에 쓸까 싶은 애’, ‘유별난 애’, ‘한글도 못 외우는 애’, ‘개파슈에 팔 애’, ‘커서 뭐가 될까 싶은 애’라든가, 갖가지 어구로 표현하며 집안의 대표적인 ‘똥’ 하고 어병해서 앞날이 걱정되는 애로 만 들었다. 그런 말을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내 얼굴에 대고 했다.

지금도 알 수 없는 점은, 두 이모 모두 딸이 있어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애가 셋이었는데 왜 나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내버려 두었을까 하는 것이다. 막상 이모들은 자기 딸이 모진 소리를 들으면 바로 “아유, 우리 딸은 안 그래요” 하던 모습이 내 눈에 명확히 남아 있다.

성인이 되어도 마찬가지였다. 집안 대소사의 결정권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성인이 되면 내 의견도 반영될 줄 알았는데, 내가 맞는 말을 해도 “똑바로 알아보라”고 반려하고 재연이의 확인을 받아야 했다. 내 의견을 말해 봐야 안 들어가니 그냥 말을 말고 분위기만 맞추게 되었고, 내 의견을 피력해야 할 때는 떨리는 마음으로 짜증 내며 털어냈다.

결론적으로 내가 힘든 이유는 나 때문이었다. 가만히 있어도 옛날의 경험들과 전쟁 중인 상황이라 남은 힘이 많지 않았던 것이

다. 어쨌든 이 상황을 벗어나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 버둥거리려 보지만, 그저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속이 꼬이고 목이 막혔다. 어쨌든 살고 싶어서 도와 달라 하고 싶은데, 그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사회 밑바닥에선 혐오의 말들이 들려오니 비난이 두려워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버텼다.

그런 중에 돌봄 글쓰기를 만났다. “글을 쓰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무조건 가능하다, 울림에서 도와드리겠다”라는 말이, 나조차 믿지 못하는 나를 응원해 주는 것 같았다. 이 안전한 장소라면 내가 나를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지어 나이를 먹을수록 ‘참는 방법’으로는 인생 진행의 한계에 자꾸 부딪혔다. 여기서 글로 내 마음을 내어 보이고 목소리를 내며, 궁극적으로 나를 돌보는 방법까지 얻어 가겠다는 반신반의 기대를 안고 시작했다. 여전히 나를 믿지 못하지만, 제발 이번에는 내가 나를 이기길 바라며 한 편의 글부터 완성한다.

오늘은 쇠소리 같은 첫 목소리를 내 보았다.

나는 남미새다

박단비

어제 남편이랑 싸웠다. 또 싸웠다. 이번에도 큰일 아닌 일로 싸웠다. 주말 일정을 논의하려다 불씨처럼 툭 튄 말의 찌꺼기에 기분이 확 나빠져서 온 마음을 다 불태우며 싸워버렸다. 난 싸움을 너무 싫어해서 싸우고 나면 머릿속에서 싸운 내용이 바로 휘발돼 버린다. 남은 기억을 되새기며 속상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잊어버린다. 그런데도 한마디씩 기억에 남은 말이 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가정에 훨씬 더 많이 기여하고 있다! 그에 비해 네가 배려가 없다!”였다. 남편의 이 말로 모닥불 싸움이 큰 화염이 돼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렸다.

그놈의 돈 돈 돈! 시댁에서부터 내려온 지긋지긋한 물질만능주의! 남편 형은 아내한테 “돈 얼마나 번다고 육아휴직을 눈치 보냐?”라 말하고, 시아버지는 나에게 “너희 아버지는 요즘 얼마 버느냐” 같은 말을 서슴지 않으신다. 이에 비하면 남편의 발언은 약한 편이었지만, 그 말에 녹아 있는 생각들이 나를 너무 화나게 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최고고 나머지는 당연히 거기 있는 것처럼 대하는 태도가 보여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그 남자의 배우자인 내 직업은 사회복지사다.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적은 경우가 많다. 돈 안 벌고 싶어서 복지사가 된 게 아니다. 복지 분야는 영리사업이 아니어서 예산에 의존하고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분야 사람들은 돈을 적게 버니 평가 절하되어야 하나? 이런 편협한 생각을 담은 한마디가 내 남편 입에서 나왔다는 데 너무 화가 났다. 게다가 그 말을 페미니스트인 내게 했다는 것도 큰 문제였다. 안 그래도 여자가 많은 분야는 저평가되어 평균임금이 적은 게 요즘의 가장 큰 고민인데 이런 나에게 너무나 일반적인 남성들의 대사를 하다니! 정말 화가 나고 다 그만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만하기 어려운 정말 큰 문제가 있다. 그건 내가 ‘남미새’라는 거다. ‘남자에 미친 새끼’란 남자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늘 남자 이야기를 하며 모든 문제를 남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여자를 일컫는 시쳇말이다. 페미니스트고 사회복지사라고 주장하는 내가 남미새라니 무슨 말이나 싶겠지만, 난 남편이 너무 좋다. 남편이 좋아하는 걸 같이 해 주고 싶고 원하는 걸 찾아주고 싶고 웃는 남편 보는 게 좋아서 자주 웃게 하고 싶다. 늘 남편과 함께 다니고 싶고 남편이랑 다니면 안정감이 든다. 아주 남자에 미친 게 틀림없다.

그렇지만 남미새와 페미니스트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혼란스럽다. 내가 바라는 페미니스트는 가부장제라는 권력을 무너뜨

리기 위해 비혼, 비출산을 선택하고 사회운동을 하는 삶인데 지금의 나는 남자를 아주 사랑하고 임신, 출산, 육아하면서 가부장제를 공고히 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완벽한 ‘남미새’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하다.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는 차별과 위협을 못 본 척 눈감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기 때문에 안 된다. 가부장제가 잘못됐다고 말하면서도 남자의 질서에 편승하는 내가 불편하다.

불편함을 따라가며 생각해 보았다. 내가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남자에 의존하고 싶은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할수록 남자에 미쳐 있다기보단 남자가 가진 힘을 탐내는 느낌이 들었다. 물리적인 힘으로 방어하는 게 좋기도 하지만 눈치 안 보고 맘대로 휘두르는 이기심이 탐나는 것 같다가도 남자의 사회적 지위가 갖고 싶은 것에 가까운 것도 같다. 그렇지만 내가 현실적으로 남자가 될 수 없으니 사회적인 힘을 가진 자가 날 인정해주는 것도 좋고 결국 강한 남자를 곁에 두어 안정감을 얻고 싶은 거구나 하는 생각에 미쳤다. 그래서 내가 그간 내 삶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완벽한 남자를 찾아다녔고 ‘남미새’로 살길 선택했구나, 하고 이해했다.

이상에 반하는 삶이지만 재능이 있는지 누구보다 잘했으며 인정도 받았다. 그렇지만 마음을 놓고 사랑하는 거라 보기엔 어려웠

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이상 사이에서 이질감을 느끼느라 내 소속을 찾지 못해 외로웠다. 방향을 일관되게 정하지 못하니 말하기도 망설여졌다. 흐지부지 살다가 우연히 가족주의가 힘들어 자살하는 동갑내기 여자들의 기사를 보면 마구 영킨 머릿속 실타래들이 목구멍까지 내려와 숨이 탁 막히는 기분이었다.

지금 나는 이렇게 혼란스럽다. 그래서 남편이랑 작은 일로도 투닥대며 싸우나 보다. 결론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게 내 현재 상태이고 지금 이 글이 내 최대한의 목소리다. 나는 이렇게 불완전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여성운동을 후원하고 지지하고 있으며, 기회만 있으면 각종 생활 속 여성 차별 사례들을 이야기한다. 또한 내 팔이 안을 수 있는 만큼의 사람들을 조금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 그게 나의 복지다. 자만스럽지만, 30대가 가지는 오만이라 여기며 이 소망을 적는다. 그리고 남자에 미쳐 있는 마음은 계속 미쳐 있을지, 끝날지, 정말 사랑만 남을지는 미지수나 내가 사회적 능력과 물리적 힘, 그리고 안전까지 가지고 나면 어떤 형태든 되어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살아남아 나를 지우지 않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지금은 그게 나를 돌보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남미새 페미니스트 단비는 오늘도 살아남았다. 끝까지 살아서 남미새 페미니스트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리라.



보리남순

무엇이 되었든, 지금보다 좋을 순 없다.
농부로, 작가로, 또 게스트 하우스 운영자로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좋다.
사방 뻗친 잔뿌리 많은,
간들바람에도 온몸 흔들며
멀리 내다보는 나무 되길 소망한다.



“가끔은 휴식 시간이 끝난 줄 모르는 사람이 누워 있다.
누구도 책망하거나 깨우지 않는다.
입이 말하지 않아도 고단했던 그의 시간을 헤아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가을 들녘

보리남순

지난주 내린 비로 아침 기온이 푹 떨어졌다. 반팔 위에 점퍼를 겹쳐 입고 아침 산책을 나섰다. 얼굴에 닿는 바람이 차갑다. 곧 옷장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 결코 물러날 것 같지 않던 이 여름도 서서히 꼬리를 보이고 있다. 기온이 떨어지자 동네 사람들은 “이제 좀 살 것 같다”며 호미를 들고 밭으로 간다. 겨울 채비를 시작하는 계절이다. 묵은 것들을 뽑아내고 밭을 고른다. 무, 배추, 가을 상추, 대파, 쪽파, 갓, 순무 등 부릴 씨앗이 많다. 지금 심는 것들로 겨울 공간이 채워질 것이다.

노랗게 익어 가는 들판에서 우렁찬 물소리가 들린다. 벼 수확을 앞둔 시기와 어울리지 않는 소리다. 벼농사의 태반은 물을 다루는 기술이다. 모내기를 하는 시기와 벼가 한창 자라나는 여름철에는 물을 넣고 빼는 기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벼 수확이 멀지 않은 9월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도 충분하다. 비어 있어야 할 수로에 물이 찰랑찰랑 흐르고, 벼가 익는 논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 고개를 가웃하며 의문이 들었지만, 글로 배운 농사 지식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많다.

멀리서 점처럼 움직이던 물체가 가까워지며 형체가 드러났다. 반가운 노인회장님이다. 누구에게나 깎듯하고 존칭을 아끼지 않는 노인이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논에 다녀오세요?” 내가 인사를 건넸다.

“어제저녁에 물을 대느라 터났던 물꼬를 지금 막고 돌아오는 중입니다. 지금 땅이 너무 말랐어요. 땅이 갈라질 정도로 마르면 안 되거든요.” 가을 가뭄으로 갈라진 논바닥에 채워지는 물을 바라보며 노인회장님이 대답한다.

물이 귀하던 시절이 있었다. 논에 들어가는 물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던 그 시절 이야기는 그러나 아주 먼 이야기는 아니다.

“그때는 보 막아서 겨울에 논에다 조금씩 물 가두어 그 물로 모내고 했는데, 그까짓 거 당할 수 있나? 그때는 물쌘들 많이 났어. 자다 깨어나 보니 사람이 없길래 나중에 물어보니 밤새 논에 물 대고 왔다는 거야. 하늘만 쳐다보며 농사짓던 시절이었으니까, 뭐 방법이 있나? 하늘에서 비를 내려줄 때까지는 어떻게든 논물은 대야 하니까. 이웃끼리 싸우다 살인도 일어났었어.”

육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논물을 대던 그때, 먼 남도의 청산도에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벼농사를 짓고 있었다. 가이드를 겸하던

순환버스 기사님의 설명이 아니었더라면 알지 못했을 그곳에는 ‘구들장 논’이 있었다. 구들장은 방을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 바닥에 까는 넓적한 돌을 말하지 않던가! 구들장과 논이 접목이 언뜻 이해되지 않았다.

다음 날 찾아가 직접 눈으로 본 구들장 논은 산을 깎아 만든 다랑논이다. 섬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크고 울창한 산림 사이로 계단식 다랑논이 펼쳐져 있고, 파랗게 벼가 자라고 있다. 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섬에서 벼농사라니!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아름다운 광경이다.

다랑논은 산에서 나오는 물에 의지해 짓는 농사다. 한정된 물을 위 논부터 멀리 떨어진 아래 논까지 골고루 나누어 쓸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을 것이다. 벼는 30센티미터 흠만 있어도 자란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는 작물이기 때문이다. 벼의 생태를 알고 있던 청산도 사람들은 논바닥에 구들장을 깔고 30센티미터 흠을 덮어 논을 만들었다. 땅으로 소실되는 물을 구들장이 막아 주어 적은 양의 물로도 벼농사가 가능했던 것이다. 얼마나 오랜 기간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었을까? 400년 전 발명한 구들장 논으로 청산도 사람들은 싸움 없이 서로를 돌보며 공존할 수 있었다.

가르마처럼 갈라진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물들어 가는 벼

가 바다처럼 펼쳐진 길을 걷는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운슬을 따라 삼거천을 따라 걷다가 제1교에서 왼쪽으로 꺾어 집으로 향한다. 30분 남짓한 산책 중 반을 걸었다. 노란 논 위로 보드라운 가을바람이 살랑댄다. 코를 벌름거리며 가을 냄새를 맡아 본다. 아직 가을 냄새는 이르다. 여름의 아니, 가을 햇살의 돌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가을이 깊어지면 들은 구수한 밥 짓는 냄새로 가득하다. 밥 짓는 냄새는 따가운 가을별이 빔어낸 가을 향수다.

걷는 발걸음에 맞춰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이런 풍경과 감상을 눈으로만 담는 것이 못내 아쉽다. 고흐에게 있었던 선한 안목과 손재주가 부럽다. 전영록의 ‘저녁놀’과 이문세의 ‘휘파람’ 같은 노래를 만든 작곡가의 재주가 아쉽다. 절로 마음이 순해지는 이 순간의 풍경을 담아내고 싶다.

노랑게 물들어 가는 가을 들녘이다. 벼는 깊이 고개 숙여 마주 오는 가을을 반긴다.

월요일 오후 2시

보리남순

태양의 시계에 맞추어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농부들이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면 농부들은 잠을 털고 일어나 논밭으로 나가고, 봉숭아꽃물 같은 노을이 서쪽 하늘을 물들일 때 몸에 묻은 흙을 털고 집으로 돌아온다.

태양이 정수리를 찌르는 오후 2시는 농부들에게 애매한 시간이다. 일하기에는 날이 너무 뜨겁고, 집에서 뒹굴자니 무료하기도 하고 입도 심심하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오후 2시가 되면 그들은 행복센터 3층 요가 교실에 모인다. 2시간 요가로 노동으로 뻗뻗해진 몸을 풀고, 심심했던 입을 수다로 털어내며 서로를 돌본다.

요가에 나오는 사람은 들쭉날쭉하다. 등록된 숫자는 20명가량이지만, 고추 따기 바빠서, 김장배추 심느라, 고구마를 캐야 해서, 도시 사는 자식들이 내려온다는 기별을 듣고 싸 줄 김치를 담느라... 이유를 열 손가락으로 다 꼽고도 모자랄 지경이다. 그런 이유로 수업 시간에는 네댓 명 자리가 꼭 비었다.

진행하는 강사와 수강하는 늙은 학생들은 몇 년째 함께하고 있어서 짧은 말로도 손발이 착착 맞는다.

“자, 몸 폼니다.”

강사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요가 매트 앞으로 나와 앉는다. 그리고선 몸을 동그랗게 말아서 쇠똥구리가 똥을 굴리듯 각자의 몸을 굴린다.

“하나, 둘, 셋, 넷...”

여덟 번을 구르고 나면 강사가 다시 외친다.

“자, 이번에는 깊게 갑니다.”

강사의 구령에 사람들은 구부렸던 다리를 짝 펴고 다리를 바닥에서 들어 올려 머리 위로 넘긴다. 이것도 여덟 번을 한다. 제 몸에 신경 쓰느라 다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바라볼 겨를 없이 구른다. 여덟 번씩 두 번을 구르고 나면 한결 몸이 가벼워진다. 집에서 혼자 할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은 요가 교실에서도 통한다. 선생님의 구령에 맞춰 함께 다리를 찢고 몸을 비틀고 등을 짝 펼치는 동작이 혼자 할 때보다 한결 수월하다.

요가 교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언니는 94세이다. 모두가 그를 ‘왕 언니’라고 부른다. 왕 언니는 전동차를 타고 요가 교실에 오고 갈 때도 직접 운전해 집으로 간다. 전동차는 왕 언니의 다리다.

전동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요가 교실에서는 앉거나 누워서 하는 동작만 한다. 선생님도 언니에게 일어서기를 권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말을 한다.

“힘들거나 몸이 아프면 굳이 무리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통증이 이만하면 되었다 싶을 정도로만 하세요. 무리하면 큰일 납니다.”

오자(0) 다리 언니도, 무릎에 철심을 박은 언니도, 허리가 아픈 언니도 선생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른다. 요가 교실의 늙은 몸들은 ‘큰일 나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며 운동한다.

한 시간 운동이 끝나고 나면 10분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그 시간이 되면 우리는 모두 매트 위에서 젖은 빨래처럼 널브러진다.

“아이고 좋다. 눕는 게 세상 좋다.”

누군가의 말에 주름진 얼굴들이 까르르 웃는다. 그리고 곧 머리에 팔을 괴고서 옆 사람을 향해 돌아누워 이야기를 나눈다. 평생이 농부였던 그들은 누워서도 농사를 짓는다.

“자매님은 배추 심으셨어?” 같은 성당을 다니는 형님이 나에게 묻는다.

“아직요. 동네서도 아직 배추 안 심던데, 올해는 좀 늦네요?”

“윤달이 끼어서 그래요. 아직 해가 뜨거워서 틀려. 좀 더 있다가 심어

야 해.” 성당 형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신봉리 형님이 말을 받는다.
“올해는 무고 배추고 조금만 심을 거야. 애들도 이제는 김치를 잘 안 먹으려고 해.”

“요즘 애들은 밥도 잘 안 먹으니까. 밥 말고도 먹을 게 많은 세상 이지.” 성당 형님이 말한다.

“그래도 밥심이지. 남들은 더워서 입맛이 떨어졌네, 밥맛이 없다고 해도 나는 여태 밥맛 떨어진 적은 없어. 자꾸 뱃살이 찌서 큰일 이야.”

말과는 달리 큰일 날 것 없다는 표정으로 불룩한 배를 쓰다듬는 신봉리 형님을 보며 나와 성당 형님이 웃는다.

이렇게 입으로 농사를 짓다 보면 10분 쉬는 시간은 금세 지나간다. 곧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자, 이제 일어서서 할게요. 일어날 수 없는 분들은 앉아서 하세요.”
사람들이 일어서고, 앞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왕 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가끔은 휴식 시간이 끝난 줄 모르고 누워 있는 사람도 있다. 누구도 책망하거나 깨우려 들지 않는다. 입이 말하지 않아도 고단했던 그의 시간을 헤아리는 마음이 교실 안에 있다. 여윈 잠이 들었던 이는 곧 일어난다.

“요가를 한다고 해서 늙지 않거나 몸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3년, 5년 시간을 조금 늦출 뿐이죠.”

농사일에 바쁜 언니들에게 수업에 빠지지 말라는 선생님의 단속
이 이어진다.

“나마스떼!”

서로를 축복하는 인사로 2시간의 요가 시간은 끝이 난다. 표정이
조금 더 밝아졌고, 뻣뻣했던 몸들도 조금은 편해 보인다.

에어컨이 닿지 않는 교실 밖 세상은 아직도 숨이 턱턱 막힌다.

“아니 왜 이렇게 더워, 말복 지난 지가 언젠데?”

사람들은 절기를 더듬으며 가지지 않는 더위에 눈을 흘긴다.

고추밭이 빨강다. 한결 부드러워진 몸이 고랑을 기며 고추를 딪다.

겨울을 앞둔 몸들이 가을을 수확한다.



비날성혜

신념, 가치관, 도덕성, 세상을 보는 시선에서
처음부터 내 것은 없었다.
부모가, 학교가, 세상이 내게 만들어 주었다.
이제 묻기 시작했다.

누구를, 무엇을 위해 만든 것이냐고,
그래서 나는 언제나 가는 길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길에서 내가 읽고,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쓴다.



“자기돌봄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어느 날 작은 먹거리 하나도 잘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냉장고 앞에서 잠시 나를 떠 올리며 이 글을 썼다.”

꾸밈에서 돌봄으로

비날성혜

“비날, 옷이랑 가방이 너무 안 어울려.”

“그래, 안 어울리는구나.”

무심하고 덤덤하게 대답한 나 자신이 조금 낯설었다.

예전에 나는 달랐다.

의상이나 머리 같은 걸 지적받으면 금세 위축됐다. 옷을 입거나 머리를 한 뒤에는 꼭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점검받았다. 칭찬이 아니라 자연스러워 보이길 원했다.

“나 어때? 어울려? 어색하지 않아? 똥똥해 보이지 않아? 너무 나 이 들어 보이지 않아?”

끊임없이 묻고 또 확인했다. 입고 싶은 스타일이 있어도 ‘안 어울린다’라는 말 한마디에 쉽게 포기했다.

나 역시 외모나 옷차림, 헤어스타일을 아무렇지 않게 평하는 좋지 않은 습관을 지니고 있었다.

“어머, 예뻐졌다. 자기, 살 빠졌네. 신발이 너무 튀지 않아?”

심지어 잘 먹는 지인을 보고 “군살을 뺐다며”라는 농담을 던져

분위기를 수습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 그 일로 스스로 성 감수성이 낮다는 걸 깨닫고 당황했다. 그 지인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혼자 이불킥을 여러 번 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흰머리가 나이 들어 보일까 봐 습관처럼 귀찮아도 30년 넘게 염색을 해왔다. 그러다 두피 트러블이 났다. 붉은 반점이 생기고 가렵더니 허연 표피가 비듬처럼 떨어졌다. 괴로움을 참고 왜 염색을 이어 왔을까? 결국은 타인의 눈 때문은 아니었을까.

화장과 패션, 외모 관리에 쏟는 시간과 에너지를 뜻하는 ‘꾸밈노동’의 뿌리는 내 어린 시절, 엄마와 겹친다. 늘 엄마가 하셨던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라는 말이 철들기도 전에 내 마음에 각인되었다. 1972년, 중학교 입학 때 나는 교복 치마 밑에 속바지 대신 코르셋을 입고 다녔다.

엄마에게는 옷이나 외모에 대한 자신만의 아픈 서사가 있다. 엄마는 서른 살 무렵, 심한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거의 3-4년을 누워 지냈다.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기에 입을 옷조차 마땅치 않았다. 그 시절은 기성복보다 한복을 입던 때라 더욱 불편했을 것이다. 진료 갈 때면 이웃 아줌마의 옷을 빌려 입고, 아빠가 엄마를 등에 업고 병원에 갔다.

엄마는 건강을 되찾은 뒤 꾸미는 일에 정성을 많이 쏟으셨다. 당신 자신뿐 아니라 딸들도 단정하고 예쁘게 보이길 원했다. 나는 엄마의 기대에는 못 미쳤고, 자주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런 엄마가 계셔서일까. 나는 더욱 타인의 눈에 조금이라도 이상해 보이거나 다르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했다. 내 안에 ‘꾸밈에 대한 타인의 시선’이 깊게 뿌리내렸다.

이제 안다. 나의 꾸밈노동은 타인의 시선에 매여있었음을. 그 사실을 인정하니 바뀌고 싶어졌다. 그러나 실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흰머리가 늙음의 동의어라는 생각,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싶다는 욕구를 떨쳐내기는 어려웠다.

엄마의 목소리는 내 안에서 이미 내 것이 되어 있었다. 염색 트러블은 가라앉았지만, 오래간만에 만난 지인이 염색하지 않은 나를 보고 화들짝 놀라면 나도 모르게 염색 트러블을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닌데, 흰머리가 걸림돌이 될까 괜히 고민하다 멈춘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어르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어르신 대부분은 염색으로 검은 머리를 유지한다.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 앞에 흰머리로 서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까 괜히 염색 핑계를 찾는 내 모습을 보면 피식 웃음이 난다.

수영 강습이 있는 날은 새벽 여섯 시에 집을 나선다. 남편이 차를

가지고 지방에 가 있을 때도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버스를 타고 수영장에 간다. 목이 늘어진 티셔츠에 슬리퍼를 끌고 다니지 않는 건 타인의 시선 때문이 아니다. 그저 단정함을 유지하고 싶은 내 욕구 때문이다. 그제야 나는 단정하고 깔끔한 내 모습을 나 스스로 좋아한다는 사실을 더 잘 이해했다.

염색하지 않고 흰머리로 자유로워지고,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들고 싶은 가방을 들고 싶다. 그러나 단정하고 정리된 외모로 반듯하게 걷는 것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도, 사회적 시선 때문도 아니다. 그저 내가 좋아서여야 한다. 그런 나를 정성을 들여 천천히 설득 중이다. 내 정장에 내 최애 스님에게 선물 받은 바랑 같은 천 가방이 안 어울려도 괜찮다. ‘어울림’보다 ‘내가 좋음’을 택하는 순간, 나는 비로소 나를 잘 돌보는 자가 된다.

다시 냉장고 앞에 서다

비날성혜

냉장고 문을 여니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반찬통이 뱅뱅하게 들어 있었다. 그 순간 “언제 이걸 다 먹냐고” 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옆에 있는 듯 생생하게 들렸다. 음식을 한 끼 먹을 만큼만 만드는 재주가 없는 나를 향한 남편의 힐책이다. 속으로는 ‘해 줘도 난리야’ 하고 흘겨봤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해졌다.

우리 집 음식이 넘치게 되는 데에는 늘 사연이 있고, 지난 주말도 예외는 아니었다. 출장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 얼큰한 김치찌개 한 냄비를 끓이고, 오래간만에 딸 부부도 온다고 하니 월남쌈과 올리브를 넣은 샐러드까지 만들었다. 좀 부족할까 봐 사태와 청양고추를 넣은 장조림도 준비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저녁 딱 한 끼만 먹고 가 버렸다. 딸에게 일부를 싸줄 예정이었는데 여행 계획이 있어 안 가져갔다. 음식의 풍요로움은 어느새 넘침이 되어버렸다.

남편은 태백에서 한동안 지내기로 해서 그 많은 음식을 혼자 먹어야 했다. 나흘을 먹었지만, 음식은 좀처럼 줄지 않았다. 게다가

주말에 외식 약속이 있어 두 끼를 먹고 들어왔다. 이미 냉장고 안에는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대용량 플레인요거트와 충동적으로 사 온 파프리카, 천도복숭아, 어르신이 주신 상추대, 지인이 챙겨준 공심채까지 모두 오직 내가 해결해야 하는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요즘 나는 생애 처음으로 퇴직 후 혼자 시간을 즐기고 있다. 간단히 찌낸 호박, 가지 같은 채소에 새콤달콤한 소스를 뿌리고, 신선한 과일이나 구운 따뜻한 생선을 먹는 게 좋다. 그런데 냉장고에는 그런 식단이 들어설 틈이 없었다. 먹어 치워야 할 음식들만 나를 압박했다.

특별히 굶주림을 겪은 적은 없는데도 식재료 앞에 서면 괜히 욕심이 난다. 두 식구뿐인데 필요 이상의 야채와 과일을 산다. 싱싱할 때 먹어야 할 것 같아 늘 마음이 조급해져 허겁지겁 해치우는 기분이 된다. 때로는 냉장고가 의무로 가득한 창고처럼 느껴진다.

음식을 버리는 일은 ‘큰일 날 일’로 배운 습관도 한몫한다. “음식 버리면 벌받는다”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할머니는 손밥조차 물에 여러 번 헹구어 드셨다. 내가 아이들을 기를 때도 음식은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가르쳤다. 음식 투정을 하면 음식을 소중히 여기게 하려고 하루 종일 물만 먹이며 엄하게 훈육한 적도 있다. 그

런 나는 먹지 못한 음식을 버리면 아까움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온다.

아이들을 키우며 일을 할 때 먹는 일은 즐기는 일이 아니었다. 사는 문제 그 자체였다. 시간에 쫓겨 음식을 만들었고,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는 두 아이의 도시락을 네 개나 싸야 했다. 지금처럼 새벽 배송도 없던 시절이다. 냉장고엔 늘 식재료가 있어야 했다. 한 가정의 먹을거리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었던 의무감이었다. 그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져 냉장고를 자꾸 채우게 만든다.

요즘 냉장고 문을 열면 음식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온 습관과 조급함, 그리고 책임감이 보인다. 냉장고는 더 이상 무조건 채워야 할 대상이 아니다. 필요한 재료를 잠시 보관하는 ‘쉼터’이자 나를 위한 즐거움으로 채울 공간이다. ‘빨리 먹어 치워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대접할 기분 좋은 한 끼를 선물하는 상상으로 냉장고를 채운다. 냉장고 앞에 서서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재료를 고른다. 그것은 나를 돌보는 소박하지만 확실한 식탁이 된다.



생각쟁이
이정숙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과 장애인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마음에 오래 남는 시를 쓰는 것이 소망이다.

맑고 높은 가을하늘과 책을 좋아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는 사람을 존경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꾸밈없이 우아하게 살고 싶다.

교육 강사로 일하고 있다.



“자기 몸을 내어주고 빛을 발하는 한여름 날의 가로등.
비 내리는 날 거리에서 우연히 보게 된 담쟁이와 가로등은
철학적인 삶의 훌륭한 글귀를 만들겠노라, 호시탐탐 노리던
나의 시선을 붙들기에 충분했다.”

담쟁이와 가로등

생각쟁이 이정숙

가로등을 지지대 삼아 푸른 몸을 두르며 천천히 올라가는 담쟁이. 자기 몸을 내어주고 빛을 발하는 한여름 날의 가로등. 비 내리는 날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한 담쟁이와 가로등은, 철학적인 삶의 글귀를 만들겠노라, 호시탐탐 노리던 나의 시선을 붙잡기에 충분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때까지 올라가 가로등에 덩굴손 빨판을 대고 있는 담쟁이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빛을 내주는 가로등은 내 삶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다.

나는 늘 다른 친구들보다 빠르지 못했고 생각이 많았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문학소녀였다. 어른이 되어서는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장애인에게 애뜻한 마음이 생겨 사랑부봉사를 시작했다. 어렵고 힘든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왔다. 지금도 한 장애인의 어머니는 지치고 쓰러져 죽고 싶은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즈음이면 내게 연락하신다. 그럴 때마다 나는 조건 없는 지지와 사랑의 말을 잊지 않는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후원자를 연결하며 그들의 삶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준다. 누군가를 밝히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

왔음을 감사히 여긴다.

결혼 후 두 딸을 낳고 다시 취업하려고 했을 때 현실의 장벽은 나를 좌절하게 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독서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했다. 큰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네 살 된 작은딸을 평소 친분이 있는 피아노 학원 원장님께 맡겼다. 그렇게 논술지도사가 되어 활동을 시작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점점 지독한 엄마가 되어갔다. 어느 날, 초등학생이 된 작은아이의 일기장에서 “우리 엄마는 마귀할멈”이라는 글을 발견했다. 남편의 두 번의 사업 실패로 삶은 더 불안해지고 실망과 무기력이 몰려왔다. 살고 싶지 않다고 몸부림칠 때 친구의 권유로 어린 시절 성탄절에만 잠깐 다녔던 교회를 다시 찾았다.

나는 초등학생들에게 논술을 가르치며 주 6일 일했고, 일요일에는 사랑부에서 장애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봉사했다. 처음 맡은 장애아동은 일곱 살 남자아이였다. 와상이라 말도 못 하고 대소변도 가려 주어야 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밤 일을 하느라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아침 일찍 아이의 집으로 가서 씻기고 준비시켜 교회까지 데려갔다가, 예배가 끝나면 다시 집까지 데려다주어야 했다. 어느 날 아이를 데리러 가던 중 신호 위반으로 경찰이 차를 멈추게 했다. 창문을 열고 경찰 얼굴을 보는 순간, 내 안의 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죄송합니다. 제가 장애인 봉사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급해서 그만…… 엉엉.”

경찰은 당황해하며 그냥 가라고 했다.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는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기관에서 총괄을 맡게 되었다.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며 대학원에 진학해 논문을 뒤적이며 연구를 시작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건 쉽지 않았다. 발달장애인 중에는 운동화 끈이 풀리면 늘 나를 찾아와 묶어 달라던 아이가 있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갑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달려와 내 뒤통수를 세게 때렸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일이 끝난 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몇 시간을 묵념아 울었다. 나를 왜 이 자리에 보내셨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묻고 또 물었다. 인생이 바닥으로만 떨어지는 것 같아 서럽고 불쌍했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내가 진정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들을 천천히 찾아갔다.

올라가고 싶어도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담쟁이처럼 나도 정년을 맞았다. 학교를 졸업한 뒤 평생 앞만 보고 달려왔고 정년 이후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나로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설상가상으로 친정어머니는 노인성 치매와 골절, 이석증, 우울증, 대상포진 등으로 우리 8남매를 잠시도 쉬게 두지 않았다.

최근 1년간의 일이다. 8남매가 모여 당번을 정해 엄마를 돌보기 시작했다. 어린아이처럼 변한 엄마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바라 보며 잘 듣지도, 잘 먹지도 않았다. 몸무게는 41kg까지 줄어들어 모두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그러나 식사를 챙겨드리고 돌아서는 딸들에게 엄마는 머리 위로 손하트를 만들어 보이며 “와 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하고 환하게 웃으신다. 어디서 배우셨을까. 매일 텔레비전을 보시더니 새롭게 익힌 사랑의 표현법인가 보다. 그 미소 하나에 우리의 발걸음도 가벼워진다.

어떤 시인은 담쟁이를 ‘푸른 약손’이라 했고, 또 다른 시인은 ‘한 뼚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라고 했다. 8남매를 키우고 입히느라 온 힘을 쏟으신 엄마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이다. 인큐베이터 안의 갓난 큰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평생 봉사하며 살겠다.”라는 자신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실천하려고 한다.

내가 가장 잘 보이는 지금의 ‘나’이다. 나는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이효숙 김태수 부부 인터뷰 -오지 마을에서의 콩닥콩닥

생각쟁이 이정숙

이효숙은 둘째 언니이고, 김태수는 둘째 형부이다. 여름 더위에 몸도 마음도 흐물흐물해질 8월의 마지막 날, 넷째 여동생과 함께 아침 일찍 강원도 철원 오지 마을로 향했다. 강원도 철원은 내가 자란 고향이기도 하다. 어릴 적 추억이 많이 묻어 있는 고향을 찾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언니와 형부가 이 오지 마을에서 집을 짓고 자갈을 골라내며 텃밭을 가꾸고 있기에 이번 방문이 가능했다.

형부는 물려받은 땅을 일구느라 온갖 고생을 했다. 큰 바위가 많은 땅을 고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첫해는 집을 짓느라 시간을 쏟았고, 둘째 해에는 농사를 조금씩 지으며 어떤 작물이 잘 자라고 어떤 건 그렇지 않은지 관찰하며 보냈다. 어느덧 올해가 세 번째 해다. 형부는 군무원으로 명예퇴직을 한 뒤 언니와 함께 본가인 평택과 고향 철원을 오가며 산다.

1년 만에 다시 찾아간 집 마당은 봉숭아, 메리골드, 고추, 가지, 오

이, 파프리카, 대파, 고구마, 단호박, 개복숭아 나무가 환하게 반겨 주었다. 썰렁했던 작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볼거리가 풍성했다. 배추와 열무도 아기 손가락처럼 파릇하게 올라오고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첩첩산중이었고, 그 사이로 하늘이 빼꼼히 보였다. 폭우에도 쓰러지지 않은 나무들의 울창한 숲이 장관이었다. 저녁에는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고기를 구워 먹으며 묵혀 두었던 이야기보따리를 하나씩 풀었다.

정 : 형부, 이제는 자연인이 다 되신 것 같아요. 올해는 힘들지 않으셨어요?

김 : 포크레인으로 땅을 고를 때가 제일 힘들었지.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 그리고 언니가 하자는 대로 하니까 별로 힘든 게 없어. 하하.

효 : 고생 많았지. 첫해가 가장 힘들었어. 수도, 전기 끌어오느라 애썼고, 자갈을 골라내느라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야 했거든.

정 : 형부랑 언니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우리가 이렇게 쉬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잖아요. 작년보다 볼거리, 먹거리가 훨씬 많아졌어요. 내년엔 어떤 것들을 심고 싶으세요?

효: 올해 잘 자란 건 계속 심을 거야. 그런데 더덕 심어 둔 걸 누가 다 캐 가서 속상했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으니 더 짜증이나. CCTV 안내문을 붙여볼까 고민했어.

김: 그럴 필요 없어. 심는 사람이 있으면 캐 가는 사람도 있는 법이지. 다 신경 쓰면 시골에서 살기 힘들어져. 마음이 불편해지잖아.

효: 알긴 하는데, 심느라 애쓴 걸 생각하면 속상하잖아.

정: 형부는 어떤 마음으로 철원에 집을 짓게 된 거예요?

김: 내가 처음 집을 지으려 마음먹었을 때 생각한 게 있어. 주위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어. 특히 가족들이 언제든 와서 맑은 공기 마시고 자연의 힘으로 편안해졌으면 좋겠어. 넷째는 봄, 가을로 와서 쉬다가. 흠 만지는 게 정말 좋거든.

경: 형부, 사실 요즘 제 마음이 아주 힘들었어요. 다른 데는 못 가겠는데 여긴 오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문 열고 나오면 되잖아.”라고 하지만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질 않았어요. 무기력하고 잠도 못 자고, 잘 먹지도 못하고, 외부와의 소통도 거의 끊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오니 숨이 쉬어지고, 나를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부와 언니가 저를 살렸어요.

정: 둘째 언니,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효: 그래. 어느 날 앙상한 아카시나무에 몇 잎 안 남은 잎사귀를 봤어. 가소롭다고 생각했는데, 그 잎이 오히려 푸른 하늘을 돋보이게 하고 있더라.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건 없구나 싶었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옆에 있는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돌볼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살자.

김: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서 쉬다 가. 넷째 처제는 가을에 고구마랑 대파, 가을걷이하러 와야지. 심느라 고생도 많이 했는데.

경: 그럴게요, 형부.

정: 형부랑 언니가 작년과 재작년보다 철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좋았는지 궁금해. 힘들었던 일들도 많았겠지만.

효: 아침에 일어나면 형부가 밥도 해 놓고 반찬도 해 놓고 내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어.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직장 다닐 때는 바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않던 양반이 여기 와서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것을 직접 해주니까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이제야 형부랑 오붓한 시간도 가져보고 대화도 많이 하게 되었어. 아이들 키우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을 보상받는 느낌이야. 요즘은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 그야말로 나에게는 쉽이 되는 시간이지. 그리고 자연이 주는 힘은 너무 대단해.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이나. 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지낼 거야.

김 : 나무가 숨 쉬는 소리 들어봤어?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비 내리는 것처럼 나무 숨 쉬는 소리가 들려. 이런 건 쉽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야. 며칠 지내면서 잘 들어봐.

정 : 나무가 숨을 쉬는 소리를 낸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정말 신기해요. 바람 소리 같은데 나뭇잎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형부랑 언니의 마음이 활짝 열려있어서 굉장히 반갑고, 어떤 모습으로 지낼지 앞으로도 잘 지켜볼게요. 인터뷰와 사진 찍는 것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형부는 우리 세 자매가 수다를 떠는 동안 장작을 쌓아 불을 붙였다.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말없이 두 시간을 앉아 있었다. 형부와 언니를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넷째의 진심을 듣는 계기가 되었다.

나 또한 내가 살아온 시간과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생각하며, 지혜롭고 현명하게, 소외된 이웃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살아갈 용기를 되새겼다.

미래의 불안감 때문에 위축되고 흔들리던 마음도 모두 내려놓았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걷다 보면 진정한 내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다. 오롯이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 고마운 시간이었다.



신은향

어릴 때부터 옛이야기를 좋아해
이야기 주머니가 두둑하다. 어린이책을 읽고 나누는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20년 넘게 활동 중이고
강사로도 참여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를
꾸준히 해왔으며이제는 내가 쓴 동화를
직접 읽어주고 싶어 글을 쓰고 있다.
명상을 통해 힘을 빼고, 가볍게 살아가고 있다.



“무심하게 던지는 엄마의 말 한마디는 힘이 있다.
시선을 바꿔주고, 보이는 것 너머를 보게 해준다.”

이제, 글의 돌봄을 받기로 했다

신은향

돌봄 글쓰기를 신청했다. 평소 ‘돌봄’에 관심 있어서 신청한 건 아니다. 뭐, 그렇다고 글쓰기를 좋아해서는 더더욱 아니다. 단지 돌봄 글쓰기 부제에 ‘내가 쓴 글이 나를 돌본다’라는 문구에 꽂혔고 그 문장이 나의 마음을 움직였다. 또한 글쓰기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도 바뀌 놓았다.

평소 글쓰기는 나를 불편하게 한다. 글을 잘 쓰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내 욕망은 그 누구보다 컸다. 그러나 글을 쓰고 나서 읽어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어려운 말을 늘어놓으며 써 내려간 나의 글은 온통 잘난 척에, 있어 보이려고 애쓰는 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런대로 재미나 감동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포장된 글이 어디 재밌고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내 글은 무겁고 하품만 나온다.

나의 민낯을 보고 싶지 않아 글쓰기를 피하고 멀리했는데 내가 쓴 글이 나를 돌본다니. 갑자기 글의 돌봄을 받고 싶어졌다. 돌봄은 사람에게에만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글로 돌봄을 받다니. ‘그래

써 보자, 대신 진정한 돌봄을 받기 위해 솔직하게 써 보자’ 하는
기특한 마음과 뜬금없는 배짱까지 생겼다.

하지만 막상 글을 쓰려고 보니 정작 돌봄에 대한 쓸 거리가 생각
나지 않았다. 평소 나는 돌봄을 아픈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을 돌보는 것으로 생각해 왔기에 쓰려고 해도 소재가 떠오르지
않았다. 글쓰기를 고민하던 중 여동생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제부가 암 진단을 받은 이후, 나는 매일 동생 선자에게 전화를 걸
고 있다. 이제 제부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조금 지났지만, 동생
과의 전화 통화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
누다 선자에게 나의 고민을 말했다.

“돌봄 글쓰기를 해야 하는데, 누군가를 돌본 일도 별로 없고, 쓸
게 없어 마음이 무거워”

“언니, 그럴 때는 넷가에 가서 욕을 해. 같이 가줄까?”

선자가 웃으며 말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는데, 곧 옛날 일
이 떠올랐다. 선자가 힘들었을 때, 함께 넷가에 가서 욕했던 일을
이야기한 것이었다.

“남편을 돌보느라 마음이 너무 무거웠을 때, 그걸 언니가 먼저 알
아차리고 넷가에 가서 욕이라도 한번하고 오자고 했어. 넷가에서

내가 주춤거리며 망설이자 언니가 먼저 소리 지르며 욕을 했어.

“야~~! 씨발! 씨발아~”

전날 비가 많이 내려 냇물이 쿵쿵 쏟아졌는데, 그때 언니가 목이 터져라, 욕을 퍼붓는 모습이 어찌나 시원하고 유쾌하던지. 언니가 가볍게 욕을 하니, 나도 소리 지를 수 있었어. 언니랑 소리 지르고 나니 마음속 무거운 바위를 내려놓는 기분이었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니까, 남편에게 건넨 조약돌 하나 들 힘이 생기더라고.”

선자의 고백에 순간 몽클했다. 냇가에서 유쾌하게 욕을 했지만 내 동생 마음을 아프게 한 현실이 밉고, 힘든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더 크게 소리를 질렀었다. 유쾌함 속에 우리는 아픈 속내를 냇물에 함께 털어냈고,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

“언니의 돌봄은 가볍고 유쾌하고 산뜻해.”

“.....”

“누군가를 돌볼 때 보면, 바쁘데 억지로 시간을 내서 오고, 힘들지만 책임감 때문에 참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럴 때 도움을 받으면 왠지 미안하고, 부담스럽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갚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 근데 언니의 돌봄은 달라. 돌보겠다는 마음 없이

그냥 가볍게 오고, 할 수 있는 걸 하고 가니까 받는 나도 부담 없고 마음이 산뜻해. 나중에 갚아야 한다는 생각도 안 들어. 그만큼 마음이 가벼워져. 언니의 돌봄을 받은 수혜자로서 하는 말이야.”

선자는 나의 유쾌한 돌봄에 마음의 공간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힘든 순간에도 명랑할 수 있었다고 했다. 냇가에서 욕을 퍼붓지 않아도 동생과의 통화 속에서 따뜻한 조약돌 하나 주운 듯했다. 그리고 그 조약돌 덕분에 돌봄의 의미를 더 넓게 바라볼 수 있었다.

나는 그동안 돌봄을 육체적으로 먹이고, 키우고, 건강하게 하는 것에만 집중했었다. 정서적으로 돌봐 주는 것도 있는데 말이다. 정서적 돌봄은 마음을 살찌워서 몸과 마음을 함께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선자와 통화하고 나니 나에게 ‘돌봄’이라는 단어는 ‘돌아보고’ ‘다시 보는 것’이 합쳐진 것처럼 보인다. 시선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공간을 넓혀주는 일, 그것이 나의 돌봄이다. 그런 면에서라면 나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고 또한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처음엔 돌봄에 대한 쓸 이야기가 없다고 고민했는데 시선을 달리 하니 쓸 이야기가 넘쳐난다. 그래, 쓸 자격도 충분하고, 솔직하게 쓸 배짱도 생겼으니 이제 쓰자.

잘 놀고 있냐?

신은향

“우리 딸, 잘 놀고 있냐?”

엄마는 나에게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묻는다.

“그럼, 잘 놀고 있지.”

“그래 그래야지. 잘 놀아야지. 김 서방은 밥 잘 먹고?”

어려서부터 노는 거 하나라면 자신 있는데, 그런 딸을 잘 아는 엄마의 첫마디는 늘 같다.

우리 엄마, 유병윤 여사. 고향 시골에서 50년 넘게 작은 식당을 하고 있다. 말수가 적은 엄마는 손님이 와도 무심하게 맞는다. 그런데도 변함없는 음식 맛이 좋아서인지, 변함없는 엄마의 무심함이 좋아서인지 사람들이 잊지 않고 찾아온다.

식당을 운영하며 4남매를 다 키워낸 우리 엄마. 이제 편하게 지내도 좋으련만, 엄마는 여든의 나이에도 식당에만 있다. 그런 엄마를 보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할까 싶어 안쓰러웠다. 일주일에 한번은 쉬면서 바람이라도 쐬면 좋으련만, 자식들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

“엄마, 식당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

손님이 드문 날, 엄마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답답하긴 뭐가 답답해. 여기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오는데.”

엄마의 말에 종종 놀랄 때가 있다. 그때도 그랬다. 어느 노래 가사처럼 나의 우주가 출렁였다고 할까. 나는 집 밖으로 나가야 세상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에게 세상은 식당이었다. 항상 열려있는 식당처럼 엄마의 세상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환대하고 배불리 먹이며 마음도 쉬어가게 하니 사람들 발걸음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무심하게 던지는 엄마의 말 한마디는 힘이 있다. 시선을 바꿔주고 보이는 것 너머를 보게 해 준다.

40대 초, 나는 아이 셋을 키우며 학원을 운영하며 정신없이 살았다. 열심히 살면 돈도 금방 모으고, 집도 바로 살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남편이 노름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병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내 생각만큼 되지 않았다. 힘들어도 통장 잔액이 불어나는 재미가 있으면 좋으려만 열심히 살면 살수록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었다. 그런 만큼 나는 삶에 지쳐갔다.

“우리 딸, 잘 놀고 있냐?”

평소라면 ‘그럼 엄마, 잘 놀고 있지’라고 했을 텐데 나는 푹 꺼진 목소리로 답했다.

“엄마, 사는 게 왜 이래. 벌어도, 벌어도 돈은 모이지도 않고...”

그때 돌아오는 엄마의 말은 뜻밖이었다.

“애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돈 벌어서 정수(딸) 허벅지에 붙이고 영조, 영진이(아들) 장딴지에 붙이고 있는데.”

엄마의 말은 언제나 단순하다. 하지만 그 말은 나의 시선을 매번 바꿔 놓았고 마음을 가볍게 해줬다. 돈이 쌓이고 집 사는 게 돈 버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아이들 키우는 게 돈 버는 거라고 비유해서 얘기한 거다. 엄마의 말 한마디에 짊어진 짐이 순간 사라졌다. 활가분해졌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의 한마디는 천만 냥 빚진 것 같은 삶의 무게를 한 순간에 날려 버린다. 나와 남편은 아이들 허벅지와 장딴지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우리의 잔액을 보며 힘든 시간을 웃어넘길 수 있었다.

여동생과 얘기를 나누던 중, 여동생이 어릴 때 엄마와 있었던 이야기를 했다. 여동생이 친구들과 놀다가 창피를 당해서 순간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엄마에게 달려가 친구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엄마, 너무 창피해서 혀를 콧 깨물고 죽고 싶었어.”

라고 말했다 한다. 그때 엄마의 단 한마디.

“아파.”

엄마의 간단한 말에 동생은 혀 깨물면 아프겠다는 생각이 퍼뜩 떠올라 피식 웃음이 났다고 한다. 창피함은 온데간데없고 나처럼 마음이 홀가분해졌다고 한다. 마음을 바꾸는 데 긴말이 필요 없다. 통찰이 담긴 엄마의 말은 마음의 공간을 만든다. 빨리 돈 모으고 싶은 조급함과 창피함이라는 감정에 휩싸여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엄마, 아버지는 뭐 하셔?”

요즘 아버지가 편찮으시다. 걱정되어서 묻는 딸에게 엄마는 답한다.

“뭘 하긴, 죽는 연습 하고 있지.”

놀라지 말기를. 잠자고 있다는 뜻이니. 참으로 우리 엄마다운 표현이다.

“엄마는?”

“뭘하긴 뭐해, 숨 쉬고 있지.”

아픈 남편 돌보느라 힘들 텐데도 깊은 유머가 있다.

“엄마, 숨 쉬는 거 잊으면 안 돼.”

“그럼 그럼. 잊지 않고 숨 쉬고 있을게.”

엄마는 죽음조차 일상의 농담처럼 말한다. 그 앞에서 삶의 무거움은 한없이 가벼워진다.

“우리 딸, 잘 놀고 있냐?”

숨 쉬는 걸 잊지 않는 한 엄마는 전화해서 계속 이렇게 물을 것이다. 잘 산다는 건 잘 노는 것, 딸이 잘 지내기를, 잘 살기를 바라는 엄마만의 안부다.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기에 나는 엄마의 물음에 매번 똑같이 답한다.

“그럼 잘 놀고 있지.”

“그래 그래야지, 잘 놀아야지.”

오래도록 듣고 싶은 말이다.

엄마는 엄마 같지 않아

신은향

“엄마는 엄마 같지 않아”

딸이 어렸을 때 자주 하던 말이다. 우리 딸, 정수가 바라는 엄마는 쿠키 구워주고 자식에게 헌신하는 엄마였다.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친구 엄마가 쿠키를 구워주던 모습이 강렬하게 남았던 모양이다.

“엄마는 왜 지혜네 엄마처럼 쿠키 안 구워줘?”

“엄마는 내 공부 봐주지도 않고 다른 애들만 가르쳐?”

“엄마는 왜 엄마 좋아하는 것만 해?”

정수는 자주 나를 친구 엄마와 비교하며 투정을 부렸다. 정수가 어릴 때는 맞벌이를 하지 않아 정수 친구들을 다 초대해서 생일 파티도 열어주고, 정수에게 집중하는 시간도 많았었다. 하지만 내가 집에서 독서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정수의 불만은 커졌다.

정수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나는 수업하느라 바빠서 딸의 간식도 사서 주고, 간식 먹는 것도 봐주지 못했다. 집에 오면 수업받는 아이들로 떠들썩하니 엄마도 집도 빼앗긴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정수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그렇기에 엄마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며, 일하며 살았다.

‘엄마는 엄마 같지 않다’라고 편찬하던 딸이 대학교 졸업 후 어느 날, ‘엄마가 해준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슬며시 내밀었다.

1. 그림책 밥

엄마가 그림책을 좋아해서 우리 집엔 늘 그림책이 많았다. 동그란 식탁에 둘러앉으면 옆에 놓인 책장에서 마음대로 그림책을 꺼내 읽을 수 있었다. 어릴 때는 엄마가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고3 때는 입시에 대한 압박감에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컸다. 아침에 학교에 갔다 밤 11시쯤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따뜻한 밥을 차려 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밥을 먹고 있으면 엄마는 그림책 한 권을 꺼내 읽어주었다. 나는 안 듣는다고, 바쁘다고 투덜거렸지만 사실은 난 엄마가 그림책 읽어주는 게 좋았다. 동생들은 다 자고 온전히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엄마는 나만을 위해서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고3 때 엄마가 매일 그림책을 읽어주었는데 어느 날은 한 번 더 읽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내가 엄마에게 읽어주기도 했다.

엄마가 그림책 읽어주는 시간은, 시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서 벗어나, 엄마 목소리 속에서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집밥이 그림다고 하지만, 나는 엄마가 읽어주던 그림책 밥이 그림다.

2. 욕! 욕!

내가 힘들 때면 엄마는 늘 “산책할까?” 하고 묻는다. 대학 시절,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오빠와 잘 안되어 결국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날은 정말 가슴이 터져 버릴 것 같았다. 집에 있어도 우울하기만 해서 나가려던 참에 엄마랑 산책하러 갔다. 그날은 가슴이 답답해 엄마랑 같이 산길을 걸었다. 엄마에게 짝사랑하던 오빠와 헤어진 이야기를 하다 마음이 울컥해 소리를 냈다 질렀다. 정말 산이 떠나가듯 소리를 질렀다. 마음속 복받친 덩어리가 괴성으로 토해져 나왔다.

그때 옆에 있던 엄마가 크게 욕을 했다.

“아후 씨발!”

엄마가 저런 욕을 할 수 있다니 놀랐다. 나도 욕을 따라 했다. 시원했다. 산에서 엄마랑 같이 ‘야호~’ 가 아닌 ‘씨발!’이라고 소리 지르며 웃다 보니 짝사랑의 가슴 아픈 일이, 엄마와 같이 소리 내서 욕을 했던 즐거운 순간으로 바뀌었다.

엄마와의 추억은 신기하다. 엄마와 삶을 공유하면, 흘러가는 순간들이 다르게 써지고 읽힌다. 마음 아팠던 순간도, 방황하고 고민했던 순간도, 때론 너무도 강한 확신에 차 있던 순간들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엄마와 웃으며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기억으로 바뀐다.

그날도 산에서 같이 옥해 주던 엄마의 모습은, 내가 1년 반 남짓 좋아했던 오빠의 모습보다 더욱 강렬하게 내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엄마와 함께하면 행복한 기억은 오래 지속되고, 아팠던 기억은 웃으며 추억할 수 있게 된다.

3. 마법의 타로

어느 날, 엄마는 타로 공부를 시작했다. 이제 홍대에 가서 돈을 내고 타로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엄마가 타로 공부하는 것이 나에겐 참 좋은 일이었다.

엄마는 내가 고민 있을 때 타로를 봐줬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도 생겼다. 타로는 내 마음을 숨기는 것이 불가능했다. 엄마는 타로를 잘 봤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 삼아 보려고 해도 엄마가 하는 질문들이 때때로 나를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특히 연애에 대해서는 더더욱 심했다.

어느 날, 그냥 다 내려놓고, 엄마 앞에서 솔직하게 타로를 본 적이 있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내 속 얘기를 다 털어놓게 되었다. 타로를 사이에 두고 엄마는 엄마가 아닌 ‘타로마스터’로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다.

엄마가 봐주는 타로는 생각보다 나를 돌아보게 한다. 단순히 돌아보기보다, 지금의 내 상태를 확인하게 해준다. 그래서 가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을 때 나는 엄마에게 타로를 부탁한다. 타로로 엄마와 이야기하다 보면 내 무의식을 들여다보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그러다 보면 그 마음으로부터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

엄마는 나와 타로를 보는 순간에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쉽지 않았을 텐데. 나를 키우면서 매번 그렇게 노력했을 엄마를 생각하면, 엄마가 어떤 성장을 해 왔을지 가늠조차 어렵다.

어렸을 때는 엄마가 엄마 같지 않다고 말을 했지만, 이제는 엄마의 모습 그대로 좋다.

딸이 어느새 엄마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컸다니 고맙고 기특하다. 나는 아이 낳고 키울 때에야 엄마를 이해했는데 말이다.

우리 정수에게 쿠키를 구워주고 자식에게 헌신하는 이상적인 엄마의 상이 있었다면, 나에게도 어릴 적 나만의 이상적인 엄마의 상이 있었다. 예쁜 옷 입고 내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오는 엄마 말이다. 그러나 우리 엄마는 식당 일로 늘 바빴고, 꾸미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일하는 데는 편한 옷이 최고라며 늘 일바지만 입었다. 학교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집에서 식당을 했기에, 집에 오면 언제나 손님들로 가득했다. 나 역시 우리 딸 정수처럼, 손님들에게 집을 빼앗긴 것 같아 속상했던 기억이 있다.

우리 엄마는 내가 꿈꾸던 이상적인 모습과는 달랐지만, 엄마만의 방식으로 많은 걸 해주었다. 식당 일로 힘들었을 텐데도 잠자기 전 이야기를 좋아하는 나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엄마가 지어서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내가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했다. 내가 바랐던 이상적인 엄마의 상은 예쁜 옷을 입고 학교에 오는 것이었지만, 현실의 우리 엄마는 그것만 빼고 넘치도록 채워줬다는 것을, 정수를 키우며 알게 되었다.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엄마보다 더 이상적으로 말이다.

나중에 정수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또 어떤 ‘이상적인 엄마’를 꿈꿀까? 궁금하다. 미래의 손녀가 이상적인 엄마의 상을 어떤 모습으로 갖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엄마가 그랬듯, 내가 그랬듯, 우리 정수도 필요한 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채워 줄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엄마의 상만 내려놓으면 그 이상으로 채워진 사랑을 미래의 손녀도 알게 될 것이다. 정수가 그랬듯, 내가 그랬듯.



심박

울림이라는 여성단체에서 10년째
이사이자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아픈 엄마와 강아지 돌봄을 하고 있으며
나 돌봄이 필요해 글을 쓰고 있다.



“최고의 유산은 편안한 죽음이라 했던가.
비류잉의 엄마가 그것을 보여줬다.”

잔나비

심박

우리 집 잔나비는 재주가 많았다.
노래도 잘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좌우지간 흥이 넘쳤다.

잔나비는 술도 좋아했다.
술기운에 얼굴이 벌겁게 불타올라
머리에 김이 날 것 같은 날,
“여기, 주전자에 물 담아와라.”
머리에 올려서 끓이라 익살을 떨었다.

둥근달이 높이 뜬 날
선선한 바람 맞으며 달구경 한창일 때
잔나비는 달님인 척했다.
“선이야, 선이야 너는 무슨 생각을 하니?”
복화술을 부리던 잔나비 덕에
선이는 달님과 한참 얘기를 나눴다.

그 잔나비는 번덕도 심했다.
기분이 좋으면 하늘을 날다가
기분이 나쁘면 모두의 지옥이 되었다.
끓은 무릎 위로 잔소리가 끝없이 쏟아졌다.

잔나비 띠여서 재주 많던 내 아버지
한세상 제 뜻대로 재미지게 살 줄 알았더니
그 많던 웃음 어느샌가 사라지고
아프다가 아프다가
가을 문턱을 못 넘고 힘들게 돌아갔다.

(박성우의 '두꺼비'에서 영감을 얻어 쓴 시)

단식 존엄사를 생각하며

심박

“나는 잘 걸어서 좋지?”

엄마가 말했다. 엄마의 시선을 따라가니 앞쪽에서 지팡이를 짚고 느리게 걸어가는 사람이 보였다. 엄마의 말은 보호자로 따라다니는 딸에게 미안해서 나온 것이었다. 강남성모병원 1층 로비에는 다양한 모습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3차 병원 진료는 수많은 검사와 끝없는 대기라는 피곤한 일정인데 그나마 잘 걸어서 이동이라도 편하니 딸의 수고가 덜어질까 싶어 나온 말일 게다.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성품이 드러나는 말이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팡이를 짚어야 했을 때 엄마는 휠체어를 탄 환자를 보고 말했다.

“나는 걸을 수 있으니 다행이지?”

나는 맞장구를 쳤다. “맞아, 맞아.”, “좋지.”

올해부터 엄마는 휠체어를 타야 했는데, 어느 날 침대에 누워 이동하는 환자를 봤다. 오랜 병상에 찌든 듯 일그러진 얼굴에 공허

한 눈을 가진 바삭 마른 환자였다.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아.”

엄마의 목소리는 애절했다. 두려움이 내게도 전이되었다. 엄마는 어떤 미래를 상상하고 있는 걸까. 와상 환자가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일 텐데. 그러면 침대에 누워 여기저기 검사받는다고 끌려다닐 게 뻔한데. 그런데 엄마는 그러고 싶지 않단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언제 어떤 선택을 해야 가능할까. 가능하긴 할까.

언젠가 엄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말하면서 위급한 순간에 구급차를 부르지 말 것을 당부한 적이 있다. 아프기 훨씬 전 얘기다.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와 똑같이 해 달라는 청이었다.

아버지는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혼수상태가 왔을 때 엄마는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 그 당시에 나는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다. 왜 그러냐고 다그치는 나에게 엄마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만 했다. 나중에야 알았다. 차가운 병실에서 호스 끼고 연명하다 죽고 싶지 않다고 아버지가 말했다는 것을.

아버지의 청은 엄마가 들어줬는데 엄마가 원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들어줄 수 있나. 엄마의 병세가 안 좋아질수록 내 고민은 커졌다.

자연사. 엄마가 원하는 죽음이다. 엄마뿐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자연사하기를 원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사란, 노화가 심해져 연하장애(삼킴장애)가 왔을 때 그래서 음식을 삼키지 못할 때 삽관 영양과 같은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체외생명유지술 등)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엄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으니, 그리고 자식들도 엄마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연명의료는 안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침대에 누워 검사실로 이리저리 다니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최근 『단식 존엄사』를 읽으면서 작은 희망을 보게 되었다. 이 책은 대만의 의사 비류잉이 소뇌실조증에 걸린 자신의 엄마를 단식 존엄사 할 수 있도록 도운 이야기이다. 소뇌실조증은 균형감, 근육이 퇴행하면서 사지, 안구 운동 등에 문제가 생기다가 결국 죽게 되는 유전병인데 60대의 비류잉의 엄마에게도 나타났다. 친척들이 이 유전병으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많이 봤던 비류잉의 엄마는 의사인 딸에게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비류잉 또한 10, 20대에 발병한 친척들이 고통스러운 투병 과정을 못 견뎌 자살하는 것을 봐 왔기에 엄마를 도와주기로 했다. 대만의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덜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단식 존엄사를 추천하자 그의 엄마는 매우 기뻐하면서 동의했다.

단식 존엄사는 연하장애가 심해졌을 때 단식을 서서히 진행하는

것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자연사 방법이다. 비류잉의 엄마는 20일이 걸렸다. 그동안 자기가 살던 집에서 친지들과 인사를 나누고 생전 장례식을 가족과 함께 열면서 죽음을 파티처럼 공유했다. 최고의 유산은 편안한 죽음이라 했던가. 비류잉의 엄마가 그것을 보여줬다.

비류잉의 엄마 사례를 나의 엄마에게 똑같이 시도해 보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자연사로서 좋은 방법이긴 하나 내 경우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비류잉 엄마는 소뇌실조증 외에는 다른 질병도 먹는 약도 없었다. 무엇보다 의사인 딸이 단식 과정 동안 함께 지내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의료계 인맥도 활용할 수 있었다. 나의 엄마는 혈액암, 심장약을 포함해 중증약이 14가지이다. 엄마의 위기 상황에 언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나는 전혀 모른다. 그런데도 나에게 이 사례가 희망적으로 다가온 것은 자연사가 운 좋게 얻어걸리는 영역이 아니라 준비와 노력으로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2018년 존엄사법(정식명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이후로 자연사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고, 정부에서도 고령자가 집에서 자연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 나의 경우를 엿어 방법을 탐색하다 보면, 언제 무슨 결정을 해야 하는지 알

게 되지 않을까.

엄마의 투병 과정은 나의 죽음 학습의 중요한 장이다. 아버지의 죽음이 엄마 학습의 중요한 장이었듯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엄마도 힘들겠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생각하면 아득하다. 하지만 엄마와 나, 그리고 가족들이 준비하며 가다 보면 조금은 그 무게가 가벼워지고 방법이 보이지 않을까. 조만간 엄마와 함께 단식 존엄사 얘기를 하면서 그 시작을 해 보려 한다.



쏭쏭

혼자 살며 자유를 누렸고,
함께 살며 사랑을 배우는 중이다.
그동안의 이력과 이름표 대신,
소소한 하루를 기록하며 세상과 잇는다.



“나는 혼자라도 외롭지 않은 줄 알았거든.
근데 엄마가 온 다음에 알았어. 내가 외로웠다는 걸.”

계약동거

쑹쑹

엄마가 내 집으로 들어왔다. 몸이 약해진 80세 엄마는 눈과 귀가 예전 같지 않았다. 시골에 혼자 두기 걱정돼서 1년만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맞지 않으면 다시 분가하기로 했다. 서로를 위한 안전 장치였다. 25년 만에 한 지붕 아래 살게 된 우리는 그사이 꽤 달라져 있었다.

사실 나는 혼자 사는 삶에 익숙했고, 만족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불을 끌 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다. 미니멀라이프를 추구하는 집은 조용하고 질서정연했다. 한 친구는 주말마다 혼자 캠핑을 한다. 왜 그렇게 매주 가냐고 묻자 그녀는 혼자 책 보고 음악 들으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누리려 간다고 했다. 나는 웃었다. “나는 매일 그렇게 사는데.”

그때까지 내 삶은 아주 자유롭고 안정적이라고 믿었다.

엄마가 들어오자 집은 곧 다른 집이 되었다. 안방에는 침대 두 개와 안마 침대가 들어와 발 디딜 틈이 없이 꽉 찼고, 작은 방은 옷 더미가 되었다. 거실을 지켜내느라 애를 쓰며 겹치는 물건을 비

우고, 식탁을 옮기고, 화장대 같은 살림살이를 내보냈다. 그런데도 내 집은 오래된 물건이 쌓여 있는 창고가 되었다. 서로의 물건 때문에 작은 충돌도 생겼다. 외할머니의 유품인 반달이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넌 엄마 죽으면 내 물건 다 내다 버릴 거니?”

“난 죽기 전에 내 물건 다 버리고 죽을 거예요.”

결국 반달이는 큰이모 집으로 갔다.

식탁 위 풍경도 달라졌다. 샐러드와 닭가슴살 대신 감자를 얹은 흰 쌀밥에 젓갈과 김치들이 올라왔다. 음식물을 버리면 벌을 받는다는 엄마 말을 듣느라, 먹지 않는 음식들이 냉장고를 들락거리는 것을 보고 있기는 더 어려웠다.

아침마다 흐르는 건 내 플레이리스트가 아니라 패티 김, 남진, 조용필이었다. 처음엔 옛 노래가 정겨워서 흥얼거리며 따라 불렀지만, 곧 지루해졌다. 내가 악동뮤지션이나 아이유 노래를 틀면 엄마는 “요즘 애들 노래는 가사가 안 들려, 노래 같지 않아.”라며 손사래를 쳤다.

사소한 실랑이가 잦아지자 결국 나는 무선 이어폰을 샀다. 같은 공간에서 다른 음악이 공존하는 법을 하나 배운 셈이다.

다른 건 이뿐만이 아니었다. 인기 드라마를 넷플릭스로 며칠 밤

내리 보던 즐거움도 사라졌다. 오랫동안 불면증을 겪어온 엄마의 밤 10시 취침에 맞춰야 해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휴대폰으로 드라마를 보는 건 고역이었다.

“핸드폰 좀 꺼라, 잠 좀 자자.”

“일어나! 몇 신데 아직 자니? 밥 먹어라.”

“넌 엄마 음식이 맘에 안 드니? 살 좀 찌면 어때.”

아픈 엄마를 위해 ‘1년만 참자’며 올라오는 짜증을 꿀꺽 삼켰다.

정치는 특히 위험지대였다. 서로 물러서지 않고 고성을 댔어냈다.

“그거 가짜 뉴스예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너희가 뭘 안다고 그쪽 편을 드니? 너희가 전쟁을 겪어봤어?”

정치만큼은 특히 오래 냉랭했다. 며칠 동안은 꼭 필요한 말만 오갔다. 욕실을 누가 먼저 쓰냐, 빨래를 어디다 널 거냐, 하는 정도였다. 좁은 집에서 각자 영역을 나눠 지냈다.

그래도 세상은 이어폰 너머로 흘러왔다. 어느 날 속보 한 문장이 귓속을 울렸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 없는 환호를 질렀다. 막춤처럼 팔을 휘두르다 눈물이 터졌다. 잘 보이지 않는 엄마가 물었다.

“뭐야, 원숭이 흉내 내니?”

엄마는 무슨 소식인지 몰랐다. 갑자기 춤추는 딸이 그저 우스웠

을 뿐이다. 나는 엄마 손을 붙잡고 한참을 흔들었다. 거실에 엄마의 웃음과 나의 눈물이 뒤엉켰다. 동거하는 두 이념이 함께 추는 춤이었다.

혼자 살던 시절, 가끔 강아지를 들일까 고민했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아 목이 잠겼던 휴일, 귀찮아서 편의점 도시락을 사 들고 들어오던 불 꺼진 집. 길어진 자유가 쓸쓸해져 휴가가 오히려 두려웠던 때도 있었다. 특히 동네에서 풍기는 저녁밥 짓는 냄새가 내 감성을 자극했다. 퇴근길,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저 끝에서 김치찜 냄새가 풍겼다.

‘저 집 식구들은 참 좋겠다.’

생각하며 현관문을 열었다. 엄마가 환하게 웃었다.

“우리 딸, 마침 잘 왔네.”

“와, 이 냄새 우리 집에서 나는 거였네요.”

“하하, 맛있게 됐어. 앉아 보라.”

식탁에는 두부조림, 파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표 가지나물, 김치찜이 있었다.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어떻게 이런 요리를 했을까. 그 식탁 앞에서 감탄이 터졌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지네요, 엄마. 신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가지를 만들었을까요. 참 아름답고 맛있잖아.”

그 말에 엄마는 기분 좋게 웃었다.

“엄마가 오늘 버스 정류장에서 칭찬받았어. 어떤 사람이 내 옷이 예쁘대. 이게 다 네 옷인데, 하하하.”

엄마는 내가 권한 옷들도 즐겨 입기 시작했다. 귀가 어두워 더 커진 목소리와 웃음이 집을 울렸다. 혼자서는 만들 수 없었던 행복이었다.

물론 버거운 날도 있었다. 퇴근이 늦은 밤, 너무 지쳤을 때는 혼자 있고 싶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의자를 젖혀 한참 음악을 들었다. 비까지 내리니 더없이 좋았다.

“어디야? 왜 이렇게 늦어?”

선다섯 살 딸을 걱정하는 팔십 엄마의 전화가 분위기를 깨뜨렸다.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다. 누군가가 매일 나를 신경 쓴다는 게 귀찮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다. 엄마와 함께 사는 게 어떠냐고. 내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왔다.

“응, 나는 혼자라도 외롭지 않은 줄 알았거든. 그런데 엄마가 온 다음에 알았어. 내가 외로웠다는 걸.”

한 달 뒤면 우리가 약속한 1년이 끝난다.

“엄마, 10월 9일이면 계약 끝나는데... 1년 더 해요?”

“나는 찬성이야. 잔소리가 많아도, 너랑 사니까 좋아.”

처음에는 도망갈 문을 열어두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 문을 닫아도 될 것 같다. 혼자일 때는 몰랐던 웃음과 온기가 이 집에 있고, 우리는 익숙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가끔 묻는다. 힘들지 않느냐고, 딸이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곱씹어 생각해 봤지만, 여자라서도, 딸이어서도 아니다. 엄마와 함께 사는 1년이 이전보다 더 좋아서다. 좋은 사람과 사는 평범한 일상이 좋아서다.



애플정환

돌봄 글을 쓸 때마다
나는 나를 조금씩 키워가고 있었다.
아픔을 감싸 안으며
나를 다독여 주는 시간들에
나는 글쓰기가 좋아졌다.



“내 눈물은 과거의 나를 위로해 주었다.”

비로소 시작된 돌봄

애플정환

결혼 생활이 억울했다. 특히 남편과의 부부싸움은 나의 마음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빠르게, 그리고 고통 없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을 때마다 나는 교통사고를 떠올리곤 했다. 넓은 도로에 뛰어들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나는 상상을 하였다. 아프지 않고 쉽게 끝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남편과 크게 다투던 어느 날이었다. 남편은 거래처와의 저녁 식사 때문에 매일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간절히 부탁했다. 하지만 남편은 나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를 내며 화를 냈다. 내 외로움과 독박육아의 고통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온몸이 터질 듯한 분노에 휩싸여 나는 나도 모르게 밖을 뛰쳐나갔다. 정신없이 달리다가 4차선 도로 한가운데에 뛰어들어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버렸다. 다행히 차는 한 대도 오지 않았다. 그러나 억울함은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그저 차가 와서 나를 치고 가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죽음의 순간에 아주 짧은 몇 초 동안 나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딸이 너무너무 불쌍할 텐데...’

내가 도로 바닥에 눕자마자 남편이 언제 따라왔는지 재빨리 달려와 내 양쪽 발을 잡고 인도로 끌어냈다. 그 순간 한 대의 차가 휙 지나갔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나는 남편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책을 읽다가 나의 행동이 진짜 죽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원에 대한 요청으로서의 자살’ 유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의식적으로 죽음을 택하는 것이 아니었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행동한다는 것이었다. 도로에 누웠던 날은 남편에게 복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남편이 나의 진심을 들어주지 않으니 말이다. 가장 극단적으로 행동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였다. 도로 바닥에 누웠을 때 느꼈던 불안함은 아직도 생생하다.

다행히 이 사건 이후로 나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다. 남편이 조금씩 나에게 잘해주기 시작하였다. 한 달에 한 번은 아이들과 넷이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남편은 퇴근을 일찍 하거나 먹을 것을 사 들고 왔다. 때로는 주말에 밥을 해주기도 하였다. 이런

소소한 변화들이 나에게서는 크나큰 행복으로 다가왔다. 나는 내가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할지 스스로도 알고 있기에 조심하려 노력한다. 그런 극단적인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나의 내면적인 문제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갈등이 고조되면 우선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쓴다. 예전처럼 극단적인 행동과 말은 삼가고 있다. 하지만 잠재된 외로움이 언제 또 폭발할지 모른다.

며칠 전 딸과 나눈 긴 대화는 충격이었다. 딸 역시 외롭고 힘들 때 차도에 뛰어들어 죽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였다. 딸의 말을 듣는 순간 역장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다. 나도 모르게 딸에게 죄인이 된 것 같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느껴졌다.

‘너의 외할머니가 엄마에게 했던 무심한 행동을, 엄마가 우리 딸에게 똑같이 하고 있었구나.’

내 모습과 딸의 모습에 눈물이 났다. 딸은 텅 빈 집에서 혼자 있으면 우울하다고 하였다. 가슴이 아리고 마음 한구석이 저려 왔다. 우리 엄마가 나를 방치했듯이, 나 역시 딸을 방치하고 방임한 셈이었다. 결혼 후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나도 모르게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린 딸은 혼자 집에서 외로웠을 것이다.

나는 어린 시절 강제적으로 방에 갇혔고 딸도 방에 홀로 남겨졌다. 딸이 너무나 불쌍했고 온몸이 마비되는 듯했다. 숨쉬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아팠다. 어찌면 그렇게 나와 우울 증세가 똑같은지, 딸이 불쌍해서 내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나의 외로움을 이겨내려다 딸의 외로움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나를 뼈저리도록 아프게 하였다.

나는 어린 시절 농사일로 밤늦게 들어오시던 엄마가 된 것만 같아 딸에게 한없이 미안하였다. 나는 자라면서 엄마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 결혼하면 내 자식에게는 사랑을 듬뿍 주리라 다짐했었다. 나름대로 딸에게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하였다.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나도 모르게 딸에게 외로움을 대물림했다는 사실이 나를 힘들게 하였다. 엄마처럼 나 역시 딸에게 무심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딸은 어릴 때부터 혼자서 뭐든 잘하였다. 공부도 잘하였다. 딸의 마음은 언제나 행복할 줄 알았다. 아니었다. 엄마인 나만 딸을 사랑하고 싶었고 행복해하였다. 나는 나의 자기합리화에 갇혀 있었다. 그저 방치되고 내버려진 딸은 깊은 서운함을 느꼈다고 했다. 딸에게 수없이 미안하다고 말하였다.

“딸아, 어릴 적에 혼자 집에 두어서 외로움을 느꼈다니 진심으로

미안해.”

“응, 엄마, 그때 그랬었어.”

“진짜로 엄마가 미안해.”

“엄마, 알겠어.”

딸의 외로움을 마음껏 풀어 주기 위해 나의 과거를 돌아보게 된 것만 같았다. 아픈 경험이었다. 눈물 나는 경험이었지만 소중한 경험이었다. 딸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알아차린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이 외로움이 단순히 나쁜 것만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다가와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였다. 미움과 원망, 그리고 극단적인 시도 끝에 찾아온 나의 깨달음은 나 자신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고통의 고리를 끊어낼 용기를 주었다.

앞으로 딸에게 외롭지 않도록 아낌없이 사랑해 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아픈 대물림을 끊어내려 한다. 딸은 이제 나와 대화할 수 있다. 솔직한 대화는 우리 모녀의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성장하는 길을 걷고 있다.

오랜 그림자

애플정환

늦은 오후에 집안엔 정적이 흘렀다. 남편은 회사에 출근했다. 아이들은 고등학생이라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을 돌다가 밤늦게야 돌아온다. 사십 대 중반의 나는 비로소 온전한 나만의 시간을 얻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자유가 아닌 우울함으로 다가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몸을 짓누르는 고독이 숨조차 쉬기 힘들게 만들었다. 텔레비전을 켜도, 음악을 들어도 공허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 견디다 못한 나는 결국 현관문을 나섰다. 한겨울의 차가운 밤공기가 폐 깊숙이 파고들었다. 내 마음의 허기진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미친 사람처럼 거리를 헤매며 달렸다.

‘이대로 죽어도 누구도 날 찾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비관적인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다. 나는 의지할 곳이라곤 남편 밖에 없었다. 밤늦도록 들어오지 않는 남편이 야속했다. 전화조차 받지 않는 무심함이 미웠다. 하지만 혹시라도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 싶어 주위 상가를 몇 바퀴씩 돌아보았다. 돌아오는 건 허탈감뿐이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남편은 왜 일찍 들어오지 않는 거야. 왜 내 전화를 받지 않는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남편에 대한 원망과 함께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는 내 모습이 참 담했다. 나를 이토록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만 같은 남편이 괴씸했다. 끝없는 슬픔에 잠겨 나는 비관적이었다. 한참을 헤매다 결국 쓸쓸히 집으로 돌아왔다. 불 꺼진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이 너무 싫었다. 다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춥고 다리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어왔다. 큰 거실이 편안함 대신 어둡고 차가운 느낌을 주었다. 나는 깊은 피로감에 지쳐 버렸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았다. 숨을 내쉬며 분노를 가라앉혔다. 놀랍게도 지금의 이 죽을 것 같은 우울함이 어린 시절 느꼈던 우울함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모님은 농사일을 하셨다. 큰딸인 나를 맡길 곳이 없어 바구니에 넣어 밭에 데려가셨다. 때로는 초가집 작은 방에 나를 두고 자물쇠로 잠그고 나가 늦은 저녁에야 돌아오셨다. 걸음마도 하지 못할 때였다. 나는 방 안에서 혼자 엉금엉금 기어다녔다. 높은 문지방을 손으로 짚고 간신히 일어나 벽에 기대어 밖을 바라보았

다. 마당 가장자리의 미루나무 세 그루와 펴프질하던 샘터, 작은 나무들과 꽃들,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보였다. 층층이 펼쳐진 밭과 논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동네 집들, 지저귀는 새들의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엄마를 기다렸다. 그러다 배고픔에 지쳐 잠이 들곤 했다. 어느 날은 엄마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밭에 가서서 그 풍경마저 볼 수가 없었다.

방 안은 온통 내가 싼 오줌과 똥으로 뒤덮여 있었다. 내 몸 구석구석, 심지어 입술에도 노란 똥이 묻어 있던 것이 기억난다. 배가 고파 똥을 먹기도 했다. 혼자 장난을 치다가 울다가 자다가를 반복했다. 내가 울고 있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소리를 내며 방문 밖에서 내게 다가왔다. 나는 귀를 기울여 그들의 말소리를 조용히 들었다. 울음을 그쳤다. 하지만 그들의 말소리가 끊어지고 다시 발소리를 내며 돌아가려 하면 나는 사정없이 엉엉 울어댔다.

‘가지 마세요. 저와 놀아주세요. 제발 놀아주세요. 저에게 말을 걸어 주세요.’

속으로 외치며 더 크게 울부짖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더라면 동네 언니들이라도 나를 한 번쯤 안아주었을 것이다. 같은 동네에 살던 친할머니와 막내 고모도 과자를 사 들고 오셨다가 속상해하며 돌아가셨다고 한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잠에서 깬는데 누군가 내 머리를 아프게 짓누르고 있었다. 통증이 심해 머리를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부족해 빠져나올 수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방 안에 놓인 재봉틀 발판에 내 머리가 딱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혼자 안간힘을 쓰며 평평 울기만 했다. 팔다리를 움직여 빼보려 했지만, 머리는 더 아팠다.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만 같았다.

그때 느낀 불안과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온몸에 대한 화가 치밀었다. 이러다 금방 죽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다. 제대로 숨이 쉬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다. 한참 동안 발버둥 치다가 기진맥진해져 또 잠이 들었다.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다. 아랫집 할머니가 나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두 시간 동안 계속되자 나중에는 달려오셨다고 한다.

그 어릴 적에 터질 것 같았던 심장 박동 소리와 결혼 후 남편이 늦게 들어와 함께하지 못했을 때의 심장 박동 소리가 똑같았다. 숨 막히는 느낌, 짜증, 애타는 허전함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나의 증상은 바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방 안에 혼자 남겨진다는 것은 나에게 정말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었다.

나는 이제 알았다. 내가 왜 그렇게 혼자 있는 것을 싫어했는지,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왜 그토록 공허함을 느꼈는지를. 깨달음의 순간

내 어린 시절의 모습이 불쌍해 눈물이 줄줄 흘렀다. 단순히 남편의 부재 때문에 우울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안에 깊숙이 박힌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상황에 의해 다시 터져 나온 것이었다.

내 눈물은 과거의 나를 위로해 주었다. 현재의 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있다는 사실을 죽음과 동일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남편에게 기대는 것에서 벗어날 것이다.

가을이 오면 너도 온다

애플정환

아... 가을이다. 나에겐 그리움의 계절이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마흔셋의 나이에 떠난 사촌 동생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른다. 차가운 응급실 침대 위에서 힘겹게 숨을 쉬던 모습과 통통 부어터질 듯하던 발이 떠오른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안부를 물으며 평범한 일상을 나누던 동생과의 갑작스런 이별은 받아들이기 힘든 슬픔을 남겼다. 몇 년 동안 불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동생이었다. 산부인과를 전전하고 여러 번 인공수정을 시도하면서도 동생은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언니, 언젠가는 나도 엄마가 되겠지...”

애써 웃던 그 얼굴이 여전히 눈에 선하다. 씩씩하게 잘 이겨내던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뻐는지 모른다. 13년 만에 기적처럼 이란성 쌍둥이를 얻었을 때 우리는 모두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행복이 드디어 동생에게 찾아왔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심장에 구멍이 난 채 태어난 아들이 석 달 만에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다. 작은 몸으로 힘겹게 싸우던 아들을 떠나보냈다. 동생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 애썼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아이를 향한 그리움이 동생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어쩌면 동생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아들을 만나러 그리 서둘러 떠난 것인지도 모르겠다.

“동생이 쓰러졌대. 잠을 자다 움직임이 없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대.”

뇌경색이라는 말에 전화기를 낀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있는 동생을 보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곁을 지키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제발 눈을 떠 달라고,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다고 속으로 외쳤다. 하지만 동생은 끝내 차가운 가을바람이 부는 날 그리운 아들을 만나러 멀리 떠났다.

장례식장은 숨 막히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큰엄마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셨다. 사촌 언니와 동생들도 눈이 툭툭 붓도록 울고 또 울었다. 친척들 모두 숨죽여 눈시울을 붉혔다. 아무도 감히 소리 내어 울지 못했다. 멍멍한 슬픔만이 우리를 짓눌렀다. 환하게 웃고 있는 영정 사진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살아 있을

때 더 많이 안아주고 사랑해 줄 걸, 후회와 빛진 마음이 밀려왔다.

동생과 나는 각별한 사이였다. 유머가 넘치고 잘 웃었던 동생과 나는 비슷한 가치관을 따르고 있어 한 시간씩 통화를 해도 할 말이 끊이지 않았다. 뇌경색의 원인이 어릴 적 호두나무에서 떨어졌던 일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 그 아픔을 홀로 감내했을 동생의 어린 시절이 떠올라 마음이 더 아팠다.

우리 큰아이가 두 살이었을 때 내가 심한 생리통으로 이틀 내내 꼼짝 못 하고 누워 있던 적이 있었다. 그때 동생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한걸음에 달려와 서툰 솜씨로 아이들 밥을 먹여 주었다. 설거지와 집안일도 도맡아 해 주었다.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아픈 줄도 모를 만큼 고마웠다. 말없이 챙겨주던 그 따뜻한 마음은 아직도 내 가슴 밑바닥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찬 바람이 불고 동생의 기일이 다가올 때마다 동생 생각이 더욱 깊어진다. 동생 없는 가을은 여전히 시리고 춥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동생은 하늘에서 사랑하는 아들과 따뜻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것이다. 언젠가 나도 동생 손을 잡고 온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이 그리움은 내 가슴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동생이 남기고 간 사랑의 흔적들을 소중히 간직할 것이다. 살아

생전의 모습, 환한 미소, 목소리, 따뜻한 마음 등 모든 것이 여전히 내 삶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 동생의 흔적은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매년 가을이 오면 이 그리움을 안고 동생을 떠올릴 것이다. 동생을 떠나보낸 뒤 나는 삶의 많은 것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



얼썩

얼썩, 얼쓰!
신명 나게 지구(Earth)인으로 살아가는
얼썩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겪는 부침에 자신감을 잃지 않고
괜찮아, 좋아! 하면서 일을 어그러뜨리는 방향이 아닌
세우는 쪽으로 길을 잡고 마무리할 때까지
쪽 이어 올 수 있었던 힘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무수히 받아 온 관심과 사랑의 영향이라 자신할 수 있다.”

아이를 키운 마을

얼썬

딸아이는 방글방글 잘 웃었다. 눈앞의 상대에게 한쪽 눈을 찡긋 하며 윙크할 때는 백이면 백 다 요란한 감탄사가 나오곤 했다. 매일 만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들, 아저씨들, 언니와 오빠들에게 우렁찬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 92세대가 사는 빌라에서 모르는 이가 거의 없었다. 평일 오후 트럭에 채소와 과일을 가득 싣고 오는 아저씨는 일의 특성상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하시기에 다양한 간식으로 허기를 달래셨는데, 아이의 인사와 윙크에 환하게 웃으며 간식을 나눠주셨고 과일을 사든, 채소를 사든 늘 덤을 주시곤 했다.

이제 곧잘 걷네, 이가 다 났네, 머리를 어찌 그리 예쁘게 묶었나, 엄마가 해줬나? 벌써 초등학교에 간다고? 저 피부 하얀 것 좀 보소, 이제 아가씨가 다 되었네, 엄마 똑 닮았네. 뒤에서 보면 엄마랑 딸이랑 자매 같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는 지금까지 마을의 누군가는 딸아이의 성장 과정을 감탄하

며 지켜보고 응원해 주고 있다. 무려 24년째, 현재진행형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귀한 문장을 알지 못하고 초보 엄마가 되었는데, 딸아이를 낳고, 아이의 스물세 번째 생일을 넘긴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겪는 부침에 자신감을 잃지 않고 괜찮아, 좋아! 하면서 일을 어그러뜨리는 방향이 아닌 세우는 쪽으로 길을 잡고 마무리할 때까지 쪽 이어 올 수 있었던 힘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무수히 받아 온 관심과 사랑의 영향이라 자신할 수 있다.

나 역시 빌라에서 오가며 보이는 아이들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이름을 불러주고, 아이의 성장 과정에 맞춰 응원해 준다. 어린 시절부터 살갑게 웃으며 “이모, 이모”하고 따르던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진학하고 서른이 훌쩍 넘어 몇 년에 한번 만나도 반가운 웃음을 눈꼬리에 매단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수시로 한다.

결혼 후 첫 번째 집을 사는데 아파트가 아닌 빌라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지인들은 한결같이 “빌라는 구입하면 값이 계속 하락한다. 조금 더 무리해서 아파트를 사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온통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하늘을 보기 어려운 아파트는 도무지 정이 가지 않았다. 금전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이 더 값지

다는 데 이견이 없었던 우리 부부는 고민하지 않고 지금의 빌라를 선택했다.

야트막한 산이 있어 온갖 벌레가 들끓으며, 층간소음도 이루 말할 수 없고, 문외한인 내가 설계를 했더라도 집의 구조가 이보다는 나았겠다고 할 만큼 쓰임새가 안 좋았다. 한겨울에 오랜 시간 환기를 해도 곰팡이가 사방 벽을 점령하는 속도를 늦출 수 없는, 정말 하자가 많은 집인데도 이 모든 것을 상쇄할 만큼 이 빌라가 좋은 이유는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 반월의 능앞(陵前)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 때, 고만고만한 형편에도 서로의 필요를 채워 주는 데 인색함이 없었던, 그래서 어른이고 아이고 잘 어울려 살았던 시기를 종종 떠올렸다. 사방이 논과 밭인 곳이라 어린 나에게도 일감이 주어지고, 열심히 했을 때 보상을 넉넉히 해 주셨던 좋은 어른들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다.

쉬지 않고 움직여야 먹고살 수 있었던 그 시절, 마을의 큰아이들이 모여 놀이하면서 작은 아이를 돌보는 게 일상이었던 그곳에서 나 역시 때로는 돌봄을 받는 존재였다가 돌봄을 행하는 주체로 성장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버스를 탈 일이 없던 그 마을 안에는 돌과 흙, 물과 나무와 풀이 있어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놀이에 아이들의 상상이 더해져 사시사철이 즐거웠다.

중학교 1학년 겨울 시작 무렵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봄부터 가을까지 안집 주인 할아버지 밭에서 콩 농사를 거들었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몸을 아끼지 않으며 농사짓는 어른들 흥내를 곧잘 내던 내가 할아버지 눈에 어여삐 보였던지, 콩 한 더미를 수고 비라며 주셨다. 유난히 작고 말랐던 그 시절의 내 눈에 콩 더미가 작은 집채만큼 커 보였다. 아마도 노동에 대한 대가로는 처음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콩 더미를 앞에 두고 잠시 경건한 마음이 되었던 것도 같다.

엄마의 도움을 받아 커다란 멍석 위에 수확한 콩 더미를 올려놓고 도리깨로 콩을 털었다. 콩알 하나라도 멍석 밖으로 튀어 나갈 세라 매의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렇게 수확한 콩이 커다란 소쿠리 하나를 가득 채웠을 때,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라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았고, 노동의 즐거움 또한 또렷이 각인되었다. 그 귀한 콩이 담긴 소쿠리를 단칸방에 모셔두고 학교를 다녀온 사이, 집이 홀라당 타버렸다. 나의 귀한 콩도 소쿠리째 타버렸다. 내가 집에 갔을 때는 벽장 안의 이불 말고는 우리 집에 남아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었다. 재가 된 그것들은 마을 어른들이 모두 쓸어버려, 콩이 탄 잔해조차 만져보지 못했다.

“아, 씨!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네.”

그건 그냥 콩이 아니었다.

열네댓 가구 정도의 작은 마을에서는 세간을 털어 우리 집 단칸 방을 채워 주셨다. 나쁜 일은 왜 한꺼번에 오는 걸까? 그해 겨울, 텃밭에 묻어둔 겨울 양식인 김장을 모두 도둑맞았다. 이때도 마을 안에서 서로 김장을 나눠 주어 그 춥고 긴 겨울을 날 수 있었다.

결혼이나 생신 잔치, 초상이 나면 마을의 누구도 빠지지 않고 가서 음식을 만들고 상을 나르던 그때, 한바탕 신나게 놀다 엄마 얼굴 한 번 보러 가면 입안에 쓱 넣어주던 뜨끈한 전이, 늦둥이 막내의 기저귀며 옷가지를 빨던 냇가 돌다리 위에서 동네 아이들 머리카락을 헤집으며 이를 잡아주던 기억이, 개구진 아이들이 물뱀을 잡아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며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 악을 쓰며 쫓았던 일, 논두렁 가득 곱게 피어난 제비꽃을 꺾어 귀한 야쿠르트 병에 꽂아 교무실 안 좋아하는 선생님 책상 위에 올려놓던 일, 엄마 따라 뒷산에서 개암과 밤, 칩을 캐어 또래 여자아이들과 겨우내 턱이 빠져라 씹어 대던 일들이 어제 일처럼 선하다.

야트막한 산자락 아래 서 있는 빌라에서 태어날 아이가 내가 경험한 마을의 정서를 느끼면서 자랐길 바랐다. 그래서 ‘사 놓으면 무조건 값이 오른다’는 아파트는 도무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2002년 3월 31일, 빌라로 이사 온 첫날이었다. 보일러가 고장 나 있었다. 정리할 짐은 많은데 춥고 배가 고팠던 그때, 임신 6개월 차라 배가 한창 불러 있었던 나를 안쓰럽게 여긴 옆집 할머니가 뜨끈한 만두를 내어주셨다. 아직 인사도 나누지 못한 사이였는데, 따뜻한 만두 세 개는 그날의 추위를 단숨에 녹였다.

며칠 지나지 않아 평생의 롤모델이 된 3층의 영옥 언니를, 그리고 그 언니와 친하게 지내던 마을의 언니, 친구, 동생들을 차례로 만났다. 살림과 육아에 대한 선배들의 경험담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나는 어느새 마을의 한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녹아 들었다.

아이를 낳고 시부모님이 같은 빌라로 이사 오신 후에는 한겨울의 빙판길이 두려워졌다. 혹시 아이나 시부모님이 다칠까 봐 눈이 오면 가장 먼저 비를 들고 나갔고, 산 그림자 때문에 응달이 많은 곳은 호미와 망치로 얼음을 깨며 다녔다. 이런 내 모습을 본 이웃들이 “봉사를 잘하니 통장을 맡아보라”라고 권했다. 누구를 보든 먼저 인사하던 나는, 통장이 된 후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웅알이하는 아기부터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까지, 이제는 모르는 이가 거의 없을 만큼 마을 안의 ‘마당발’이 되었다.

자라는 딸아이에게도 마을의 따뜻한 정서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 친한 지인들과 함께 ‘친환경 나눔 장터’를 열었다. 마을 쉼터에 돛 자리를 펴고, 사용하지 않는 깨끗한 물건을 사고팔았다. 수익금의 절반은 도움이 필요한 단체에 기부했다. 몇 해를 이어가자, 동네 아이들이 장터를 기다렸는지 “장터 며칠 남았어요?” 하고 물으며 나를 즐겼고, 아이들과 함께 포스터를 만들어 빌라 곳곳에 붙였다. 이웃 빌라의 친구들도 참여하면서 어느새 50명이 넘는 큰 행사가 되었다. 어느 해에는 장터를 앞두고 낙엽이 수북이 쌓인 쉼터를 동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청소했다. 참가자가 아니라 주체자로서 스스로 할 일을 찾아 나서는 그 모습에 깊이 감동하였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고잔동에서는 84명의 아이들이 별이 되었다. 내가 사는 빌라에서도 수현이와 슬기가 우리 곁을 떠나갔다. 참사 초기부터 무수한 거짓말과 오보로 인해 크나큰 상처를 입은 이웃들에게 소금을 뿌리는 이들이 많았다. 이웃이라면 거짓말, 오보를 생각 없이 전파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아보고 배워가며 선한 빅마우스가 되자는 뜻을 같이한 이들과 함께 ‘역사동아리’를 만들었다. 함께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였다.

마을 행사를 할 때면 4.16 부스를 만들어 유가족을 초청해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해마다 주기가 돌아오면 마을 단독방에 별이 된 수현이와 슬기를 기억할 수 있게 알렸다. 동네 아이들과 ‘기억 챌린지’를 만들기도 하고, 역사동아리에 참가한 이웃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청소년 환경 봉사단’을 만들어 6년간 진행하기도 했다.

그 안에서 딸아이도 때론 행사 참가자로, 진행자로, 봉사자로 활동했다. 아이는 여전히 인사 잘하고, 새를 좋아하며, 작은 풀꽃에도 눈을 멈춘다. 직접 어여쁜 화관을 만들어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한다. 먼 거리를 오가며 학업을 이어가면서도 기차나 전철에서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마을 안 돌봄 공동체에서 받은 혜택이 자연스럽게 아이의 삶에 스며든 것이다.

요즘은 딸아이를 예뻐해 주시던 이웃들이 아이 나이만큼 더 나이를 드셨다. 얼굴 볼 때마다 “더위에 탈은 나지 않으셨어요?”, “결혼한 손주는 잘 지내나요?”, “대장암 치료는 이제 끝나셨어요?” 하고 안부를 묻는다. 내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작지만, 마음을 담아 전한다.

서로서로 따뜻하게 바라보고, ‘말 한마디’의 관심으로 돌보는 이웃이 함께하는 빌라에서의 지난 세월을 돌아본다. 어린 시절 마을에서 경험한 공동체의 힘이 지금의 삶을 단단히 지탱해 주었

듯, 이 빌라에서의 일상 또한 앞으로의 날들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받쳐줄 것이라 믿는다.



이영경

성찰하는 청개구리
사과 대추 농사를 짓고 있고
건강한 먹거리와
친환경 농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이 순간도
언젠가는 추억의 한 장면이 되어 있겠죠?”

엄마의 미소

이영경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네요.

그 웃음을 따라가니 유아차에 아기가 앉아 있어요.

엄마의 그 미소가 너무나 소중한고 예뻐서 내 마음도 환해져요. 소녀처럼 해맑은 웃음, 지금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처음으로 아기를 낳고 기르며 안아보던 젊은 시절의 기억일까요? 자식들과 두런두런 맛난 음식을 먹으며 하하 호호 행복했던 기억일까요?

엄마 나이 아흔 살. 다섯 해 전 평생 함께 살아오신 다정한 남편을 떠나보내고 뇌졸중과 치매,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말수도 줄고 멍한 상태로 계시는 날이 많아졌어요. 이젠 아기가 된 엄마를 자식들이 돌아가며 돌봐드리며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가끔 젊은 시절 사진을 볼 때나 아기와 마주칠 때 엄마는 꼭 그때처럼 환하게 웃으시네요.

엄마는 지금 어느 행복했던 날에 머무르고 계실까요? 엄마의 그 미소를 지켜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내가 웃으면 따라 웃으실까 싶어 일부러 웃는 연습을 하곤 합니다.

어릴 적 기억 속의 엄마는 잘 웃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울해 보였고, 힘겹고 지친 얼굴로 화를 잘 내곤 했어요. 아마도 시집살이에 5남매 뒷바라지, 하루 종일 농사일에 힘겨웠을 테지요. 나는 어릴 때 다정하고 상냥한 친구 엄마가 참 부러웠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어른들을 보며 ‘저분이 우리 엄마였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결혼하고 나서는 다정하고 인자하신 시어머니를 엄마로 둔 남편을 시샘하기도 했으니까요.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얼마나 재미있었으면 시어머니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겠어요. 내 얘기에 귀 기울이고 웃어주고 칭찬해 주시면 충만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5남매 중 셋째 딸인 나는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존재였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나는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엄마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런 엄마를 바라보는 내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몇 년 전, ‘자기 돌아보기’ 프로그램에 엄마와 함께 참여했을 때였어요. 처음엔 별 기대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그 시간은 내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어요. 엄마를 미워하고 원

망했던 내 모습과 내가 몰랐던 엄마의 입장이 돌아봐졌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 5남매를 최선을 다해 키워주셨다는 것을 가슴 깊이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 후 엄마와 대화가 많아지고,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엄마의 어린 적 별명이 ‘해보’였대요. 너무 잘 웃어서 동네 사람들과 친구들이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런 엄마가 부모님의 권유로 결혼하고 가부장적인 시대에 시집간 뒤 달라졌대요. 내리 딸 넷을 낳은 뒤 아들을 못 낳았다는 무시와 질책으로 엄마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고, “결혼 전 맑은 물에 살던 물고기가 결혼 후 시궁창 물에 빠진 물고기 신세 같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 힘들어 웃음을 잃어버렸다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처음으로 엄마의 어린 시절과 청춘을 상상해 봤어요. 어린 시절 사랑받고 해맑게 살다가 꿈 많던 20대에 부모 품을 떠나 농촌으로 시집가서 농사짓고 시부모를 모시는 일도 힘들었을 텐데, 본인이 낳은 아이가 딸이라고 무시당하고 부정되었을 때 얼마나 비참하셨을까요? 우리 엄마는 자의식이 강하신 분이데... 엄마의 마음이 느껴져서 멍멍해졌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엄마가 원래는 밝은 분이셨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엄마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
엄마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치매로 기억도 희미해지고 말
수도 줄었지만,

“배고프지. 어여 밥 먹어라.”

라는 말은 잊지 않고 하세요. 그 한마디로 충분하고, 엄마의 따듯
한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엄마와 함께하는 이 순간도 언젠가는
추억의 한 장면이 되어 있겠지요?

“엄마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이혜우

평등과 존중이 스며든 세상을 꿈꾸며
젠더기반 폭력 예방 교육을 하며
따뜻한 관계 맺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마음에서
세상을 바꾸는 힘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함께 살아갈 이들을 오래도록 지탱하기 위한
가장 단단한 기초다.”

그러다 큰일 나!

이해우

나는 성평등을 이야기하며 사람들과 변화를 꿈꾸는 10년 차 강사다. 이야기는 훨씬 오래전, 가족의 풍경에서 시작된다. 흔히 말하는 ‘딸 부잣집’의 넷째로 태어났다. 바로 아래에는 나보다 5분 34초 늦게 세상에 나온 쌍둥이 남동생이 있다. 그는 오랜 기다림 끝에 태어난 아들이자 집안의 장손으로, 기침 한 번에도 온 가족의 시선과 걱정이 한꺼번에 쏟아질 만큼 모두의 사랑과 기대가 집중된 존재였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늘 병원을 드나들어야 했고, 자연스럽게 가족의 시선과 관심은 더욱 그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자연스레 내가 누나이자 보호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동생이 울면 가장 먼저 달려 주었고, 숨이 가쁘게 차오를 때는 입술빛이 평소와 달라지는 것을 눈치채고는 겁이 나서 다급히 어른을 부르러 뛰었다. 또래 아이들처럼 마음껏 뛰놀기보다는 동생 곁을 지켜보며 살피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어린 시절 나는 또래보다 훨씬 일찍 ‘돌봄’의 무게를 배우고 감당해야 했다. 그것은 따뜻한 미소보다 조심스러운 긴장감과 책임의 감각으로

더 깊이 각인되었다. 그 경험은 나를 일찍 성숙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내 어린 시절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성장하도록 만든 시간이기도 했다.

그 책임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뒤에야 비로소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몸에 밴 돌봄의 습관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다.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살피는 것이 마음 편했고, 그 과정에서 나의 피로와 아픔은 자연스레 뒤로 밀렸다.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동안 내 몸과 마음의 상태에는 점점 무감해졌다. 세월이 흐르고 보니 어느새 선셋, 남을 보살피는 일에는 능숙해졌지만 정작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은 배우지 못한 채였다. 흔들리고, 때로는 부서질 듯 위태로 우면서도 나는 그렇게 나라는 존재를 완성해 가고 있었다.

하루가 지날수록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그림자처럼 나를 뒤쫓았다. 작은 실수조차 허락하지 않으려 애쓰며, 몸이 지치고 고단해도 그것을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였다.

‘오늘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밤을 새워서라도 끝내야겠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바꿔 볼까? 아니면 다른 자료로 대체할까?’

끝없는 자기 검열과 수정의 반복 속에서 나는 자신을 한없이 몰아붙였다. 돌봄은 언제나 나의 바깥을 향해 있었고, 정작 내 안을

향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가끔 주변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쉬어가면서 하세요.”라며 걱정을 건넸다. 가까이에서 나의 일상을 지켜본 청년 동거인은 걱정을 잔소리처럼 쏟아냈다.

“엄마, 병원은 치료받는 곳이지 부활하러 가는 곳이 아니야. 제발 병원 좀 가!”

그러는 사이, 나의 몸과 마음이 누가 보아도 심상치 않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굳이 자세히 살피지 않아도 자기들봄이 부족한 나의 몸과 마음의 상황을 알아차렸다. 걱정스러운 기색으로 말을 건넸다. 그런 목소리가 어느 순간 부터는 끊임없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샘, 그러다 큰일 나요!”

그럴 때마다 나는 변명하듯 자신을 감싸는 말을 내뱉었다.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요. 오늘 집에 가서 푹 자면 괜찮아질 거예요.”

마치 그렇게 말하면 모든 것이 금세 나아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위안은 그저 순간을 모면하려는 핑계에 불과했다.

작년 무더위가 물러가고, 서늘한 찬바람이 반가웠던 어느 날이었다. 오랜만에 맞이한 여유로운 아침, 오늘은 안온한 하루가 될 것 같다는 기대에 따뜻한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다. 그 설렘 덕분에 미소가 저절로 번졌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순식간에 앞이 흐릿해지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 몰려왔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 침대 위였다. 주변 풍경은 흐릿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할 겨를도 없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친 것은 내 몸의 상태보다도, 미처 끝내지 못한 일과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었다.

‘뭐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몇 시지? 강의는?’ 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동안에도 나는 약속된 강의를 조정하느라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의사는 단호히 말했다.

“만성 과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해 드릴 테니 치료를 꼭 받으세요.”

그 후 나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비로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 가기 시작했다. 그제야 나는 오래도록 외면해 온 돌봄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과 마주할 수 있었다.

일방적 돌봄에서 벗어나 남을 보살피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 지금의 나는 더 늦기 전에 나를 챙기는 것을 잊지 않으려 한다. 늦은 밤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며 마음을 지키기 위한 휴식을 스스로 허락하려 한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나날과 함께 살아갈 이들을 오래도록 지탱하기 위한 가장 단단한 기초다. 돌봄은 긴장과 책임, 그리고 따뜻함이 함께 어우러지는 관계의 언어다. 이제 그 언어를 남에게 건네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속삭인다. 거울 앞에서, 현관을 나서며, 운전하는 길 위에서도 조용히 묻는다.

“괜찮니? 지금 마음은 잘 돌보고 있니?”

그 물음으로 하루를 지탱한다. 작은 대화는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고, 세상을 향해 다시 따뜻한 돌봄을 건넬 힘이 되어 조용히 하루를 채워 나간다.



장혜
문장혜

청소년 시절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했습니다.
디자인 전문지에서 취재 및 번역 기자로 일했습니다.
30년 동안 영어 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청소년 독서교육에 힘쓰며,
경기도 월곶동 청소년 지도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던
돌봄 문제를 드러내서
이야기하고 함께 글을 쓰면서
숨통이 조금 트이는 느낌입니다.”

엄마

장해 문장혜

나는 엄마다.

딸이 나를 엄마라 부르고,

젖을 먹이고 교육하여 반듯한 여성으로 키웠으니

나는 엄마다.

나에게도 엄마가 있다.

나를 먹이고 사랑으로 교육해 준 엄마가 있다.

나의 엄마는

다섯 딸 중 둘째로 태어나

동생들과 어머니를 부양했다.

말년에 할머니는 치매에 걸려

똥싼 기저귀를 갈아 내며

힘든 엄마는 악을 썼다.

나는 가끔 할머니를 보니 불쌍해서,

엄마에게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는 그 모든 일을 묵묵히 혼자서 해냈는데 말이다.

나는 엄마이면서 딸이다.
다시 나이 든 엄마를 챙기고 돌본다.
병원에 같이 가고, 생필품을 사다 드리고, 함께 밥을 먹는다.

내 딸은 가끔 할머니를 보니 담담해서,
나에게 너무 할머니만 챙기지 말고 자신을 돌보라 한다.

엄마를 챙기고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일,
나도 이 모든 일을 묵묵히 혼자서 해내야 할까?

나는 배운다.
돌봄의 어려움을 소통하며 사람을 만나 마음을 나눈다.

나는 글을 쓴다.
글로 내 인생을 꼭 껴안는다.
내가 쓰는 글이 나를 돌본다.

(김혜순의 '엄마'로 쓴 모방시)

엄마를 돌보다, 나를 돌아보다

장해 문장혜

“그놈의 늙은이 생각만 해도 내가 치가 떨려!”

구십인 노모가 시도 때도 없이 미워하는 이는 나의 외할머니, 엄마의 친정어머니다.

“어린 내가 방직 공장 끝나고 야학에 다녀왔는데, 그이가 내 책을 다 꺼내서 내팽개치더라. 그깟 공부는 뭐하러 하냐고. 일찍 들어와서 집안일이나 하라고.”

엄마가 가장 분개하는 대목이다. 할머니가 공부를 못 하게 했다는 것. 남들은 어떻게든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공부시켰는데, 할머니는 무능하고 무식하고 사나웠다는 것. 70년도 더 지난 일인데 마치 어제 있었던 일인 양 분해서 어쩔 줄 모르며 화를 낸다.

“내가 공부를 했으면 똑똑해서 국무총리는 됐을 거야.”

엄마의 꿈이 이렇게 당차고 컸는지 나는 미처 몰랐다.

나의 엄마 은자 씨.

나의 엄마 은자 씨는 1935년 일제강점기에 태어났다. 딸만 다섯 중 둘째인 엄마는 몸이 약해 일본 학교의 체력 검사에 번번이 떨어

어졌다. 뒤늦게 학교에 들어갔지만, 열세 살 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학업을 계속하지 못했다. 글자도 숫자도 모르는 할머니와 어린 이모들을 부양하기 위해 큰이모와 엄마는 학교 대신 방직 공장에 나가야 했다.

다행히 그 시절에는 정규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야학이 성행했다. 엄마는 제대로 배워 잘 살고 싶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에 공부하러 다녔다.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는 구호가 엄마에게는 희망처럼 들렸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 희망마저 매몰차게 뭉갰다.

‘맑은 시냇가에서 고기 잡는 소년들, 일할 때 일하고 배울 때 배우세. 푸른 언덕 위에서 나물 캐는 소녀들, 일할 때 일하고 배울 때 배우세.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문자보급가’를 흥얼거리며 명랑했던 엄마가 돌아가신 외할머니 욕을 하며 분개하는 날이 많아졌다. 구십이 넘어가면서 부쩍 더 그런 것 같다. 나이가 들어 몸이 힘드니 짜증이 나서일까? 살아온 날들이 억울하고 분해서일까? 자식에게 신세 지기 싫었는데 요즘 나에게 의지하는 게 미안해서일까? 엄마는 할머니와 다른데, 자식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세상에 자기 환갑 차린다고 잔치 벌여놓고, 오는 친정 식구대로

닭 한 마리씩 잡아주라고 했다, 그이가.” 그런데도 딸 다섯 중 할머니를 모신 사람은 엄마였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아들이 없던 할머니는 엄마가 늦둥이 아들을 낳자 더 없이 기뻐했다. 어릴 때는 남동생만 끼고도는 할머니가 미웠지만, 그래도 할머니와 오랜 세월 한집에서 잘 지냈다. 결혼해 집을 떠난 후에는 할머니를 돌보는 엄마의 수고를 알지 못했다. 엄마가 그리 힘든 세월을 살았는지도 몰랐다. 어릴 때부터 고생하고, 중년에는 노망 난 친정엄마와 심장병이 있는 남편을 모두 돌보아야 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엄마 집에 가면 늘 켜져 있던 TV가 어느 날 꺼져 있었다. 더워서 안 보는가 보다고 생각했다. 얘기를 하다 보니 눈앞에 거뭇한 둥근 것이 있다고 하셨다. 8년 전에도 자꾸 엉뚱한 버스를 타서 검사해 보니 백내장이 심했다. 부랴부랴 수술하고 나서야 또렷이 잘 보인다고, 진작 병원에 갈 걸 그랬다고 엄마는 말했었다.

바로 시간을 내서 엄마가 수술했던 안과에 갔다. 검사 후 의사는 왼쪽 눈에 황반 변성이 의심된다고 대학병원에 가 보라고 소견서를 써 주었다. 실명할 수도 있으니 빨리 가라고 당부해 바로 예약했지만 두 달 뒤에야 날짜가 잡혔다. ‘실명’이라는 단어가 무섭게 다가왔다. 치매나 골절을 늘 염려했는데 실명은 생각지도 못한 노후의 복병이었다.

“우리 딸 없었으면 나 혼자 어떻게 병원에 다녔을까? 고맙고 미안해.”
엄마는 병원에 갈 때마다 미안해했다. 할머니처럼 자식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안간힘을 쓰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했다.

“엄마 덕분에 나도 안과 와서 검사 잘 받았네. 감사해요.”

지난 건강검진 때 왼쪽 눈이 잘 안 보였다. 시력차가 커서 놀랐지만 따로 시간을 내 병원에 갈 생각을 못했다. 엄마와 함께 안과에 간 김에 나도 검사를 받았는데, 이미 백내장이 시작됐다고 한다. 네 달간 먹을 약을 처방받고 정밀검사를 예약했다.

나를 돌아보다.

나의 몸도 차근차근 노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백내장이 엄마보다 훨씬 빨리 왔다. 황반 변성도 50대에 조심해야 할 질병 중 하나라고 한다. 그동안 엄마 병원을 따라다니며 얻은 경험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내는 일이 엄마와 더불어 나에게도 중요하다.

최근 엄마를 돌보는 일이 많이 힘들었다. 갑작스레 할머니 욕을 시작한 엄마가 싫고 당황스러웠다. 울분을 토하며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엄마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닌지 두려웠다. 초점을 잃어 희미해진 엄마의 눈동자를 보면 가슴이 답답했고, 살이 늘어진 팔다리를 주무르다 울컥 눈물이 났다. 죽음을 앞둔 엄마를 돌

보는 일이 자꾸만 허망하고 우울했다.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한 엄마는 온몸이 통증으로 시달리며 이제는 그만 살고 싶다고 했다. 살 만큼 살았다고, 병원에 다니는 것조차 욕심을 내는 것 같다고 눈치를 보셨다. 약도 더 이상 먹지 않겠다고 아이처럼 투정을 부리기도 했다. 점점 더 죽음에 가까워지는 엄마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몰라 하루하루가 무섭고 혼란스러웠다.

돌봄 글쓰기를 하며 완경에 관한 책을 읽었다. 완경기의 호르몬 변화는 여성을 좀 더 지혜롭고 당당하게 만든다고 한다. 엄마도 나도 무력하고 나약한 미래만 남은 것은 아니다. 당황스럽고 두려웠던 미래가 조금은 희망적으로 다가온다. 이제는 구순의 엄마가 할머니를 막 욕하고 성질을 내도 걱정이 안 된다. 오히려 켜켜이 쌓인 응어리가 다 풀리도록 엄마를 응원한다.

나의 엄마 은자 씨는 할머니와 다르게 최선을 다해 자식들을 가르쳤고 사랑으로 키웠다. 엄마의 딸로 태어나서 나는 참 행복했고, 여전히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하다. 최근에는 엄마가 “살면서 요즘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신다. 엄마와 보내는 이 시간이 내게도 더없이 소중한다. 엄마를 돌보고 나를 돌아보며,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내고 싶다.

숨통 트이는 돌봄 글쓰기(5분 연설문)

장해 문장혜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돌봄은 90세 엄마와 보내는 시간입니다. 요즘은 엄마가 건강하셔서 하루에 한두 시간 점심을 같이 먹으며 이야기를 들어 드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언제 또 119 신세를 지며 다급한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느닷없이 입맛이 없다고 아이처럼 아무것도 안 드시고 밥투정하실 때도 있고, 모처럼 잘 드신다고 안심하면 또 며칠 설사를 하거나 변실금으로 하루에 몇 번씩 속옷을 갈아입기도 합니다.

요즘은 눈에 황반변성이 와서 TV도 못 보고 집안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계십니다. 혹시 혼자 밖에 나갔다 잘못 보고 넘어지실까 봐 걱정이 큼니다. 밤새 통증에 시달릴 때는 이제 그만 죽고 싶다는 말씀도 자꾸 하십니다. 엄마가 전화를 제때 안 받을 때나 엄마 집 문을 열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합니다. 여전히 엄마와 보내는 날들이 기쁘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불안함이 나를 우울하게 합니다.

예전부터 엄마는 절대로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다. 아직 정신도 맑고 혼자 식사도 하시고, 목욕도 스스로 하시니 그럴 단계는 아니지만 미리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엄마를 혼자 돌볼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얼마 전부터 딸아이에게 용돈을 주며 할머니와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식사하자고 했습니다. 셋이 차를 타고 드라이브하며 맛집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 지팡이를 짚거나 보행기를 밀어야 하는 엄마를 딸아이와 양쪽에서 붙드니 든든하고 좋습니다. 엄마도 저와 맨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보다 손녀와 또 다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인지 능력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예전에 알던 사람들을 그리워합니다.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이기에 더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돌봄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나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혼자 엄마를 돌봐야 해서 두렵고 힘들고 답답했는데, 무엇이 두렵고 왜 힘들고 답답한지를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개인주의보다는 ‘우리 근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혼자 풀기보다는 함께 해결해 나가는 민족성이 있다고도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던 돌봄 문제를 드러내

이야기하고 함께 글을 쓰면서 숨통이 조금 트이는 느낌입니다. 특히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돌봄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컬럼비아대학교 넬 나딩스 교수의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여성의 노동』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은 상냥하고 실제적인 돌봄 노동을 하도록, 그리고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중요시하도록 기대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상냥한 돌봄 노동자로 자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중요시하며 살았습니다.

돌봄 글쓰기를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누구보다 나 자신을 잘 돌봐야겠다는 필요를 깨닫습니다. 제가 쓰는 돌봄 글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누구보다 저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자신을 스스로 돌보겠습니다.



장하덕

8년 전 이혼당하지 않으려
페미니즘 공부를 시작했고,
희망과 좌절을 반복하며 계속 배우고 있다.



“나는 왜 나이 50이 넘도록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초1 중2 고1

정하덕

1970년 3월 시골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나는 작은누나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갔다. 4열 종대로 줄을 선 오십여 명 되는 꼬마들은 같이 온 학부모들에게 둘러싸인 채 긴장한 표정으로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선생님이 한 명씩 이름을 부르는데, ‘정하덕’ 내 이름이 들려 나도 모르게 ‘예’라고 크게 대답했다. 목소리가 유난히 컸나 보다. 선생님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씩씩하다고 칭찬했다. 동생이 선생한테 칭찬받는 모습이 좋았던지, 작은누나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랑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이후에 옛 추억을 나눌 때면 누나는 가끔 그 얘기를 꺼냈다. 내가 아니라 누나가 꺼내는 건 그 기억의 대부분이 누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덟 살 때의 일이라 희미하고 가물가물한데 열다섯 살이던 누나의 기억은 또렷이 살아있었다. 손아래 큰동생인 나를 지금도 특별하게 여기는 작은누나인데 그때는 얼마나 귀엽고 기특하게 보였을까?

나에게는 일곱 살 위인 작은누나 말고 아홉 살 위인 큰누나도 있

다. 어느 때부터인가 두 누나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멍멍해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기 누나를 생각하면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걸 방송인지 신문인지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게 계기가 된 것 같다. 누나가 동생인 자기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대학도 못 가고 취업해서 돈을 벌었다는 그 얘기 말이다. 그런 비슷한 얘기는 미담이라며 옛날부터 흔하게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달리 들리는 게 아닌가. 그즈음에 페미니즘을 시작했었고 그 덕에 여성 문제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좀 생겨서 그랬을 것이다.

열다섯 살의 작은누나가 까만 투피스에 하얀 카라의 여중생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학교에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그러나 가난한 집에서 엄마 아빠를 도와 농사일을 해야 했던 누나는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그날도 농사일로 바쁜 엄마 아빠를 대신하여 학부모 자격으로 동생 초등학교 입학식에 갔던 것이다.

열일곱 살의 큰누나가 까만 투피스에 하얀 카라의 여고생 교복을 입고 읍내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모습을 상상해 본다. 그러나 누나는 고등학교에 갈 수 없었다. 큰누나에게 가끔 들었던 얘기가 있다. 애는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니까 꼭 고등학교에 보내야 한다며 누나 중3 담임 선생이 우리 집에까지 와서 어

른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설득되었는데 할아버지가 한 사코 반대했다고 한다. 여자가 중학교만 해도 감지덕지하는 거지 무슨 고등학교까지 하느냐면서 말이다.

큰누나가 고등학교에 갔으면 우리 동네 최초로 고등학교 간 여자가 되었을 거다. 큰누나는 방송통신고등학교 강의를 듣고 싶어 했는데 그마저도 집에 라디오가 없어서 할 수 없었다. ‘방송 통신 강의록’이라는 책 표지가 생각난다. 책을 구하기는 했어도 엄마 아빠를 도와 농사일을 하다 보니 혼자 공부하는 게 어려웠단다. 누나는 4-H 운동이라는 농촌 청년 부흥 운동에 앞장서서 활동하고 표창도 받으면서 그 시절을 보냈다.

사춘기 두 누나는 엄마 아빠를 돕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집의 큰 노동력이었을 것이다. 가난하던 우리 집은 논도 늘고 밭도 늘면서 동네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잘사는 집이 되었다. 그 덕분에 아버지는 마산에 집을 한 채 사서 막내 고모네가 그 집에 살면서 관리하게 했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마산으로 전학을 가서 도시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아래 두 동생도 차례로 마산으로 전학을 가서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큰누나는 자형과 함께 장사하며 살았는데, 몇 년 전부터 장사를 그만두고 손자를 돌보고 있다. 작은누나는 오랫동안 의류매장에

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고 더 공부할 수 없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 누나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그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게 된다. 나는 왜 나이 50이 넘도록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사춘기의 누나들이 겪었을 그 좌절과 아픔을 말이다. 어른이 된 누나들이 그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이다. 내가 집에서, 동네에서, 사회에서 보고 배운 게 그런 문화였으니 그랬을 것이다. 그냥 좋은 누나로만 알았지 한 인간으로서의 누나들에 대해서는 무지했고 무관심했었다.

누나들과 이런 얘기를 편하게 나누고 싶은데 아직은 조심스럽다. 아마도 내 페미니즘 내공이 부족해서일 것이다. 깊이 감추어진 얘기들, 누나들 본인들도 잊고 지냈을 그 깊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면 나는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울고 웃으며 공감할 수 있을까? 모르는 얘기, 감추어진 얘기들을 나누고 싶다. 누나들도 나도 더 늙기 전에 말이다.

뜻밖의 선물

정하덕

“엄마, 잘 자. 내일 봐.”

“아이고 그래, 우리 아들 니도 잘 자그래이. 오늘도 고맙대이.”

94세 엄마와 62세 아들이 서로 밝게 웃으며 포옹하고 불을 부비며 굿나잇 인사를 나눈다.

“엄마, 잘 잤어? 학교 갈 시간이다.”

“그래, 머리만 좀 빗고.”

“엄마 예쁘다.”

“니 엄마 예쁘나? 니 엄마라서 니 눈에만 예쁘게 보이는 거다.”

“차에 앉아 있을게, 집에 올라가서 콩 가져와라.”

아침에 주간보호센터에 갈 때 콩을 심자고 말했던 걸 엄마는 잊지 않고 있었다.

“엄마 안 까먹었네. 기다리고 있어. 금방 가져올게.”

콩이 가득 든 컵을 받은 엄마는 주차장 화분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한 알 한 알 콩을 심는다.

지난달까지 서울 우리 집에 머물렀던 엄마와의 일상 몇 컷이다.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시골을 떠나 서울 우리 집과 창원 동생 집에서 3개월씩 지낸 지도 벌써 4년째 접어들었다. 갑작스럽게 닥친 일이라 한동안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돌봄 생활에 좀 익숙해졌다. 최근 석 달의 돌봄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생겼다.

매주 월요일 저녁, 416가족협의회 강당에 노래 연습하러 간다. 416합창단 베이스 파트 단원이라서다. 엄마 돌봄이 문제다. 주간 보호센터 돌봄이 종료된 시간이라 바쁜 수험생 딸에게 할머니 돌봄을 맡긴다. 합창 연습에 가면서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내일 아침 일찍 올 거야. 나 기다리지 말고 자.”

거짓말이다. 열두 시 전에 돌아오니까 말이다. 아직 안 오냐, 어디쯤 오냐, 언제 도착하냐, 자꾸 전화하고 손녀에게도 묻는 게 성가셔서 하는 거짓말이었다. 밤늦게 돌아왔더니 엄마는 자고 있었다.

나도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자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깨 보니 새벽 2시쯤이었다. 엄마 방에 가니 난장판이다. 온방에 이불과 옷가지와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엄마는 뭔가를 뒤적거리고 있었다. 어디에 찢었는지 이마에 피를 흘리면서 말이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밀양 가자. 마당에 고추 널어야 한다.”

나를 알아보기는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았다. 이마에 피를 닦고

연고를 발라주고 힘으로 제압해서 가만히 앉아 있게 했다. 방을 정리 정돈하고 이불을 다시 깔아 엄마를 자리에 눕혔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긴장된 마음으로 엄마 방에 갔다.

“엄마 잘 잤어?”

“잘 잤어. 우리 아들도 잘 잤나?”

“엄마 이마에 상처 난 거 봐.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

“무슨 일? 난 잘 잤는데. 이게 무슨 상처지?”

엄마는 지난밤의 소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렇게 지나가는 듯했다. 그런데 그다음 월요일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무섭고 긴장도 되었다. 치매가 왔나? 그 일 말고는 괜찮은데, 왜 그럴까? 추론해 보니 아들이 없이 잠든 밤이라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었다. 그다음 월요일 합창 연습하러 갈 때는 다르게 해 보았다.

“엄마, 나 열두 시 전에 돌아오니까 자버리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나 보고 나서 자라고.”

“그래그래, 내 안 잔다. 잘 갔다 온나.”

엄마는 안 자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따뜻하게 포옹하고 잘 자라는 인사를 했다. 다행히 그 후로는 밤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

다. 내 추측이 맞은 셈이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돌봄에 변화를 시도했다. 엄마와 대화하면서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 말이 많지 않은 편인 내가 말이다. 표정도 다양하고 풍부하게 표현하고, 엄마 맘을 알고자 노력했다. 감정에 둔한 내가 말이다. 손도 자주 잡고 포옹하는 등 스킨십도 많이 한다. 뽀뽀한 내가 말이다. 그래서일까 엄마도 좀 더 밝아지고 좋아하는 게 보였다.

이런 내가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놀라웠다. 내가 엄마를 돌본 것 같지만 실은 돌봄 받는 엄마가 나를 바꾸어 놓은 셈이었다. 정서적으로 좀 더 친밀해진 모자 관계, 새로운 나의 모습, 뜻밖의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기분이 좋다.



지혜연

어린이 책을 읽는 즐거움에 빠져 산 지 20년이 넘었다.
‘어린이도서연구회’ 그림책 강사,
애니어그램 심리상담사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꾼다.
글쓰기와 돌봄이 연결되는
작지만 강력한 빛을 느끼게 되었다.



“내 안에서 정리되지 않고 있던 많은 문장이
밖으로 나와서 필요 없는 것은 보내고 내 것만 남게 되는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
지금 나는 나를 돌보는 글쓰기 여행 중이다.”

가스 밸브를 잠그며

지혜연

엄마는

늘

가스렌지 주변과 화장실은
깨끗해야 한다고 했어

외출했다 돌아오면

두 곳을 먼저 살폈고

나는 엄마의 표정을 살폈지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나도

집으로 돌아오면

습관처럼

몸이 먼저 주방으로 가

씻을 그릇이 있는지,

가스렌지 주변은 깨끗한지

어질러져 있으면

인상 한번 쓰고 닦기 시작해

그리고 곧바로

저녁준비를 하게 되지

손은 벌써 가스 밸브를 열고,

눈은 냄비를 찾고

싱크대 안에 앉아 있는 냄비를 보며

‘나도 앉아 쉬고 싶은걸’

‘쉬면 되잖아’

내 안의 목소리가

손과 눈을 멈추게 했어.

피곤함이 내 안의 감정과 만나

제멋대로 춤추기 전에

힘들을 외면하고

몸이 계속 움직이기 전에

열었던 가스 밸브를 잠갔어.

*‘나 알아차림’이 돌봄의 시작이라는 생각에 나를 힘들게 하는
‘습관적 행동 멈춤’에 관한 시를 쓰게 되었다.

산토끼 집토끼

지해연

누가 “준비~ 땅” 신호를 준 것도 아닌데
결혼한 후
출발 신호음이 들린 듯
달리기 시작했다.

언제 쓸지 모를 자격증을 획득하고
아이들 어떻게 키울지, 무슨 책 보여줄지 앞서 찾아보고
발달에 따라 어떤 변화를 겪는지 심리 공부하다
몸과 마음이 연결됨을 알고 몸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돈 안 되는 일만 한다고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남편의 말을 들어도
의미 있는 일이면 즐기치게 하며
‘내 품위유지는 내가 해야지’ 딱 그만큼 돈을 벌었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
집토끼들 잘 돌보지 못할까 염려하며 던진

어머님 말씀에
잠깐 멈춰 생각해 봤다.
산토끼도 중요했고,
집토끼도 소중했다.
둘 다 놓치지 않을 또 다른 좁은 길을 찾아
다시 달렸다.

어느 순간 알았다.
잡으려는 건 무언가에 잡혀있음을

‘순간은 시간보다 강하다’

이제야 알겠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잡으려다
나를 놓치고 있었음을.

산토끼는 산에
집토끼는 집에
놓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두 팔 활짝 벌려 나를

안았다.

밤 12시에 만나요

지해연

“엄마, 나 상담 좀 받으면 안 될까?”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한 고3 딸이 학기 초 어느 날 불쑥 던진 말이다. 속 깊은 딸이라 쉽게 꺼낸 말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얼마나 힘들면 이런 얘기를 할까, 속으로는 충격이었다. 엄마가 상담사인데... 다른 사람들 돌보느라, 뒤늦게 새로운 공부를 하느라 미처 몰랐구나, 하는 자책도 올라왔다. 언젠가 주눅거리며 친구와 학원 관련 이야기 하던 딸의 모습, 하던 일 하면서 건성으로 들었던 내 모습이 떠올라 당황스럽기도 했다. 엄마에게는 말 못 할 일이 있나 보지.

“그래, 상담 받아.” 이유도 묻지 않고 바로 대답을 했다.

“엄마 아는 선생님 소개 시켜줄까?” 머릿속으로 다른 선생님을 떠올려 보며 물었다.

딸은 좋다고 했고, 시간을 내보기로 했다.

그런데 고3이다 보니 따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다. 주말에도 학원을 가고, 평일엔 야간자율학습을 해서 집에 오면 늦은 시간이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상태가 더 안 좋

을 것 같아 조심스럽게 딸에게 물어보았다.

“딸, 상담을 하려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시간이 필요하고,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엄마가 상담사로 아주 많이 부족하지만, 기본적으로 네 성격을 검사한 자료가 있고, 기질을 알고 있으니 내가 하면 어떨까? 하루 일정 다 마치고 잠자기 전 잠깐 만나면 따로 시간 내지 않아도 되고… 네가 괜찮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자신도 시간이 없음을 생각했는지 좋다고 대답했다.

“우리가 만나는 시간에는 철저하게 상담사와 내담자로 만나는 거야. 그리고 회기당 상담료는 너가 지불해야 돼.”

딸이 자신의 용돈에서 떼어줄 수 있는 쥐똥보다 적은 금액을 상담료의 명목으로 받기로 했다. 일종의 거리 두기를 위한 상징적 장치였다. 이렇게 우리는 합의하에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밤 12시에 만나기로 했다. 늦은 시간이니 만남의 시간은 30분으로 정했다.

첫날, 우선 20분 전인 11시 40분에 불을 끄고 딸을 침대에 눕게 했다. 자연치유대학원에서 배운 몸 교정과 간단한 두개천골 마사지로 가볍게 심신을 이완시켰다. 하루 종일 몸도 마음도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을까. 이 기회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다. 그동안 건성으로 들었는지 모를 몸과 마음의 사인을 이 시간에 온전히 만나주고 싶었다. 그리고 12시에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딸은 몸이 이완되고 긴장이 풀려서인지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했다.

밤 12시, 세상 어디에도 없을 한밤의 상담 시간이 진지하게 흐르고 있었다. 깜깜한 밤 오로지 말소리만 들렸다. 말은 문장이 되었고 문장은 여러 선으로 이어지고 연결되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더 입체적으로 상상하게 했다. 고3이 된 압박감,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그중 가장 힘든 것은 친구 관계였다.

어떤 날은 고민과 힘든 이야기를 들으며 역할 전환이 안 되어 ‘엄마의 말’이 튀어나올까 봐 마음속으로 ‘딸이 아니다’를 수없이 뇌이며 거리 두기를 해야 했다. 엄마로서는 이야기 속 친구들이 말할 수 없이 미웠고, 그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딸이 속상하고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나는 딸의 기질과 성격, 성향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딸이 아닌 그녀의 이야기로 듣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새로운 걸 알게 되었다. 입시와 진로에 대한 고민, 마음대로 안 되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가득한데 설상가상 매일 신경 쓰이게 하고,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 학교생활이 많이 불편해진 상황이었다. 진지하게 고민하지만 너무나 벅찬 한 인간의 삶을 고스란히

만났다.

한편 상담 시간에는 내담자의 이야기로 듣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딸을 키우는 나의 이야기가 된다. ‘오늘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냈을까? 당당하게 대처했을까?’ ‘어제 준 미션은 좀 실행해 봤을까?’ ‘마음은 괜찮을까, 힘들진 않을까.’ 어떨 땐 역할 변신하는 밤 12시가 기다려지기도 했다. 그전에는 여러 가지가 궁금해도 절대 묻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비밀 유지의 약속을 나 스스로 깰 수는 없었다. 그러는 순간 믿음은 깨질 테니까. 인내가 많이 필요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했다. 하루가 끝나는 시간에는 그녀를 만났고,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에는 딸을 만났다. 만남의 시간이 계속될수록 그녀에게는 힘들음을 힘들다는 소리 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음을 알았다. 그녀의 이야기가 있는 그대로 존중되고 인정되자 서서히 친구들 이야기를 더 편하게 했다. 딸이 아닌 그녀를 온전히 만나는 시간, 그 또한 나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한 학기쯤 지났을 때 그녀는 많이 안정되었고, 나의 딸은 좀 더 단단해졌다.

“이젠 별로 신경 안 쓰여요. 자기네끼리 가든 말든, 내 뒤에서 무슨 말을 하든 말든.”

나는 시간을 지키고, 들어주고, 질문했을 뿐인데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그녀가, 나의 딸이 정말 고마웠다.

딸이 대학 진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엄마라고 쓴 걸 봤다. 존경은 위인들에게나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질문에 떠오르는 사람이 나였다니 놀랐고 얼떨떨했지만 엄청난 피드백을 받은 것 같아 기뻐했다. 이유를 묻자 딸은 “엄마 말고 그럼 누굴 써? 내가 정말 힘들 때 엄마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어.”

밤 12시, 비밀의 시간을 가진 것이 많이 도움 되었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했다.

사실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남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나도 그 시간은 피곤하고, 어떨 땐 할 일도 있었지만 모든 걸 약속 시간에 맞춰야 했으니깐. 가장 귀한 선물은 시간을 선물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생각해 보면 몸 치유 시간까지 거의 매일 몇 개월 동안 만난 시간은 그녀에게 그리고 딸에게 주는 시간 선물이었고, 나에게도 딸을 그녀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된 귀한 시간이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한다. 늘 30분 일찍 출근하는 성실하고 건강한 딸을 본다. 그리고 가끔 일이 힘들다

고 아우성치는 그녀도 본다.

“시간이 지나면 경험이 쌓일 거야,” 라거나 “견뎌야 한다”는 엄마로서의 조언이나 판단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도 도움이 필요할 때면 딸을 찾는다. 거리 두기를 통해 서로를 돌보는 방식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나를 돌보는 글쓰기 여행 중

지해연

결혼 후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때 남편과 차박 여행을 다니게 되었다. 차박 여행의 묘미는 많지만 그중 하나는 긴 밤을 온전히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때로는 보이는 풍경과 상황, 감정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않아 글로 남기고 싶었다. 그런데 ‘잘 쓴 글과 부족한 글’, ‘잘 쓴 시와 못 쓴 시’ 등 평가에 익숙하다 보니 누군가 나의 글을 보고 형편없다고 할 것 같아 쓰지 못했다. 그러다 한두 편씩 시를 쓰면서 ‘이건 그냥 생활시야. 일기 같은 거지. 그러니 내 글에 이렇다 저렇다 평가는 하지 말아줘’라며 방어막을 내세워야 쓸 수 있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보는 이도 없는데 말이다.

그러던 중 ‘함께크는여성올림’에서 올린 ‘돌봄 글쓰기’ 안내문과 ‘내가 쓴 글이 나를 돌본다’는 부제목을 봤다. 그날 이후 그 문장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쓴 글이 나를 돌본다고?’ 글을 쓰는 목적 자체가 나를 위함이라면 ‘잘 쓰고 못 쓰고’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작가가 되기 위해서 글을 쓰거나, 글을 잘 쓰기 위해서 글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그동

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 글을 쓰는 목적이 오로지 ‘나를 돌보기 위한 글쓰기’라는 것이 새롭게 다가왔다. 보여주거나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서 편안함도 느꼈다.

그래! 오로지 나만을 위한 나를 돌보는 글쓰기 여행을 한번 떠나 보자.

1. 내가 쓴 글이 나를 돌본다?

그런데 이 문장에는 엄청난 복병이 숨어있다. ‘내가 쓴 글’은 과거 형이고, ‘나를 돌본다’는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들어있다. 핵심은 ‘내가 쓴 글’이 ‘나를 돌보기’ 위해서는 내가 쓴 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려면 먼저 글을 써야 한다는 거다. ‘잘 써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쓸 수 있을까? 그냥 뭐라도 쓸까? 그래, 일단 써보자’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내가 쓴 글’은 내 안에서 나온 것이니 어떤 것이든 ‘나’다. 돌봄 글쓰기와 관련된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문득 떠올라 머물게 하던 순간, 과거의 나와 마주한다.

중1 때, 가족 모두 잠든 밤, 평상 마루에 홀로 앉아 하늘을 올려다 보며 뭘지 모를 감정에 휩싸인 적이 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올려다보고, 소리조차 잠든 고요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세상에 혼자 있는 듯한 묘한 공간감에 주변을 둘러보기도 했다. 그 분

위기를, 내가 보는 새로운 세상을, 초등학교 때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글로 남기고 싶었다. 아마 시를 쓰고 싶은 문학소녀였던 것 같다.

학교에 아주 큰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나는 그 나무를 좋아했고 점심시간에는 나무 그늘에 앉아 책을 읽곤 했다. 그 시간이 좋았다. 중2 때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들고 느티나무 그늘에서 있는데 선생님 한 분이 지나가시며 “그 책 네가 읽는 거니?”

“네, 왜요 선생님?”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리고 그냥 지나가셨다. ‘왜 물으셨지? 나는 보면 안 되는 책인가?’ 어린 마음에 선생님이 하신 질문의 의미를 몰랐다. 아마도 ‘중학생은 이해하지 못할 책인데...’ 라는 생각을 하셨지 않았을까. 돌아보면 그 어려운 책을 왜? 무엇에 끌려 도서관에서 빌렸는지 나도 모른다. 그리고 그때 읽은 그 책 내용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어느 날 국어 시간에 시 쓰기 숙제가 있었다. 나를 진지하게 고민해서 열심히 쓴 시를 용기 내어 제출했다. 꽤 잘 썼다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선생님께서 친구들이 쓴 시는 이런저런 피드백이나 칭찬을 해 주셨는데, 내가 쓴 시는 아무런 피드백 없이 그냥 지나

가셨다. 쓴 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나만 아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쓰지 않았을까. 너무 어린 흥내를 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릴 말씀이 딱히 없어서 그냥 넘어갔을 것 같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을 텐데 예민한 청소년 시기라 ‘나는 글을 못 쓰나 보다’ 어린 마음에 상처 받았다. 그리고 그 이후 글을 쓰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아무도 몰래 째째 단편소설을 썼다. 현실이 답답해서 글을 쓰며 도피하고 싶었을까? 국문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글쓰기를 배운 것도 아닌데 무슨 배짱인지 검증도 안 된 글을 신춘문예에 보냈다. 지극히 당연하게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렇지, 난 역시 소질이 없는 거야’ 글쓰기는 다시 잊혔다.

2. 나를 돌보는 글쓰기 여행

차박 여행 중 밤하늘의 별을 볼 때면 중학교 때 바라보았던 그 하늘이 겹쳐 보였다. 중년인 나와 중학생인 그 아이가 만나는 밤이기도 했다. 생각해 보면 중학교 때 그 시간이, 그리고 몸에 남아 있는 다양한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서 글을 쓰고 싶었던 것 같다.

과거를 돌아보는 글을 쓰면서 그때의 선생님들과 다양한 상황들

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내 안에서 정리되지 않고 있던 많은 문장이 밖으로 나와서 필요 없는 것은 보내고 내 것만 남게 되는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 지금 나는 나를 돌보는 글쓰기 여행 중이다.

‘가스 밸브를 잠그며’라는 시를 썼다. ‘나 알아차림’이 돌봄의 시작임을 느끼며 나를 힘들게 하는 습관적 행동을 멈추고자 쓴 시가 실제로 그 이후 나를 돌보고 있음을 느낀다. 가스 밸브를 열기 전 알아차리고 먼저 차 한 잔을 마시며 휴식 시간을 갖는다. 시를 본 아들, 딸도 미리 설거지하고 가스레인지 주변을 닦거나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동 먼저 하지 않도록 배려해 준다. ‘산토끼 집토끼’ 시는 나도 모르게 산토끼나 집토끼에 집착할 때 내려놓거나 나를 더 챙기게 한다. ‘밤 12시에 만나요’ 글 또한 딸과 있었던 일을 쓰면서 돌봄의 의미를 생각하고 진짜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거리 두기가 꼭 필요함을 되새기게 했다. 이 글을 쓰면서 그동안 글쓰기에 자유롭지 못한 이유와 지독한 평가자는 오히려 내 안에 있음도 알게 되었다.

내가 쓴 글에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 있다.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고, 현재와 연결된 지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암암리에 제시한다. 어떤 식으로 썼든 쓴 글은 살아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영향력을 미치며 나를 돌볼 것이다. ‘가장 나다운

글이 가장 나를 잘 돌본다.’ 앞으로 계속될 ‘나를 돌보는 글쓰기 여행’이 더 많이 기대된다.



짱아창아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이 되는 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아는 만큼 즐겁게 실천해 나가려 한다.
영감과 호기심은 나의 원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글쓰는 사람 짱아창아.



“삶이 힘들다고 느낄 때야말로
더 좋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 알았다.”

슬기로운 솔로 생활

짱아창아

1. 아버지에게서 배우다

보랏빛으로 물들어 가는 저녁놀을 보며 수변공원 산책로를 걷다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눈물겹게 아름다운 서쪽 하늘 사진을 먼저 찍어 보내고 난 뒤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저녁놀 참 멋지다. 좋은 데 사네, 우리 딸.”

엄마가 하늘나라에 간 뒤에 언제나 내 전화를 반겨줄 사람은 아버지뿐이었다.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다. 1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게 된 여든한 살의 아버지가 혼자 밥상을 차리는 모습이 그려졌다. 함께 살아야 하나, 아니면 서로의 거리를 지키며 안부를 나누어야 하나 갈등했지만, 자주 연락하고 마음을 보태는 것으로 만족하는 중이었다.

싱글 4년 차가 된 아버지는 싱글 새내기인 딸에게 든든한 선배였다. 쓸쓸하고 헛헛할 때 아버지와 통화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몽클해져서 평소에 하지 않던 소리를 했다.

“아빠,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몸이 멀쩡한 내가 늙고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에게 푸념을 늘어놓은 것인데, 아버지는 힘찬 목소리로 답했다.

“우리 짱아, 슬기로운 솔로 생활을 해 보자고.”

그날 이후 아버지의 말은 내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엄마가 그림다고 울고만 있는 분이 아니고, 당신의 삶을 건강하게 꾸려가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엄마랑 살 때 돌봄을 지극히 받았던 아버지는 혼자가 되니 집안 일을 할 줄 아는 게 없어 무척 허둥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만의 방식으로 집안을 정돈하고 빨래하며 밥상을 차렸다. 만들 수 있는 반찬 가짓수도 늘어났다. 시중에서 파는 사골국물에 표고버섯을 듬성듬성 썰어 넣어 끓인 된장국, 탱글탱글한 도토리묵도 직접 만들었다고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했다. 담백한 조개젓 무침을 만들어 나이 오십이 넘은 딸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엄마에게 ‘친구 좀 만나러 나가라’고 성화를 듣던 아버지의 인간관계도 넓어졌다. 친구들과 매일 걸으며 안부를 나누고, 노인대

학과 성경 공부 모임에도 열심히 다녔다. 냉장고를 채워 주고 반찬을 나누어주는 이웃들 얘기에선 “내 평판이 좋은 편이야.”라며 해맑은 웃음을 짓기도 했다.

밝아진 아버지를 보며 50년 함께 산 배우자를 잃은 건 슬픈 일이지만, 누구의 간섭도 없는 싱글의 삶은 자기의 본모습을 찾아 나가는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아버지를 곁에서 지켜보며, 거센 파도를 정면으로 맞아내는 방파제처럼 삶의 무게를 피하지 않고 감당하다 보면 언젠가는 파도가 잔잔해지는 날이 온다는 것을 배웠다. 그것이 아버지가 내게 남겨준 가장 큰 돌봄이었다.

2. 주변의 돌봄으로 다시 서다

나 역시 혼자만의 삶에 적응해야 했다. 삼십 년을 함께한 친구이자 남편이 ‘여생을 혼자 살고 싶다’라며 떠난 자리에, 나는 빈틈을 혼자 채워야 했다.

공부방 운영을 하며 세금 신고하는 법을 몰라 미루다 세금 폭탄을 맞았고, 이사 등 큰일을 처리할 때 성급한 결정으로 금전적 손

해를 입기도 했다. 그 과정을 겪으며 나는 더 이상 배우자 뒤에 숨었던 구경꾼이 아니라 ‘내 삶의 당사자’가 되어갔다.

혼자 사는 삶은 자유가 차고 넘쳤지만, 방중으로 생활이 엉망이 되기도 했다. 과음 후 어둠 속에서 자전거를 타다 다친 적도 있었고, 술 마신 밤 목걸이를 잃어버린 적도 있었다. 몇 날 며칠 집을 치우지 않아서 방바닥에 늘어진 전깃줄에 걸려 상처를 입은 적도 있었다.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내가 싫어서 화를 내며 울음을 터뜨린 날, 내가 나에게 너무 불친절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 디딜 틈 없는 공간에 나를 던져두듯 생활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내 공간은 곧 나인 만큼, 나를 위해 공간을 최대한 단출하고 깔끔하게 유지하기 시작했다.

실패도 경험이라 여기며 하나씩 고쳐가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강한 방식을 찾았다. 어차피 인생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 아닌가.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어서 싱글 3년 차에는 남자를 소개받은 적도 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남사친(남자사람친구) 같은 존재였음을 깨달았다. 전 배우자가 그림자다면서 나는 왜 그렇게 연애할 상대를 찾는 것일까, 궁금했다. 스스로 물었지만, 답을 찾지 못

할 때, 심리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다. 내 안의 허기는 ‘타인에게 받을 돌봄’을 찾고 있었다는 걸. 전 배우자가 그리워서라기보다 그 사람처럼 내게 ‘잘한다, 응원한다’라며 격려해 줄 이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열 번의 상담 중 마지막 시간에 상담사가 해 준 말이 오래 남는다. “타인에게서 찾으려 하면 끝이 없겠지요. 이젠 자신을 믿고 좀 아껴주세요.”

내 마음은 나를 아껴달라고 아우성치는데 나는 바깥에서 답을 찾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오랫동안 외면하고 미워한 나에게 미안해서 한참을 울었다.

싱글이 된 뒤 모든 게 암담했지만, 길목마다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 폐업자 교육에서 만난 직업상담사, 직업상담사가 '이혼 후 고충 상담'을 받아보라고 연결해 준 심리상담사, 내 아픔에만 매몰될 뻔한 시선을 돌려준 세월호 공부 모임과 여성단체의 친구들. 혼자가 되자 내 곁에 찾아와 준 사람들이 더욱 귀했다.

가까운 이들과는 더 깊이 연결되었다. 병든 아버지를 돌봐 드리며 오빠와 동생을 더 알게 되었고, 오랜 친구들과 글쓰기를 하며 서로가 몰랐던 내면을 이해하고 토닥이게 되었다. 그들의 손길은 내 삶의 울타리가 되었고, 혼자이지만 함께 살아갈 방법

을 배워갔다.

주말이나 밤, 어쩔 수 없이 혼자인 날이 있다. 그럴 땐 외롭다고 울지 말고 그 시간을 충만하게 보내는 나만의 기술을 쌓기로 했다. 도서관에 책을 반납할 일을 늦추었다가 해안가로 돌아 산책 겸 걷는다거나, 율동적인 근력운동 영상을 쳐놓고 신나게 몸을 흔든다거나 리듬에 맞춰 스트레칭을 한다. 기분 좋게 잠들 수 있게 해 주는 작은 습관들이 되었다.

싱글 선배인 아버지에게서 ‘슬기로운 솔로 생활’의 가능성을 보았고, 가족을 넘어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를 돌보는 법을 배웠다. 삶이 힘들다고 느낄 때야말로 더 좋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 알았다.



최운경

이것저것 두루두루 기웃거리는 데가 많게 살다가
덜컥 오십이 넘었고, 깨달음에도 때가 있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이 중요함을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다.

호기심은 여전한데 몸은 말을 듣지 않는
부조화 속에 살아가던 중 ‘돌봄’이란 단어를 맞이했다.
‘스스로 돌봄’에 귀를 기울이고자 한다.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란 책을 읽으면서
많은 여성이 늙고 병들어 가는 오십이 넘어서야 비로소
자기 몸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월 어느 아침에

최운경

4월 초 건강검진을 하러 갔다가 바로 다음 날,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다. 통에 담긴 담석을 보고, 몸에 그런 게 있었다니 적잖이 놀랐다. 수술 후에 한 달이 지나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침대 밑 100미터 아래로 가라앉을 것 같은 상태가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아침 전화가 왔다. 전주의 외삼촌이다.

1년에 한두 번 있는 연례행사다. 당신 자식들에게는 전화를 못하고, 그쪽에 갈 전화가 내게 왔구나, 그렇게 알게 된 지 꽤 되었다.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겠지, 늙어감을 한탄하며 그리움도 있겠지. 그러게 왜 그랬냐고 말하고 싶지만, 해서 생채기만 남을 말을 내뱉진 않는다.

“너 어디 아프냐?”

“아파, 아파. 많이 아파. 말할 기운도 없어요.”

“왜 그냐?”

“왜 그러간디? 늙었으게 그렇지. 삼촌 조카는 안 늙는갑네. 삼촌

이나 나나 함께 늙어가는 판이라고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당게요.”

“너는 뭘 말을 더 나이 든 삼촌한테 고러케 허냐?”

“삼촌이 생물학적 나이가 더 많다고 내가 먼저 가지 말란 법이 있간디? 그만큼 아프단 소리여요. 죽갔어요.”

“잉니 목소리 들어봉께 참말로 안 좋은갑다 잉. 지난 연휴에 전주 왔담서? 근디 나한테 연락도 앓고 그냥 가부냐 잉. 술이라도 한 잔 허고 가지?”

“아, 아퍼서 집에 뵈다 갔다니게요.”

“아따, 알았다. 알겼어. 담에 오면 삼촌이랑 술 쯤 마셔주라 잉?”

“아프고 늙어서 술도 안 들어가요.”

연신 목소리를 깔고 징징거렸다.

오월이다. 가족 생각이 많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왜 그 모양으로 살았냐고 타박하고 싶기도 하지만, 인생이 어디 맘대로 되간다.

그 양반이라고, 그러고 싶어 그러진 앓았을 테지만. 결론은 자식들 크드락 애비 노릇 못 했으니 때가 되었을 때 찾을 수가 앓고, 애비가 아프니 한 번 다녀가 달랄 수도 앓고, 살림이 궁하니 도와달랄 수도 앓고, 누구라도 한 번 보고자 하니 다녀가라 땡땡거릴 처지가 못 된단 말이지. 그란디, 딱 그런 순간 왜 나를 찾는 거냐고!

내가 삼촌 자식도 아니고. 어찌라고. (싸가지없는 조카 모드는 이런 거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실은 그러지 못했다)

“야야, 작년에는 말여, 일거리가 읍써서 징허게 거시겼는디, 인자는 오라는 디가 많어서 야, 골라서 가얀당게. 나이 칠십에 오라는 디가 있다는 것도 반가운 거신디 골라서 간다는 게 을매나 좋냐잉?”

“..... 그러서요? 일을 하는 거시요?”

“그러지. 올 1월부터 뭇 공장 경비를 혀는디 말여 4월 말까지 혀어. 내가 거기를 진짜로 좋아했단 말이어. 내 회사맹키로. 근디 3월부터 회사가 이상허드니 4월이 뉁게 법정관리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다 쫓겨나드라고. 그러서 나도 4월 말로 어쩔 수 없이 나왔는디 내 공장이 문 닫은 거 맹키로 뉁이 아프드랑게. 서민들은 눈물 빼면서 일하는디 그 일자리도 없어져 불고 어디서 일을 한다냐 탄식 중이엇디 말여, 갑자기 엇그제부터 형님, 뉁허요? 함서 전화가 막 오드라?”

“잘 되았네. 근디 시방 아침부터 한 잔 허신 거시요?”

“허따! 너는 구신같다 잉. 어찌 그러코롬 잘 안다냐?”

“지금 삼촌 은근시 자랑허는 목소리가 딱. 한 잔 걸친 목소린디? 식전 뉁바람부터 빈 속에 소주? 미친 거 아녀?”

“야야, 너는 널모레가 칠십인 삼촌헌티 미친 게 아녀가 뉁셔?”

“넬모레가 칠십인데 이 아침에 빈 속에 술 푸는 사람이 문제여, 욱히는 조카가 문제여? 영? 말허봐요. 그럴라고 나헌티 전화하신 거요? 참나 못 산다. 엄마 아빠에 삼촌까지 내 수발은 못 형게 정신 팍 붙들어 매쇼잉.”

(급기야 싸가지 없게 쏘아붙였다. 속도 안 좋고, 일주일 전 왼쪽 어깨에 담이 걸려 아직도 아파서 나도 병원에 기어가야 할 판인데 말이지.)

이 신산한 삶을, 이토록 무거운 인생을 짊어진 삼촌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나도 인생이 고달프다.

“근디, 너는 워디가 그리 아프다냐?”

“온 사방이 다 아파요. 애 셋을 키우고, 이런저런 일도 허는디 안 아픈게 이상허지 않것어요?”

“잉~ 그라것다. 내가 몰랐다, 야. 나 아픈 줄만 알었는디 조카가 함께 늙어가고 있네 잉?”

“내가 말했쥬?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른다고. 그럴 만큼 아프다니까~~~”

“근디 니 아부지 고집은 옛날부터 썬 지 알고는 있었다마는 징허드라. 내가 그 썬 고집불통을 수발허고도 니 엄마헌티는 한 마디도 안혔다.”

오늘 전화의 핵심은 그거였다.

작년 추석 이후 우리 형제들은 긴 논의 끝에 아빠의 차 키를 압수했다. 물론 아빠와 긴 얘기와 협상도 있었지만, 표현하자면 거의 반강제로 운전을 중지시켰다.

소뇌위축증(치매와는 또 다른 병)으로 중심을 잡기 힘들어졌고, 무엇보다 언어장애로 사고가 났을 때 빠른 대처도 힘들게 된 상태인데 시내 주행만 하니 괜찮다고 자꾸 우기셔서 4남매가 처음으로 아빠 고집을 확 꺾은 엄청난 사태가 있고 난 뒤, 한동안 아빠 차를 삼촌이 운전하고, 아빠가 필요한 장소에 모셔다 드리는 일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의 고집과 잔소리(?)에 삼촌도 두 손 두 발 든 사건이다.

참 파란만장한 노인네들의 관계와 삶 속에 내가 끼어 있다. 아빠는 본인이 운전을 못하게 된 것이 못내 불편하고 짜증이고. 삼촌은 기껏 생각하고 봉사했더니 돌아오는 건 잔소리와 고집불통 노인네의 독설뿐이더라는. 그러니 절대 만나지 말라, 내 말했거늘. 왜 그렇게 엮어놓고 다들 나한테만 전화로 그러시냐고들!

동네북에, 민생고 해결사에, 온갖 푸념은 모두 내게로 돌아온다. 아버지와 삼촌 사이에서 눈치 보느라 힘들어 죽겠다고 한탄한 엄마까지. 그게 작년 말쯤까지의 이야기고. 이제 삼촌은 딴 일을 하

게 되었으나 가끔 찾는 아버지 운전수발이 힘들어 죽었다는 말씀인 거다.

아빠와 엄마, 삼촌 모두가 노인이 되었고, 나도 그쪽을 향해 하루하루 가고 있다. 병들고 아픈 것에 나이의 많고 적음이 문제 되지 않는다. 나도 언제부턴가 근원을 알 수 없는 통증으로 밤을 보낸다. 일하는 낮 동안도 자주 여기저기 신호가 온다. 그래도 일하는 동안은 일에 파묻혀 통증을 밀어내고 일에 집중하면서 지낸다. 그러다 밤이면 끄끖 앓는 날이 많아졌다.

『세벽 세 시의 몸들에게』란 책을 읽으면서 많은 여성이 늙고 병들어 가는 오십이 넘어서야 비로소 자기 몸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어떤 돌봄

최운경

2014년의 일이다.

그해 설날, 시누이는 딸이 안산 근처의 학교에 합격해서 통학하기엔 멀고 힘드니, 시어머님 댁에 방 하나를 얻어 살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어머니 소유의 다세대 주택 3층 주인세대에서 함께 살던 나의 형님은 단칼에 거절하셨다. 반지하에 있는 세 가구 중 두 가구가 오랜 시간 비어 있던 터였다. 본인의 건물도 아니었다. 비어 있는 그 방에 조카가 좀 와서 살자고 제안했는데, 딱 잘라 거절했다. 집안 분위기는 싸 해졌다.

시누이 집이 엄청나게 먼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안산 정도 거리를 통학하는 건 많이 있는 일이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이었다. 시어머님은 함께 사는 며느리의 의견에 따르겠노라며 같은 의견을 내었다. 삼남매 중 맏이인 시누이는 인문계를 보내지 않고 여상에 보낸 뒤 가정예 보탬이 되라고 했던 진로에 대한 불만부터 본인의 결혼을 반대한 것과 그때까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온갖 설움을 쏟아냈다.

2월 말, 방은 3개지만, 집이 좁아서 아이들 불만이 많은 우리 집에, 미대생이 된 신입생 조카가 들어왔다. 우리 큰딸아이 방을 함께 쓰는 조건으로. 그렇게 나는 딸 넷을 키우는 심정으로 3월을 맞았다. 나도 대학생 초기 날마다 늦게 다니는 문제로 부모님과 티격태격하곤 했는데, 조카는 거의 날마다 자정을 넘겨 들어왔다. 우리 집 아이들이 중2, 초4, 5세 되던 해다. 큰딸이 사춘기로 민감한 시기이기도 했다. 물론 아이와 상의하고, 동의하고 정한 일이다.

훗날 큰딸은 엄마의 강력한 눈빛에 자기의 의견을 똑바로 말할 수는 없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결국 나의 위력에 의해 자신의 마음과는 다른 판단을 했다는 소리였다. 우리 아이들은 학원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 주변에서 놀다가 7~8시면 들어와 밥을 먹고, 10시쯤이면 잠잘 준비를 하는 시기였다.

조카는 자주 취해서 돌아왔고, 큰딸은 몸서리치며 싫어했다. 조카가 학교에 있는 낮 동안은 끊임없이 택배가 왔다. 큰딸은 자기 허리만큼 쌓여 있는 택배 상자에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이 셋을 키우며 가능하면 물건을 물려받고, 돌려쓰고, 새로 사는 것에 엄격했던 우리 집 분위기에 균열이 생겼다. 아이들이 자꾸만 자기 앞으로 택배를 받고 싶다고 했다. 쓸데없이 물건을 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가 사춘기의 두

아이가 핏대를 세우며 ‘왜 언니는 가능하고 우리는 안 되느냐’고 따졌다. 그 택배는 우리의 돈이 아니라고 했더니, 고모랑 고모부는 그렇게 잘 사주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되느냐고 따졌다. 언니는 대학생이 되었으니 쓸 물건이 많아진 거라고 했더니, 꺼내 보면 다 액세서리와 화장품과 옷과 가방과 신발이라고 했다.

아이들이 많은 우리 집에도 신발장에 꽤 많은 신발이 있었는데, 조카가 들어온 후 왼쪽 한 칸을 비워주었다. 부츠에서 플랫폼슈즈, 구두와 단화, 운동화까지 엄청난 양의 신발이 조카 한 사람 것으로 채워졌다.

어느 날 살펴보니 한정판 운동화, 명품 슬리퍼, 명품 머리핀 등등. 그런 물건들을 대체 어디서 주문하는가 싶을 정도로 많았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이에게 자취방 구해주기 어렵다는 시누이의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라 우리 아이들의 원성에 내가 논리로 답할 방법이 없었다.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른들의 맥락 없는 소리를 유난히 싫어했다. 나는 조카와 아이들 사이에서 힘들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던가, 매일매일 정신적 피로감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우리 아이들은 가끔 내게 그림책 『손 큰 할머니의 만두만들기』에 나오는 할머니 같다고 놀리곤 했다. 음식을 유난히 많이 한다는

소리였다. 그런 습관은 엄마와도 닮아 있었다. 엄마는 항상 음식을 많이 해서, 이웃과 잘 나누었다. 나도 그랬다. 아이들이 많으니 많이 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도 했고.

그런데 스무 살이 된 아이 한 명이 생기니 먹는 양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다. 우리 집 한 달 생활비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부분(엔겔 지수)이 엄청나게 늘었다. 조카는 오전에 주로 집에서 밥을 먹고 갔다. 그리고 밤 늦게 들어왔다. 나는 밥을 해서 먹여 보냈다. 날마다 새로운 국과 반찬을 만들어 내느라, 레시피를 찾아보는 일도 늘었다.

처음에는 언니 한 명이 늘어 경쟁심리가 생긴 아이들이 잘 먹는 시너지가 나서 좋기도 했다. 그런데 시기가 지나가니 힘에 부쳤다. 게다가 막내가 아직 어린 시기였기에 나의 돌봄은 스무 살부터 다섯 살까지, 엄청난 양의 빨래와 엄청난 양의 설거지와 아이들이 빠져나간 폭풍이 휩쓸고 간 바닷가 같은 집을 치우는 일도 힘들기 짝이 없었다. 그냥 단순히 사람 하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카가 들어오고 일주일쯤 지나서 느끼게 되었다. 나는 왜?

11시쯤 일하러 가서 저녁 7-8시쯤 들어오는 일을 하고 있었던 나는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그 시간에 들어와 저녁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막내를 씻겨 재운 뒤, 한밤에 나만의 시간을 가지려 하면 조카가 들어왔다. 가끔은 성인이 된 조카와 맥주 한 잔을 함께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내 자식이 아니니 관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큰딸은 질투심을 느끼는 듯했다. 그렇게 한 학기가 끝나고 조카는 학교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휴학하고 6월 말, 우리 집을 떠났다.

그토록 작은 방에서 셀 수 없는 옷과 가방, 액세서리, 미술도구, 한 번도 신지 않은 신발 등이 쏟아져 나왔다. 시누이 내외가 처음엔 차에서 기다리다가 도저히 기다릴 수 없어 우리 집 아이들과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고, 한참을 놀다가 겨우 짐을 싣고 떠났다. 그리고도 우리 집에 한동안 남아 있던 물건들은 큰딸이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언니 옷들은 다 특이해서 입을 수가 없어.”

“언니가 쓰는 물건들은 다 이상해.”

나는 엄마로서 못된 결정을 했던 걸까? 냉정하단 소리를 듣더라도 내 자식을 먼저 챙기는 것이 엄마 된 도리인 것을. 나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 그런 결정을 했던가?

큰딸은 지금도 가끔 그해 몇 달을 떠올리며 진저리를 친다. 그래도 상처를 조금은 덜게 된 사건이 있었다. 조카가 아르바이트해

서 모은 돈으로 한정판 나이키 신발과 아이팟을 사서 동생들에게 선물했다. 내가 절대 사주지 않는 물건들이었기에 아이들은 단숨에 역시 언니라며 좋아했다. 우리 애들이 단순한 건지 모르겠다.

시누이는 가끔 내게 말한다. 일본 도쿄에서 그 비싼 집값과 학비를 스스로 벌며 학교에 다니는 조카가 “한국에 가면 외숙모 음식을 먹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우리 집에 살 때, 평생 먹을 따뜻한 음식을 다 먹었다고. 아침에 해장국 끓여주는 외숙모는 흔치 않을 거라고. 그래 그거면 됐지 뭐.

나도 참 단순하지. 그 말에 스르륵 풀리는 마음.

지금도 가끔 떠올리며 애들이랑 흥인지 칭찬인지 모를 조카 얘기를 한다. “그 언니가 특이해서 우리랑은 스타일이 다르지만, 그래서 일본 미대에 합격했나? 그 나이에 혼자서 무사시노 미술대학이라니, 그때부터 우리가 알아봤지.”



한톨

울림의 시작을 함께했고,
산과 여행을 좋아하며
최근에는 그림에 흠뻑 빠져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집에는 기다란 마루가 있다.
마을도 훨씬 크고 학교도 있다. 언니는 친구들보다 한 살 많은
아홉 살 나이에 학교에 가게 되었고,
그해 할머니 제사를 치를 때까지 엄마는
매일 아침 마루 한쪽에 마련한 상에 수북이 쌀밥을 올리신다.”

엄마야 언니야

한톨

뭉게구름 달음질치는 요란한 하늘 아래로 아직 초록인 들길 따라 걷다 흥얼거린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금 모래 빛...”

다행인지 불행인지 딸만 있는 집에서 자라 차별받는다라는 생각은 안 해 봤지만, 내가 만약 아들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내가 좀 더 힘이 센 사내면 좋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다.

부질없는 상상의 그 시절을 떠올려보다 또 흥얼거린다. 엄마야 언니야 강변 살자.

기억 저편

고향 집 사립문 건너 다랑이 논둑을 지나면 커다란 저수지가 있다. 봄이면 저수지 물이 절반쯤 빠지고 바닥이 드러나고 질퍽한 흙이 꾸덕꾸덕 마르면서 물속에 잠겨 있던 작은 바윗돌들이 봉긋

봉긋 나타난다. 언니와 나는 그곳으로 뛰어가 소꿉놀이한다. 뭇가를 숨기고 또 찾고 풀잎들을 뺏아도 본다. 흩어진 자갈돌들을 가져와 높이 쌓아도 보고... 그렇게 마른 저수지 작은 바위들은 우리의 또 다른 집이 된다.

배가 슬슬 고파올 무렵 앞서거니 뒤서거니 집을 향하다 갑자기 언니가 뒷산 바위 쪽을 향한다. 집채만 한 바위 앞에 다다라 나는 먼저 올라간 언니의 손을 잡고서야 겨우 발을 올려 본다. 우리는 살금살금 기어오르다 바위 중간에 있는 웅덩이에 손을 씻는다. 언니와 나는 바위 꼭대기에 나란히 앉아 조금 전 소꿉놀이했던 저수지 바윗돌들을 가리키며 ‘네 집 내 집’ 찾기를 한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조심조심 바위를 내려가 집을 향해 달린다. 언니가 넘어진다.

여름이면 우리가 놀던 저수지에 다시 물이 가득 찬다. 언니와 나는 논두렁 풀 뭉치를 잡고 물장구를 치다 다시 뒷산 바위까지 뛰어간다. 언니는 달리다 자꾸만 넘어진다.

“빨리 줌 와.”

언니보다 앞질러 가게 된 나는 더 신나서 뛰어간다.

텃밭 풀더미 속 제법 큼직한 참외 하나를 따서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온다. 엄마는 참외 한쪽을 칼로 도려내고 작아진 참외를 똑같이 나눠주시고는 괜챻냐며 흠 묻은 언니 바지를 털어주신다.

할머니는 방문을 한 번 열어보시고 힐끔 쳐다보시더니 ‘아직 퍼런 것을 뒹하러...쫓쫓!’

하고 방문을 쾅! 닫으신다.

덜 익은 부분을 도려냈지만, 참외는 쓰고 맛이 없다. 그때의 쓴맛 기억 때문일까, 나는 지금도 참외가 맛이 없다. 다섯 살 나의 첫 기억.

이사

이듬해 봄, 기다리던 아들 손주 대신 딸만 넷을 낳은 마땅찮은 며느리의 수발을 받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엄마와 아빠는 그림이 그려진 병풍 앞에서 목 놓아 우시고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 천막을 친다. 난 아랫목에 누워 덩달아 우는 동생을 다독인다.

“울지 마, 울지 마...”

“엄마, 우리 이사가?”

학교가 있는 마을로 이사 간다는 말에 마냥 좋았다. 소꿉놀이하던 저수지도 산 중턱 큰 바위도 멀어지는데 왜 그렇게 좋았을까. 동생은 엄마 등에 업혔고, 난 부지깽이 하나를 들고 질질 끌며 따라간다. 얼마나 걸었을까, 개울물을 건너는데 그만 내 코고무신이 벗겨져 물에 빠졌다. 언니는 내 손에 있던 부지깽이를 빼앗아

얼른 떠나려가는 신을 건져 주었다. 울상이던 나는 다시 신이 나서 앞서 걷는다.

“언니야, 빨리 와.”

새로 이사 온 집에는 기다란 마루가 있다. 마을도 훨씬 크고 학교도 있다. 언니는 친구들보다 한 살 많은 아홉 살 나이에 학교에 가게 되었고, 그해 할머니 제사를 치를 때까지 엄마는 매일 아침 마루 한쪽에 마련한 상에 수북이 담은 쌀밥을 올리신다.

언니가 학교 갔다 올 시간이다. 나는 학교 근처까지 마중을 나가 담벼락 아래서 언니를 기다린다. 저만치 언니가 친구들과 함께 오다가 나를 보고 달려오다 또 넘어진다. 뒤따라오던 또래 사내들이 넘어진 언니를 놀리고 도망간다. 그중 가장 키가 큰 언니는 도망간 사내아이들을 쫓아가고, 나는 넘어진 언니에게서 조금 떨어진 책가방을 먼저 줍는다. 그렇게 학교에 갔다 온 언니의 책과 공책은 내 장난감이 되고 언니 친구는 내 친구가 된다. 나도 빨리 커서 학교에 가고 싶다.

엄마야 언니야

여덟 살이 된 나도 이제 학교에 가게 되었고, 엄마는 내게 언니 손 꼭 잡고 다니라고 당부하신다. 빨리 가고 싶은데 언니가 자꾸만 넘어진다. 그때야 알았다. 그렇게 자꾸만 넘어지던 내 언니는 여섯 살에 소아마비라는 병을 앓게 되었고 엄마는 언니를 업고 읍내에 있는 병원을 수없이 다니셨지만 내 언니는 결국 장애를 갖고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학교가 있는 그 마을로 갑자기 이사를 오게 된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고...

언니의 책가방을 들고 언니의 손을 잡고 우리는 매일 함께 학교에 간다. 이제 언니는 걷다 넘어지는 정도를 넘어 걸음걸이도 전과 다르다. 언니의 걸음걸이를 흉내 내며 놀리고 도망가는 사내아이들을 향해 난 외마디 소리 한 번 질러 보는 게 고작이었다. 그나마도 크게 나오지도 않는다. 바보같이 내가 사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본다.

언젠간 시골 내려가서 살겠다면 언니가 몇 해 전 혼자 된 엄마 집으로 내려갔다. ‘시골 생활 별건가 전동카 하나면 충분해’

언니는 지금도 여전히 잘 넘어진다. 평생을 당신보다 더 불편한 장애를 갖고 생활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장애는 그냥 조금 불편할

뿐이라고 늘 얘기하던 내 언니. 이제는 고향으로 내려갈 때 챙겼던 전동카를 타고 마을 골목골목을 뽕뽕 달리며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 준다.

봄이면 집 뒤 텃밭을 일구고, 여름이면 마당에 온통 예쁜 꽃들을 피워낸다. 또 이렇게 가을이 오면 애써 가꾼 농작물들을 예쁘게 포장해 보내준다. 아픈 다리 고쳐주지 못했다며 평생을 마음 아파하신 엄마를 또 밤낮없이 돌보며...

내 언니다.



향천

○○의 막내딸, ○○의 며느리, ○○의 아내,
○○의 엄마 등 수많은 역할에서 ○○-를 빼고,
오롯이 나를 찾으려 애쓰고 있다.
책 읽기와 토론, 글쓰기는 나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돌봄 글쓰기로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함께하는 글 벗들이 있어 참 좋다.



“엄마, 우리 가족은 화목한 것 같지 않아요.”

엄마의 안부를 빈다

향천

올해 9월 11일은 내가 결혼한 지 2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7개월 뒤 친정 이모의 소개로 신랑을 만나 결혼했다. 3월에 처음 보고 횡수로는 12번 만나고 9월에 결혼했으니 조금 이른 결정이었다. 결혼을 결정한 나에게 지인들은 물었다. 남편의 무엇이 마음에 들었냐고. 그럴 때 나의 대답은 “인연이었다.”였지만, 막내딸 시집도 못 보내고 눈감은 아버지의 한을 엄마는 겪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변의 말들이 결혼을 결심하는데 한몫했을 것이다. 아무튼 결혼했고, 2년 터울로 세 아이를 출산해 기르다 보니 23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다. 대학 1학년 스무 살에 독립했으니, 아버지와 함께 산 세월보다 남편과 산 세월이 더 길었을 뿐이다.

이제 아이들이 커서 내 손을 덜 필요로 하니 비로소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 내 머리에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생기는 것처럼 가장 크게 들어오는 것은 친정엄마의 모습이었다. 우연히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받게 된 건강검진에서 부정맥을 발견했다. 급하게 시술을 요하는 응급 상황이었다. 시동생의 주선으로 가까

운 대학병원에서 응급 시술을 받은 뒤 짧은 휴식을 취한 후 어머니는 시골집으로 내려갔다. 더 오래 쉬라고, 이참에 막내딸이랑 같이 살자고 아무리 붙잡아 봐도 어머니는 오빠들을 불러 고향 집으로 내려가셨다.

그렇게 시골로 내려가신 후 어머니의 기억이 점점 사라졌다. 혼자 하는 식사, 혼자 하는 발일, 혼자 자는 잠은 어머니를 많이 외롭게 했을 것이다. 가끔 들르는 딸들에게 “조금만 가깝게 살면 버스라도 타고 가서 볼 텐데…” 하고 아쉬움을 내비치기는 해도, 그럼 함께 살자는 막내딸의 제안은 들은 척도 안 하셨다.

통제하지 못한 채 마시는 술은 더 큰 문제를 초래했다. 읍내로 나가 집을 못 찾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경찰로부터 일을 하는 작은 오빠에게 전화가 걸려 오기도 했다. 한번은 오빠가 일 때문에 모시러 가지 못해서 언니에게 연락이 왔고, 언니와 내가 내려간 적도 있다. 떡방앗간 시멘트 바닥에 상자를 깔고 누워 있던 어머니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다.

자신에게 서운하게 굴었던 사람들을 향해 욕을 하기도 했고, 같은 얘기를 수백 번 반복했다. 좋은 얘기도 아닌 이야기에 자식들은 지쳐갔다. 장사를 못하게 된 이후에는 집 밖에서 캐 온 나물과 풀들을 집안으로 끌어들여 집을 어질렀다. 집안에서는 어머니가 모

아 놓은 푸성귀들이 썩는 퀴퀴한 냄새가 났다. 모아 놓은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내서 시골 동네를 놀라게도 했다.

급한 대로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치매 진단을 받았고, 더 큰 병원에서 치매 확진을 받았다. 치매 4등급을 받은 엄마는 재가 요양을 신청해 하루 3시간씩 요양사와 함께 지냈다. 작은오빠가 자주 찾아볼 수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엄마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진 건 일 년 전이었다. 작은오빠가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우는 사이 엄마의 증세는 더 심각해졌다. 제때 음식을 못 드셨고, 가끔 들르는 언니와 내가 사다 놓는 간식들을 한꺼번에 먹어 기도가 막히기도 했다. 하루 종일 마당에 나가 풀을 매느라 자식들이 오고 가는 줄도 몰랐다. 방문요양 3시간으로는 엄마를 돌볼 수가 없었다. 상황이 심각해지니 가장 자주 엄마를 찾아보는 작은 오빠가 더는 참지 못했다.

작은오빠나 언니는 큰오빠가 나서 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지만 돌봄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알기에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는 없었다. 가족회의를 열었고 엄마를 시설에 모시기로 했다. 요양원은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작은 오빠가 알아봤고, 의료보험 공단에 시설 등급 변경을 신청하고 심사받은 뒤 서류를 떼는 것은 내가 했다. 일련의 과정에 2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를 두 번 왕복했다.

모든 게 결정되고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러 가는 날, 4남매가 모두 모였다. 시설에 모시는 걸 끝까지 반대했던 큰오빠는 끝내 눈물을 보였다고 올케가 말했다. 하지만 큰오빠 본인이 직접 모시겠다고는 하지 못했다. 대안 없이 집에 혼자 계시게 할 수도 없었다. 가족 모두 슬픈 날이었다.

작년 추석 명절을 쇠고 엄마를 모셨으니 꼬박 일 년이 되었다.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엄마는 요양원에서 잘 적응하고 계시다. 면회 간 우리를 다 알아보시고, 마당에 나가 풀 뽑을 일이 없으니 손이 깨끗했다. 손톱에 매니큐어도 바르셨다. 그런 엄마를 보고 올케는 자신이 시집와서 어머니 손이 더럽지 않은 것은 처음 본다고 할 정도다.

나의 엄마를 내 손으로 모시지는 못하지만 자주 면회하러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갈 때마다 엄마가 좋아하는 간식을 챙기고, 요양원에 적응하는 엄마의 모습을 동영상에 담고 있다. 혼자 계실 때보다 조금은 안심이 된다. 지금보다 더 상태가 나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냉전과 개선 사이

향천

일요일 저녁 8시 반, 스터디 모임을 마치고 식당으로 옮겨 저녁을 먹고 있었다.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전화를 받자마자 끊긴다. 발신자를 보니 남편이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다. 잠시 뒤 또 전화가 울리고, 받으면 다시 끊긴다.

‘어? 왜 이래. 전화기가 고장 났나?’

받으면 끊기고, 걸면 통화 중. 그렇게 열 번쯤 반복했을까. 그제야 통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여자야?”

“네?”

“당신 지금 뭐 하는 여자냐고?”

“.....”

몹시 화가 난 남편의 목소리.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저녁 먹고 있어요. 금방 갈 거예요.”

남편의 몇 마디가 더 이어지다 전화는 뚝 끊겼다. 통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는지 앞에 앉아 있던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남편이냐고 물었다. 식사 후 차 마시는 일은 생략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지금 가는 중이야. 9시 반이면 도착할 거야. 왜?”

“빨리 오셨으면 해서요.”

“무슨 일 있었어? 저녁은 먹었니?”

“저녁은 먹었는데, 아빠는 안 드셨어요.”

“혹시 너한테도 화내셨어?”

“저한테는 아니고, 민주한테 화내셨어요.”

“뭐 때문에?”

“별건 아니고, 밤에 씻는다고요.”

“아빠가 많이 화나신 것 같아요. 알아두시라고요.”

“알았어. 알려줘서 고마워.”

집에 도착하니 남편의 차가 보이지 않았다. ‘어딜 간 걸까? 뭐, 화났으면 냐지. 어찌겠어.’ 아이들부터 살펴보고 부엌 정리를 마친 뒤 소파에 앉았다. 밥도 안 먹고, 막말하고, 말없이 집을 나간 남편의 행동이 어이없었다. 마치 초등학생 같았다. 아마도 나는 자

주 집을 비우고, 그게 남편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다.

금요일과 토요일엔 1박 2일 캠핑을 다녀왔다. 집을 비운 사이,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가야 하는 글쓰기 학원을 빠졌다. 일정을 챙기지 못해 깨우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다. ‘고3 수험생을 두고 캠핑하다니, 나도 참...’ 후회가 밀려왔지만, 아들에게 짧게 잔소리 하는 걸로 넘겼다.

남편이 아들을 깨웠다면 좋았을 텐데, 발일로 바빴을 것이다.

늘 그렇듯. ‘나만 나쁜 엄마인가? 아빠는 애 좀 챙겨줄 순 없나?’ 서로의 사정을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었다. 주중엔 회사 일로 바쁘고, 주말엔 발일로 바쁘고. 자신만 가족을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남편, 그리고 그런 남편에게 늘 맞춰야 하는 나. 주부는 밥 차리는 사람일 뿐인가? 아내는 늘 남편을 위해 대기해야 하는 존재인가?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텔레비전을 켜다. 드라마 한 편 보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다. 그는 이불을 깔고 눕더니 말없이 화장실로 들어간다. 나도 말하지 않았다. 텔레비전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다른 때 같았으면 밥을 차려주고, 마음을 풀어주려 애썼겠지만, 이번엔 그러고 싶지 않았다. 기껏해야 금·토·일, 2박 3일의 외출이다. 실제로 밖에서 잔 건 금요일 하루뿐이고, 토요일 오후 두

시 반 돌아와 어머님을 초대해 저녁까지 함께했다.

일요일 오후 4시에 집을 나서 책 토론 모임을 마치고 식사 후 돌아온 게 전부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이제부터 냉전이다. 밥 굶고 빠지면 자기 손해지. 말 안 하고 지내는 건 나도 답답하지 않다. 아마 며칠 못 가서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건 남편일 것이다. 화내고, 빠지고, 사과하고 늘 그런 식이었다.

하지만 가족의 화목이 한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할까. 남편은 돈을 벌고, 주말엔 발일하며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지금껏 변하지 않았다. 얼마 전 막내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우리 가족은 화목한 것 같지 않아요.”

“왜?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싸우지는 않지만, 엄마 아빠는 서로 웃지 않아요. 대화도 별로 없고요. 아빤 집에 오면 유튜브만 보고, 엄만 드라마만 보죠. 내 친구네는 엄마 아빠랑 심야 영화도 보고, 여행도 자주 가요.”

“그럼, 그 친구네 가족 하면 되겠네.”

“아뇨. 그건 아니죠. 전 우리 가족이 더 좋아요.”

농담처럼 넘겼지만, 그 말이 오래 남았다. 우리 가족의 공기가 그렇게 느껴졌다는 게 충격이었다. 분명 개선의 여지는 있다. 하지

만 그 변화를 쥐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다. 그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늘 과거 이야기만 꺼낸다.

이제부터는 달라져야겠다.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면, 불편을 감수해야 할 사람은 남편이 되게 해야겠다.



꿀벌화숙

자기 목소리로 말하고
쓰고 행동하며 살고 싶은 60대.
『내 몸은 내가 접수한다』와
『숙덕숙덕 사모의 그림자 탈출기』를 썼고,
다음 책을 준비 중이다.



“60대가 되니 지난날 알던 돌봄에 넉더리가 납니다.
특정 성별만의 일이 아닌, 누구나 해야 할 필수노동인데,
딸이라고, 여자라고, 떠맡겨지는 돌봄은 사기요 부정의죠.”

진료실을 나오며

꿀벌화숙

십일 년 전 일이다

간암절제수술 후 3개월 차 정기 검사 결과 보러

진료실에 들어가 질문했을 때였다

중년의 명의가 독설을 날렸다

그게 왜 궁금합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오늘만 벌써 몇 명째인 거야!

나는 귀담아듣지 않았다.

내 몸이 궁금했고 질문할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말소사 다시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숨을 참으며 진료실을 나온 후

천돌에 봉인해 두었던 그 말을 꺼내들었다

왜 궁금하냐고? 누가 알아서 한다고?

나를 향해 버려져 있었다

내 몸은 내가 접수한다,

날을 향해 기꺼이 달려갔다

이제 비굴하지 않아도 돼 두려움 따위

이제 그만 환자여도 돼

(정끝별의 '가스 밸브를 열며'로 쓴 모방시)

나는 돌봄이 싫다 (5분 연설문)

꿀벌화숙

돌봄이 싫다니, 듣기 어떤가요? 돌봄을 주고받는 게 삶인데, 돌봄은 필수노동인데 대놓고 싫다니 민망하긴 하네요. 네, 불편한 진실, 싫은 돌봄 이야기입니다.

저는 동해안에서 태어나서 싱싱한 회를 먹고 자랐어요. 11년 전 암 수술 후 채식·자연식을 하면서 회도 생선도 싫어졌어요. 비건을 지향하니, 동물을 때려잡아 먹는 육식 문화도 싫어졌어요. 어떤 익숙한 행동이 어느 순간 견디기 힘들 만큼 싫어지기도 하죠. 그런 맥락입니다.

저는 남 돌보는 아이로 컸습니다. 두 동생에, 집안일에, 농사일에, 친구들까지도 돌봄의 대상이었죠. 3살 아래 남동생을 업고 연년생 여동생과 함께 엄마가 일하는 밭으로 동생에게 젖을 먹이러 가던 기억이 납니다. 겨우 여섯 살 아이에게 동생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날도 남동생을 단단히 띠로 묶고 나섰겠죠. 동네 앞 옹달샘에

서 시원한 샘물 한 주전자 떠서 여동생과 교대로 들며 갔습니다. 위태위태하게 비탈길을 걸어 개울을 건너고 좁은 도랑을 따라 논둑길을 걸어갔습니다. 업힌 동생은 자꾸만 쳐지고 제 몸은 땀에 젖었습니다. 아, 한순간에 제가 그만 도랑으로 떨어졌습니다. 물은 알았지만, 등에 업힌 동생 무게 때문에 저는 꼼짝없이 꼭 처박혀 버렸습니다. 주전자는 나뒹굴었고 두 동생은 울었지만, 저는 아무리 킁킁대도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화숙이 어메야. 얼라들 도랑에 처박혀 울고 있다. 퍼뜩 내려가 봐라.”

건너편 밭에서 일하던 동네 아줌마가 외쳤습니다. 엄마가 달려왔고 남동생과 저는 차례로 꺼내졌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 꼬에 무릎이며 팔엔 피가 났지만 저는 안 울었어요. 제 관심은 온통 남동생이 안 다쳤는지, 주전자 물은 어찌지, 엄마한테 혼날까, 걱정뿐이었거든요.

돌봄 소녀는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요? 이게 영화의 도입부라면 결말이 상상되지 않나요? 네, 저는 동생들의 언니 누나로서 설거지 청소를 도맡아 엄마를 도왔습니다. 착한 청소년기를 거쳐 데모 안 하는 대학생이 됐고 희생과 헌신의 선교 청년으로 살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로 서약하며 결혼했습니다. 세 아이의 엄

마, 좋은 아내, 며느리, 사모로 남 돌보다 죽을 팔자였죠.

그러나, 문학도 삶도 반전이 맛이죠? 페미니스트 작가 벨 훅스는 『사랑은 사치인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어떤 여성도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사랑받을 수 없다! 남성 중심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문화를 옹호하는 이들은 여성에게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발전보다 남을 즐겁게 하는 데 힘쓰라고 한다.”

중년에야 내가 헛살았구나! 깨달았습니다. 암 수술과 갱년기 덕에 자연치유와 페미니즘을 공부하며, “내 몸은 내가 접수한다”라는 반전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60대가 되니 지난날 알던 돌봄에 넌더리가 납니다. 특정 성별만의 일이 아닌, 누구나 해야 할 필수노동인데, 딸이라고, 여자라고, 떠맡겨지는 돌봄은 사기요 부정의죠. 저임금과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돌봄이 싫습니다. 자기돌봄, 자기 사랑보다 남 돌봄을 앞세우는 거짓말이 듣기 싫습니다. 성차별적인 그런 돌봄은 주기도 받기도,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열두 개의 국가 자격증

꿀벌화숙

“300명 이상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베이비시터, 한식 조리사, 중식 조리사, 양식 조리사, 간호조무사, 영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병원 코디네이터, 미용사, 운전면허 1종.”

국가 자격증이 모두 12가지다. 장롱에 잠자는 종이쫄가리가 아니라 현실에서 일하고 먹고사는 데 쓰인 자격증이다. 가장 오래된 건 40년 넘은 미용사와 운전면허증이고 가장 최근의 것은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병원코디네이터다. 영양보호사 자격증으로 간병인 일을 길게 하고 있다. 일흔 살 우리 언니 이야기다.

“국가 자격증이 12개나? 이 정도일 줄 몰랐대이!”

“이건 완전 압축판 한국 현대 여성 노동사잖아!”

나는 입이 벌어졌다. 언니의 인생 파노라마 자격증들은 죄다 돌봄 노동 관련이었다. 영화 <빵과 장미>에서 동생 마야와 언니 로사의 대사가 떠올랐다.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몸 파는 일까지 했다는 로사에게 마야는 흐느끼며 그랬다. “몰랐어. 난 정말 몰랐

어.” 로사는 소리쳤다. “몰랐어? 몰랐다고?”

언니와의 1박 2일 휴가 덕분이었다. 3개월씩 창원과 서울을 오가며 돌봄 받는 시엄마를 창원에 모셔가는 차로 대구를 찍었다. 언니가 사주는 점심을 넋이 먹고, 짹짹과 시엄마는 창원으로, 나는 다음 날 짹짹이 올 때까지 언니와 지내는 일정이었다. 짹짹이 노모 돌봄을 맡으니, 내가 ‘좋은’ 맘머느리 노릇을 벗고 ‘자매의 시간’을 누릴 수 있었다. 엄마 장례식 후 자매끼리 만나 놀자던 소원이 9개월 만에 이루어진 셈이었다.

20대 초반에 결혼한 언니는 아들딸이 다 독립한 줄흔 15년 차의 1인 가구다. 2남 3녀의 맏이요 큰딸인 언니는 19년 전 내 오빠가 세상 떠난 후부터는 장남의 빈자리도 채워주는 K-장녀다. 작년 가을, 친정엄마가 돌아가실 때도 언니가 엄마 곁을 지킨 보호자였다.

언니 차는 9인승을 2인승으로 개조한 큰 캠핑카였다. 그 차로 우리는 엄마, 아빠가 봉안된 영천 호국원에 다녀오며 해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다. 대구 사는 여동생과 제부가 합류해 저녁도 먹었다. 각자 사느라 자매들끼리 놀러 다녀본 경험이 없구나, 부모 생신이나 돌봄 일로만 모이고 흩어졌구나, 실감하는 시간이었다.

박철의 시 <그 아이의 연대기>를 따라 내가 쓴 모방 시 <그 아이의 호랑이 연대기> 중 한 연을 옮겨 본다. 언니 오빠가 어린 ‘내가슴에 짐’으로 등장하는 대목이다.

1972년 10월 가을 추수 후

아이 가족 면 소재지 영해로 이사하다

청소년 언니 오빠는 대구로 돈 벌러 나가고

영해국민학교로 아이와 두 동생 1,2,3학년 다니다

학교 중퇴한 언니 오빠가 아이 가슴에 짐이 되다

나보다 여섯 살 많은 언니와 셋째인 나는 인생 경로가 달랐다. 중학교 중퇴한 언니 오빠는 어린 내 가슴에 짐이었다. 엄마의 눈물과 부모의 불화와 내 죄책감의 원인이었다. 딸들이 돈 벌어서 아들 공부시키는 이 나라였지만, 오빠는 동생들에게 양보만 하다가 간경화 간암으로 48세에 세상을 떠났다. 꿈 많고 재능 있는 언니가 ‘꺾여버린’ 청춘으로 일해서 나와 동생들에게 책을 사주고 옷을 사주었다. 언니가 양장점에서 만든 교복을 입고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도시 고등학교 갈 때 언니는 결혼했다. 내가 대학 생활에 걸돌 때, 언니는 미용사로 일하는 엄마였다. 내가 선교랍시고 돌아다니다 두 아이 엄마로 돌아오니, 언니는 검정고시에 방송대를 거쳐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었다. 내가 교회 일에 바빠 세 아이를 부탁하면 언니는 피자를 직접 만들어주며 며칠씩

돌봐 주는 품 넓은 큰이모였다.

어린 내 가슴을 누르던 그 짐은 어디로 갔지? 언니와의 1박 2일이 던진 질문이었다. 언니의 지난 삶을 듣고 지금 여기의 언니를 보며 나는 고백했다. 언니오빠가 못 간 대학을 나만 다닌다는 죄책감이 있었다고. 내가 공장 갔더라면 언니 오빠가 늦게라도 대학에 갔을 텐데, 그 대학을 나는 정작 엉터리로 다녔다는 부끄러움이 있었다고. 세상 물정 모르는 헛똑똑이었다는 내 안의 부끄러움과 자격지심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었다.

“너는 너대로 뜻을 좇아 산다고 고생했잖아. 그만하면 참 잘 살아낸 거야.”

열두 개의 국가 자격증을 가진 언니가 나를 토닥여 주었다. 언니는 꺾인 청춘이 아니었다. 자기 앞의 생을 인정하되 도전과 개혁의 자기돌봄으로 살아낸 사람이었다. 우리는 돌봄 노동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그 속에서 일하며 살아내고 있는 여성 동지였다. 부모도 가방끈도 지난날의 그 무엇도 지금의 우리를 쉽게 규정하지 못하는 세계에 우리는 와 있었다. 어른이 된 후에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자매는 닮아 있었다.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는 언니. 운전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는 내 언니. 노동해서 나보다 돈도 잘 버는 언니. 무소의 뽕처럼 홀로 가는 언니와 포옹하는

자매의 시간이었다.

작공이 나를 데리러 왔을 때 언니는 먹을 것을 한 보따리 챙겨 차에 실어주었다. 흑마늘, 매실 고추장, 쌀조청, 매실청... 언니가 시간과 마음을 들여 직접 삭히고 고고 달인 것들이었다. 오랜 세월 된장 고추장이며 조청이며 청을 직접 담가 나눠주는 언니. 그렇게 살 거라고, 나는 허풍만 떠는 사람. 그 비싼 흑마늘까지 직접 만들어서 동생들에게 나눠주는 언니였다.

언니는 오늘도 캐리어를 끌고 24시간 간병 13만 원 일당 일하러 갔을 것이다. 한 열흘 일하고 나면 캠핑카를 끌고 어느 강가에서 고요히 자기돌봄의 시간을 즐기고 돌아올지도 모른다. 언니한테 받아 온 매실 고추장에 밥을 싹싹 비벼 먹다가 흑 인증사진을 찍어 날린다.

“언니야, 고추장 넘넘 맛있어. 자꾸 빨갱게 비벼 먹는 거 보이제? 장인(匠人)이나 고추장 된장 국가 자격증도 받아야 하는 거 아냐?”



나? 글쓰기로 자기돌봄 중!

우리의 돌봄을 나누고 글로 쓰다

글쓰기

꿈마난영 나나 레몬선희 리사효정 마늘 박단비
보리남순 비날성혜 생각쟁이이정숙 신은향
심박 송송 애플정환 얼쑤 이영경 이해우
장해문장혜 정하덕 지혜연 짱아 최운경 한톨
향천 꿀벌화숙

퍼낸곳

사단법인 함께크는여성올림
전화 031) 482 0505
홈페이지 ullimwomen.or.kr
주소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99 현대타운 601
디자인 나무와책이있는자리

* 2025년도 경기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